



New Christian Series

성장을 위한

첫걸음

Linton M. Smith 지음

편집부 옮김

KJ 킹제임스
KingJames

New Christian Series

by Linton M. Smith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1999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지은이 | Linton M. Smith

옮긴이 | 편집부

초판발행 | 2009. 6.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 6.18. 제17-292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7층

전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lifebooks.co.kr

표지디자인 · 편집 | 박소현 dew0706@hanmail.net

■ ISBN 978-89-89741-11-4

■ 정가 15,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목 차

머리말 _ 005

성경공부를 하기에 앞서 _ 006

01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_ 017

02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12가지 _ 061

03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 I - 거듭남, 영적 할례, 성령의 인침 _ 079

04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 II -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_ 113

05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 III - 구속, 화해, 성화 _ 145

06 그리스도인의 상속 _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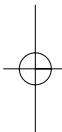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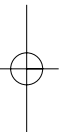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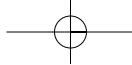
07 성도들이 받는 심판 _ 239

08 부활한 몸 _ 301

09 교회의 휴거 _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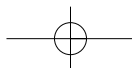
10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I _ 379

II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II _ 423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한영대역(2008)”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머리말

필립 하워드 주니어(Philip E. Howald, Jr.)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흠정역(1611 King James Authorized Version)성경이 소개되고 많은 책들이 번역되었지만 정작 새 신자들을 위한 기초 성경 공부 교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권의 기초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왔고, 〈그리스도인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바이블 서원〉와 같은 좋은 책도 있었지만 교재용이라기보다는 독본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총 10권으로 발행되는 New Christian Series는 건전한 교리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예화와 깊이 있는 내용으로 쉽고도 정확하여 모든 교회에서 사용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책은 중국의 선교사 린튼 스미스 목사님께서 선교를 하면서 집필하신 매우 실전적인 책으로 중국의 새 신자들을 상대로 흠정역 성경을 믿는 선교사님의 생생한 강의가 그대로 녹아 있는 책입니다. 번역 및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린튼 스미스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공부를 하기에 앞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행16:31).

회개하는 죄인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기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벧후3:17-18)이라고 합니다.

18절에서 우리에게는 간단한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17절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증거하고 주를 위해 살라는 명령을 받았듯이, 성경을 연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

라.”(딤후2:15).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킨다면 성경을 한결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 성경의 본문에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성경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목회자) 밑에서는 절대로 성경을 배우지 마십시오. 성경을 다룰 때는 성경이 우리를 고쳐 주는 것이지, 반대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살아 있을 당시에라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후2:17).

2. 성경의 문맥에서 벗어난 구절들을 뽑아내지 마십시오.

“문맥에서 벗어난 본문은 핑계에 불과하다”(A text without context is a pretext.)
란 유명한 말이 있듯이 성경의 구절은 항상 그 문맥이 자리잡고 있는 곳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3.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구절로 다른 구절을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미리 정립된 신학 이론의 틀에 짜 맞추어 해석되어선 안 됩니다. 성경 자체의 본문이 신학을 결정지어 줍니다. “...등잔들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출25:37). 성경의 구절들은 다른 구절들을 조명해주며,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주석서입니다.

4. 성경이 이미 정의하고 있는 구절을 다르게 정의 내리는 학자들에게 달려가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6의 ‘돼지’와 ‘개들’의 의미는 베드로후서 2:2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5.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유의하십시오.

예를 들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보내어진 서신입니다(약1:1). 따라서 야고보서를 근거로 해서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를 확정해서는 안됩니다.

6. 불가능한 곳이 아니라면 성경의 모든 구절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문자적 의미가 충분한 의미를 전달한다면, 더 깊은 무슨 뜻이 있을까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구절이 분명히 비유가 아니라면, 늘 쉽고 평범한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7. 성경 속의 모든 구절은 3중 적용이 됩니다.

- a. 교리적 적용(주로 예언에서)
- b. 역사적 적용(인간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
- c. 경건한 영적 적용(신자의 삶의 행동과 규범에 직접 적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성경의 어떤 어려운 구절도 적절하게 적용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 같은 점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처럼, ...같이” (like, as)란 말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어휘입니다.
- 대조 : 디모데후서 2:15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 반복 : 어떤 것도 지속적인 반복 없이는 얻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자리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의 여백에 관주를 만들거나, 노트에 관련 구절들을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분은 항상 주님이시므로 늘 그분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말입니다.

》》》철저히 갖추어지도록 ...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모든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1. 성경은 교리에 유익한 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란 특정 주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말함) 미국에는 5,000여 개의 교파가 있고, 각 교파마다 다른 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각 교파마다 자기들의 교리를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가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순수한 교리의 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온통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두며, 어떤 사람이나 종파에서 무엇을 믿든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쓰인 그대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최종 권위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어떤 것보다 더 신실한 표준이며 그 최종권위는 1611년에 출간된 흠정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흠정역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롬3:4)라고 하였고, 시편 기자는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시118:8)라고 하였습니다.

2.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디모데후서 3:15에서 말하는 책망은, 죄와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라는 권면을 내포합니다. 성경은 늘 죄를 날카롭게 책망하고 지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치료를 위한 것이지 수치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목적은 뒤에 나오는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게겐 숨길 수 있는 죄가 있을지라도 성경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119:105).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엡5:13).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요3:20).

일단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잠언 29장의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으리라”(잠29:1).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나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잠12:1).

주의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주께서 친히 바로 잡아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책망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2:5,6절 참조)

3. 성경은 바로 잡기에 유익한 책이다.

바로 잡음이란 우리가 죄를 범한 후 주님과와의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는 치유책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욥5:17).

“내 아들이여,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싫증

을 내지 말지니”(잠3:11)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히12:11)라는 것입니다.

4. 성경은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은 결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모두 다 이해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믿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지각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님의 단계적인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골1:9). (채워지기를 원하였다는 문맥)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의 위대한 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시켜 줍니다.

마틴 루터가 남긴 몇백 년 전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을 수는 없고, 많이 읽었다 해도 너무 잘 읽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잘 읽었다면, 너무 잘 이해했다고 말하지는 못하리라. 잘 이해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너무 잘 가르쳤다고 하지 못할 것이요, 잘 가르쳤다면 여러분이 가르친 대로 너무 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적 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경고했듯이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엡4:14).

속기 쉬운 대표적인 예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교리와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살전2:13).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영적 성장

갓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적절하게 양육 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성장하기 시작해야 합니다^{(하나님의 말씀은 젖이다. (벧전2:1-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벧전2:2).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히브리서 5:12).

주님은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한 영양사이시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여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일컬어집니다.

- 우유-히5:13
- 고기-히5:14
- 꿀-시119:103
- 사과-잠25:11
- 빵-눅4:4

주님은 자녀들의 식탁에 다양한 영양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일찍이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벧후3:18)고 말씀하셨습니다. 균형 잡

힌 식사를 할 때,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 성장 7단계

1. 갓난아기로서 -벧전2:2
2. 어린아이가 된다-요일2:1,12
3. 아이가 된다-고후6:13, 벧전1:14
4. 곧 젊은이가 된다-요일2:13
5. 어른이 된다-골1:28, 요일2:13
6. 장로가 된다-요이1
7. 결국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이든 자로 언급된다-빌레몬서1:9, 디도서 2:2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태까지 성장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너무 먹지 않아서,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나도록 기저귀를 찬 어린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5-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벌써 성장한 사람들도 봅니다. 차이점은 바로 얼마나 균형 잡힌 섭취를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일정량 이상의 양식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초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공부가 끝나갈 때면 여러분은 성경의 기초적인 교리와 믿음에 관한 진리들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성실히 공부를 다 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변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남.
2.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됨(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에 따라 주님에 의해 사용되기를 기대해야 한다.)
3. 주님께 더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더 잘 분별한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한다. (주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5.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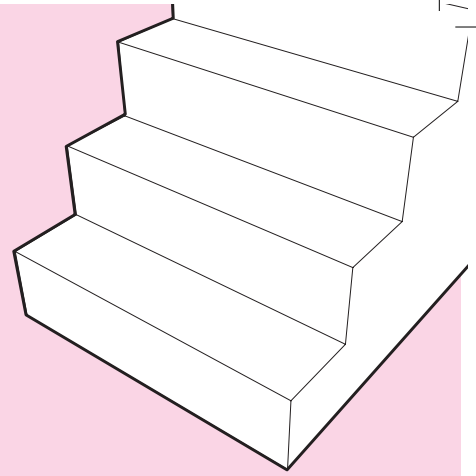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을 위해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일들을 더 많이 배워 가면 갈수록, 복되신 구주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제임스 매기 박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절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영양소를 전혀 섭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 읽어 드리는 시는 매우 적절한 예가 될 것입니다.

“나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 힘이 밀려오네
하나는 악한 것이요, 하나는 축복된 것이라네
새로운 것을 사랑하고, 옛 것을 미워한다네.
내가 먹는 음식이 옛 것을 이기게 해 준다네.”



chapter 01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이번 책의 목적은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구원의 교리를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제1과 에서 우리는 다음 3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1.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
2.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한다.
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이번 책의 목적은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구원의 교리를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제1권에서 우리는 다음 3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1.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
2.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야 한다.
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후 단계의 어떤 공부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이며, 우리의 성장에 필수 요건입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지만 자신들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의 목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물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회개, 믿음,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목사들에게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주 이 사실을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사들 가운데 아무나 붙잡고 침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물으면 주저 없이 '물론 받았지

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받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와 같은 답을 합니다. 400명에서 500명 이상에게 매주 성경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자신의 구원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얼마나 황당한 것입니까? 실제로 그들의 믿음은 '누구도 살아 생전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그 다음 단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모든 교리들에 대해서 절망적인 혼돈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신자들이 배워야 할 3가지 기본 사항을 면밀히 배워 나가기로 합시다.

1.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주 예수를 영접했으면 자신의 마음에 영생의 선물이 현재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하늘나라에 '갈지도 모른다' 는(모호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에는 '구원받기를 바란다' 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고전15:1-4)을 믿은 회개한 죄인은 누구라도 구원받았으며, 확실히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전히 자기 의(義)에 기초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 하늘나라에 갈지도 몰라 하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하지만, 이런 말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시118:8)

우리는 다음 구절도 읽어야 합니다.

“오직 너희 마음 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벧전3:15).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요일5:10).

다음 구절은 핵심 구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5:12).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생이 없습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5:13).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이런 복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말로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당신이 오늘 밤에라도 죽게 된다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라고 물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글쎄요’, ‘그러기를 바라지요’, ‘저는 노력 중입니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 봐야 알지’와 같은 이상한 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성당 다니는데요.’ ‘저 교인이예요.’ ‘저 세례도 받았는데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사실을 잘 압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이 믿기 어려우신 분은 전도지를 손에 가득 들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시면 알 것입니다. 교회에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롬3:4)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영생에 대해 의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최종 권위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공부와 방송에서 말하는 것, 또는 그들이 추종하는 설교자와 그들의 기분에 딱 들어맞는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한 권의 책인 성경에 신뢰를 두기보다 다른 많은 것들에 신뢰를 둡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침례교 목사님이 로마 카톨릭 사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제는 성경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면서 말하기를 자신은 평생 철학을 공부하는 데 인생을 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보여준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 한 그 사제는 결국 말하기를, “성경은 쓸데없는 책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은사주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절대로 교리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단지 서로 세워 주고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가 성경의 기록된 말을 아무리 보여 줘도 그는 “아무도 자신의 구원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은 칼빈주의자에게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구절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평이하고 쉬운 구절들을 접하면서 할 말이 없어지자 대화를 딱 끊으면서 “당신은 아시는 것 같군요, 하지만 성경은 설교자의 손에 있어야 하며, 그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스스로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며, 신학을 전공한 대학 이상 학력의 졸업자가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다 비슷 비슷한 말을 합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는 관심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권위가 상충될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이 자기 교회의 신학이나 전통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은 성경을 던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그 위에 서십시오. 성경은 모든 논쟁을 다루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자리잡을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결코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지를 질문 받으면, “예 저는 2-3년 전에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그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런데,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하기는 좀 어렵군요.”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파에서는 구원에 관한 문제만 달달 외워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짚어 가면서 마치 컴퓨터처럼 대답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며,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남자에게 “당신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군요.”, “결혼 서약서는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군요.” 라고 합니까? 자 들어 보세요. 그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결혼해서 그녀를 집에 데려와 살며 아내라고 부릅니다. 한 시간 전에 아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애들을 침대에 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남자는 그렇게 헛갈릴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접한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소망도 포기한 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으며,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박히셨다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희열이 가득 차며, 성령이 충만케 됩니다. 그러할진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모른다면,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마 구원받지 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 의

심을 유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과거에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자주 기억나게 합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도 있고, 우리의 금증을 모두 풀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옛날 찬송가 한 곡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곡은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게 해 줍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상의 책에 죄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었네.
이 지상에서 지은 모든 죄들이 기록되어 있다네.
나의 이름은 맨 위에 있구나
그 아래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네.
나는 천상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가서
오래 전에 나의 죄는 해결되었다고 말했네.

후렴)

오래 전에, 오래 전에
정말 오래 전에 나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다네.
기록은 깨끗해지고, 그가 나의 죄를 씻어 냈기에.
옛적의 모든 죄들은 오래 전에 해결되었다네.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여러분의 죄값이 지불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이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구원받고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른다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 한 분이 구원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기독교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간증입니다. 사람이 아주 어려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 속 깊이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의 기억은 생생한 법입니다. 시커먼 죄와 마음에 가득한 사악함을 가지고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구주이신 주님을 뵈었는데, 그것을 기억할 수 없다는 말은 저로서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아주 어릴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억이 희미한 사람일지라도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켜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때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과, 죄 사함을 받았음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분명한 예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죄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죄수는 모든 사람이 물을 수 있는 아주 쉽고도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 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이까?”

바울 사도의 답은 질문만큼이나 간단하고 쉬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행16:31).

그 간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기와 자기 집이 구원받을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30절의 정확한 질문에 따라 31절의 정확한 답변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답을 볼 수 있습니다.

-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 교회의 회원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 성사(카톨릭의 일곱 가지 종교 의식)를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 황금률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나중에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믿는 현재 그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한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였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한복음3:16-18).

이는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과 동일합니다.

- 주를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유일한 죄는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저주는 사람의 불신 때문이며 다른 무엇 때문도 아님이 분명합니다. 물 침례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구절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막16:16)

이 말씀은 우리에게

-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뱃부분)
- 고로 사람을 저주받게 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물 침례는 저주와 상관
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사람들을 교묘히 속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교회에 경고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랑하는 자들이니라”(고후11:13)

구원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려면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으로 눈이 가려져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후 4:3,4).

II.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가장 기초적인 첫 걸음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히11:6).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3:14,15).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진보를 보여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말하기를

“그는 독실한 사람ियो,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救濟)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행10:2).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यो,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행10:22).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잃어버린 자(즉 구원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0:4에서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자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죄를 씻음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35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만

➔ 성장을 위한 첫걸음

하였지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히11:6).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믿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 백부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것이 교회 시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고전15:1,2).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복음으로!

자, 성경의 다른 부분도 찾아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배우기로 합시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고전15:3,4).

- 바울이 받아서 전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의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죽음, 장사 지냄, 부활.

이 구절에서 물 침례에 대한 구절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 구절 앞뒤로도 물 침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 침례는 구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들의 교리일 뿐입니다. 복음이란 주님의 죽음, 장사 지냄, 부활입니다.

사람이 그냥 지적으로만 복음이 사실이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한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머리로 믿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머리로 인식되고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복음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구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인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회심의 3단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A.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한다.
 - B.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
 - C.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한다.

1. 나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입니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구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소망도 없고, 지옥으로 가고 있을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래 성경 구절은 참 좋은 말씀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하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3:10).

- “모든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모두이며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롬5:12).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롬6:23).

로마서 6:23은 죄의 삯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치료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사망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 우리도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입니다. 주님과 관계의 단절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계20:11-15).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무궁토록 불못에 던져지며, 주님과 완전히 단절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가진 영원한 생명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새로운 출생을 겪게 됩니다.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 잃어버린 죄인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읽어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전7:20).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렘17:9).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앞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비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사64:6).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경건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의지해야 합니다.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마9:13).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롬4:5)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롬5:6).

- 사람은 자신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다.

- 반대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는 매우 다른 배경을 지닌 구원받지 못한 두 사람의 예를 잘 보여 줍니다.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데 한 사람은 자기 의로 충만하며,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눅18:10-12).

자신의 의를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선포합니다.

반면 구원받지 못한 가난한 세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눅18:13).

그때 예수님은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18:14).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주목하십니까?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자신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며, 자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세리가 그 부자보다 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행위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을 거야.”
- “나는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다. 나는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

2.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불타는 지옥 불로 직행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죄를 주님께 기꺼이 가져오지 못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엡2:12).

더욱이 그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엡 2:1-3).

B.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아야 한다.

1.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신 유일한 해결책은 그분의 아들이 흘리신 피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듯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로마서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6:23을 암송해야 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니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로마서 5:15-18에서도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이 형광펜을 들고 선물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밑줄을 그어 보세요. 구원은 선물임을 쉽게 확인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롬5:15-18).

만약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빚지신 것이 됩니다. 구원은 더 이상 값없는 은혜가 되지 못하고 샅이 됩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롬4:4,5)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롬4:4,5)

이런 구절들을 통해 볼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복음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은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성경적 개념은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 성장을 위한 첫걸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롬10:16).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써 복음에 순종합니다. 성령은 말하기를 그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 모든 종교에서는 “...하라(do)” 하고 말하는 반면 하나님은 “...다 이루었노라(done)”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구원의 사역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요19:30).

교회 시대에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믿는 은혜로써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 9).

만약 사람의 행위로써 어떻게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빛을 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분의 행위에 의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은혜란 사실을 설명해 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연필이나 동전을 손에 잡고 있다가(손에 잡을 수 있는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던 상대방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것을 받으면 그에게 영생을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받는 것도 이와 똑같은 것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C.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1. 성령께서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한 찢림을 주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요6:44).

다음과 같은 구절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요 12:32).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죽었을 뿐, 모두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지옥에서 곧바로 올라온 거짓말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그런데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한 찔림을 주고, 믿도록 촉구하지만 죄인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여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에게 구원받을 욕구를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성령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 시더라.”(계22:17)

2. 회개

여러분 가운데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해야 되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행17:30).

그러나,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죄에 대한 단순한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기만 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한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들의 악한 길들로 되돌아갔습니다. 가룟 유다와 에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매우 슬퍼했으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마27:3-5, 창27:34-38).

성경은 우리에게 에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히12:17).

후회와 눈물은 종종 회개에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회개는 아닙니다.

찰스 스펔전은 이렇게 썼습니다.

“살인자가 교수형을 싫어하듯이 사람은 죄를 싫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만약 내가 형벌 때문에 죄를 싫어한다면, 나는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란 사실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범죄임을 안다면, 내가 그분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게 만들었던 사실을 보고, 내 마음이 부서져 내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이다.”

참회를 한 것이 회개를 한 것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비성경적 가르침으로 인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는 마음이 변화되어 행동의 변화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면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일을 하러 가라는 말을 들은 아들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마21:29).

처음에 그는 포도원에 가기를 거절했지만 나중에 회개하여 자신의 마음을 되돌려서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 감정적인 면

슬픔이 회개의 진정한 표시는 아니지만, 참된 회개를 했다면 죄에 대한 슬픔은 필연적입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고후7:9-10).

누가복음 18:13에서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쳤으며,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7:38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글자 그대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로 인해 그녀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감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란 질문에는 아무도 정확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에는 감정적 변화가 수반되며, 죄에 대한 슬픔이 있다는 점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지 않고, 단 한 방울의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스펄전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죄인은 머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갖고 있다. 죄인은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있다. 우리는 이 둘 다에 호소해야 한다. 어떤 죄인이라도 감정이 움직이기 전에 회심하는 법은 절대 없을 것이다.”

>>> 의지에 관해서

회개하다(^{repent})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돌아서다”란 뜻입니다. 누가복음 15:18의 탕자는 “내가 일어서리라(I will arise.)”라고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갈 길에 대해서 생각만 하다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향해 걸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회개하여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집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 마음이 상한 결과 일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돌아서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회개란 일회성 행동 이상의 경험을 말합니다. (탕자는 일어나서 걸어갔다.)

a.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이다.”(시38:18).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9-13)

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고백을 하려면 필히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행위입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게 되며, 11절 말씀과 같이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 사람은 절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주님 또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려 주께 나온 죄인들을 내어쫓겠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요6:37-39).

세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탕자는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지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b. 죄의 단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사55:7).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잠28:13).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c. 하나님께로 돌이킴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없이 죄로부터만 돌아서는 것은 거듭남이 없는 개혁에 불과합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쓴 데살로니전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의지와 성향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관하여 보여 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살전1:9).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골2:13).

회개란 우리 안에 공기를 넣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상한 영과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행 11:18).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딤후2:25).

회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시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써 100회 이상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회개에 대한 실패는 곧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눅13:3).

실제적인 경험, 고백, 회개, 믿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을 믿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와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10:17).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살전2:13).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우리는 성경에서 설교(복음선포, Preaching)란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 주는 주요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II.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전1:21).

구원의 근거를 절대 감정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때 울며, 어떤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소리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울든지 조용히 있든지 상관 없습니다.

III.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게 하는가입니다. 만약 앞에서 이미 언급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은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의 구령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음 전도자로 훈련시킵니다. 그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노력합니다.

R.C. 헬버슨(Halver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신약 성경에서 한 가지 이슈로 다루어진 적이 결코 없습니다. 사도

들은 복음 전도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조직하거나 계획을 잡고 촉구하고, 권면하고 꾸짖는 그런 복음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는 그냥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빛이 비치듯이 신자들이 모인 곳에는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염병이 번지듯이 복음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증거할 때 사용되는 방법은 전적으로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는 경험에 의해서 습득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지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로마서의 대로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음 전도 방법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함께 성경을 찾아보며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단 몇 분만에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제시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왜 거듭나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늘 복음의 씨를 뿌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늘 거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늘 뿌리고 거두어야 합니다.

구령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하는 것보다 혼을 얻어 오는 것(soul-winning)은 더 중요합니다. 진실로 혼을 구원하고 싶으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며,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간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 아신다면 매우 놀라실 것입니다. 증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고 사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람들 앞에서 아무런 간증도 유지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어떤 전도 교육도 구령의 실제적인 역사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 로마서의 대로

우리는 로마서를 이용해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주님께로 쉽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잭 하일스 박사는 “성경의 단 한 구절도 암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령자가 될 수 있다. 단 자신의 성경에 다음에 어느 구절로 가야 할지 표시만 정확하게 해 둔다면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다음에 말해야 할 구절들에 대한 참조 구절을 성경에 표시 해 두는 이런 방법을 로마서에 적용한 것을 일컬어 ‘로마서의 대로’ 라고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령할 때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신뢰감과 확신을 심어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몇 차례 훈련하게 되면 곧 이 구절들에 익숙해지고 성경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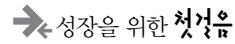
첫째 : 성경을 준비합니다. 신약만 있는 성경이어도 되고 글자가 큰 성경이면 더 좋습니다. 글자가 큰 성경은 구령하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성경 구절을 직접 읽거나 보게 하는 데 유익합니다.

둘째 :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구절에 형광펜등을 써서 진하게 강조 표시를 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말씀을 직접 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 참조 구절을 성경의 여백에 직접 기록해 두십시오.

>>> 참조 구절을 활용하는 법

1. 먼저 구원에 관련된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맨 앞이나



뒷페이지의 공란에 구원이란 말을 써 두십시오. 구원이란 말 밑에다 로마서 3:10이라고 쓰십시오. 성경을 펴서 로마서 3:10 밑에는 로마서 3:23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서 3:10을 말한 다음 쉽게 로마서 3:23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 두면 다음에 가야 할 곳을 안내 해 주는 도로 표지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2. 로마서3:23로 가서 그 아래에 로마서5:12이라고 쓰십시오.
 3. 로마서 5:12을 펴서 그 아래에 로마서 6:23이라고 적으십시오.
 4. 로마서 6:23을 펴서 아래나 여백에 로마서 5:8이라고 기록합니다.
 5. 로마서 5:8을 편 후 여백에 로마서 10:9-13이라고 써 넣습니다. 로마서 10:9-13이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 로마서 3:10과 3:23은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을 보여 줍니다.
 - 로마서 5:12과 6:23은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 줍니다.
 - 로마서 5:8은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했음을 보여 줍니다.
 - 로마서 10:13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께 공휼을 구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말씀은 수백 구절이 넘지만 핵심만 정확하게 보여 주고 이해시키는 데는 5-6구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구절들을 펼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혼동을 줍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이해시키거나 구원받게 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몇 구절만 더 제시하겠습니다.

- 고린도후서 5:21은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사 믿는 모든 사람들에 자신의 의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줍니다.

- 에베소서 2:8-9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 고린도전서15:1-4은 복음의 정의를 내려 줍니다.
- 요한복음 1:12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여백에 특정한 것에 대한 진리를 말해 주는 특정 구절들을 기입해 둔다면 여러분이 말하고자 할 때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대로를 이용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다 마쳤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하십시오.

잭 하일스 박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늘 사용했습니다.

“자, 도에 씨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단 4가지 뿐입니다.

첫째, 당신은 죄인이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3:10에는 “기록된 바,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부터 먼저 언급하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절대 상대방부터 언급하지 마십시오) 만약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의인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말은 저도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은 당신 아내도 죄를 지었다는 말이며, 당신도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반론하면,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몇 구절을 더 제시해서 완전히 붙잡으십시오,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신은 정

➔ 성장을 위한 첫걸음

말 당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악한 생각들, 나쁜 책들, 추한 성질까지도 모두 죄란 사실을 말해 줍니다. 죄에 대한 목록들을 펼치다 보면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는 찔리게 마련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십시오.

둘째, 죄에 대한 대가를 보여 주십시오. 로마서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사망이란 어떤 종류의 사망을 말합니까? 영적, 육체적 죽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인(全人)적 인 죽음입니다. …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즉시 로마서 6:23으로 갑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죄에는 삯이 있습니다. 그 삯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어떤 종류의 사망입니까? 계시록 20:14로 갑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지옥에 감으로써 그 삯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은 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가입니다.

셋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께서 그 대가(代價)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에 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니 당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아셨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당신이나 저나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것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 분은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도에 씨,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삯은 바로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실 때 영적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이 지옥에서 겪게 될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겪어야 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모두 다 감당하셨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이 되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한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신다면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하늘로 우리를 데려 가실 것입니다.

이제 첫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정리합니다. 천천히 다시 정리한 후 질문을 던지십시오. “도예 씨,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 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가능한 한 어음숙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단호한 어조를 사용하라) 만약 지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이렇게 물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당장 죽는다면, 당신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가능한 한 진지한 자세를 유지하되 지나치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병자를 살리려는 시도도 해보기 전에 실패하는 우를 범할 지도 모릅니다.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함께 무릎꿇고 기도하며,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 성장을 위한 첫걸음

이것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했고,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구령한 후에는 반드시 그들이 기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복음을 듣고 준비가 되었다면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이 시간 구원해 주시도록 요청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아마 그 기도마저 못 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어나기 전에 당신이 당신을 위해 한 마디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말한다면 싫어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 말하겠다고 한다면 제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짧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구령할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거나 대상자를 현장에서 즉시 확실하게 구원받게 하지 못했다면, 기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주님께 말함으로써 그가 듣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간략하게 기도하십시오. 짧게 기도하십시오. 절대 장황한 기도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도한다면 상대는 싫어하거나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장황한 기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여호사밧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여, 당신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은 기도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여기 구원을 필요로 하는 혼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기도합니다. 도와 주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여기서 멈추고) “당신도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짧게 기도했고, 형식을 배제했다면 상대방도 기도에 부담을 갖지 않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늘 멈춥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저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오늘 구원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크리스천 남편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 아버지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이 바로 구원받는 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멈추고) ○○씨, 하나님께 당신을 용서해 주시고, 그분께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멈추고 상대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 진행 50% 정도에서 멈추고 상대방에게 기도하도록 이끌면 대부분 기도합니다. 받은 제가 기도를 하고 나머지 받은 상대가 기도함으로써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그가 당신의 기도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하도록 정중히 암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당신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기도하시죠?”와 같은 말보다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어떤 때는 처음 기도하는 사람의 달콤한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인 긴 기도는 아닐지라도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모모 씨, 그냥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입니다.”

기도를 잘 못 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공개

➔ 성장을 위한 첫걸음

적으로 자신이 믿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울며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당신의 노고에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되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되다”(시126:5-6).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거듭났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요1:12,13, 3:3,7; 고후5:17)

둘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 나라로 데려갈 때까지 성령에 의해 인쳐졌음을 보여 주십시오. (엡1:12,13, 4:30)

셋째,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새 신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십시오. (요일5:11-13, 요3:18, 3:36, 5:24)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다 되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들의 전화번호를 알아 두고 얼마 후에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의 손에 성경 공부 자료를 쥐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보여준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을 늘 기억할 것입니다.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 결론

아직 몇 가지 질문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 트웨인이 말했듯이 “성경 속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지금 공부한 것들을 철저히 이해했다면 최소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 이번 과를 복습하십시오.

☞ 기도하십시오.

☞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2과를 공부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배울 것이며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대해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약 1:5).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약속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도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요, 그분의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그러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후5:20).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화해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전도지를 항상 지니고 다니십시오. 자매들은 핸드백이나 호주머니 속에 전도지를 넣고 다니십시오. 채소 가게 점원에게 전도지를 줄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공중 전화 박스 위나 그 밖의 적당한 곳에 전도지를 올려 놓아도 됩니다.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누군가의 구원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은 구령하는 사람의 상급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피터 렉크만 박사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란 설교의 예를 인

1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용하면서 이번 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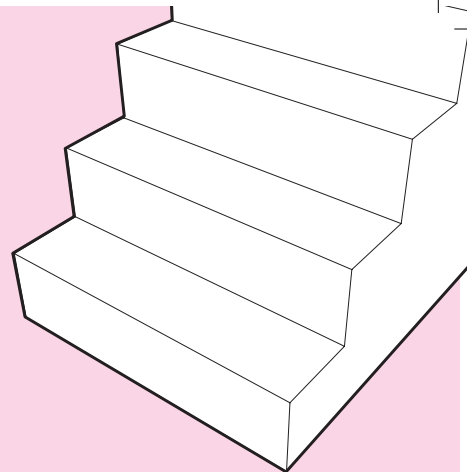
예전에 자유주의자며 현대주의자인 설교자가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커피를 내어 놓으며 남편의 초췌하고 험쵸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보,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간밤에 아주 끔찍한 꿈을 하나 꾸었소. 내가 죽어서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가는 꿈이었소. 거기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는데, 그의 손에는 큰 구멍 같은 게 보였소. 그 사람은 구름 위에 서서 나를 가리키며 ‘목사 양반, 당신 부인과 당신 자녀들의 혼은 어디에 있소?’ 라고 물었소. 그래서 나는 ‘혼이라고요, 무슨 혼 말씀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는 다시 나를 가리키며 ‘목사 양반, 당신의 우체부와 TV 수리공, 신문 배달하는 소년의 혼은 어디에 있소?’ 라고 묻기에 ‘저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혼이라뇨? 나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소. 그때 나는 구멍을 통해 구름 밑으로 수백만 마일 아래에 있는 불못 같은 것을 보았소. 그 불못 속에 당신과 아이들과 TV 수리공, 채소 가게 점원, 우체부, 신문 배달하는 소년을 보았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나를 저주하고 있었소.”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여보, 아마 당신이 어제 저녁에 너무 늦게 식사를 해서 속이 안 좋았나 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푼으로 커피를 저은 후 마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빈손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시오.



chapter

02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12가지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과의 앞부분에서는 구원받을 때 일어난 12가지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9가지의 기본적인 교리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2과.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12가지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놀랍고도 기이한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갓 거듭난 신자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날 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배웠다고 해서 자동차의 기계적 구조를 다 알고, 자동차 작동 원리를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운전하고 기어를 넣고 달리지만, 자동차가 어떤 역학 구조를 가지며 어떤 원리에서 달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받을 때 겪는 경험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운전하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와 기계 역학을 모두 배울 필요가 없듯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을 때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모든 영적 축복이 이미 구원과 함께 더불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운전을 더 잘 하기 위해서 기계 공학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의 구원을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갖은 방해로 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마귀의 다음 목표는 구원받

은 사람들을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엉뚱한 길을 제시해서 엉뚱한 길로 달리게 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주시하고, 올바른 길을 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워야 합니다.

우선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12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12가지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12가지 변화를 다 공부한 후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9가지 사실에 대해서 좀더 깊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12가지 중요한 변화

I. 죄를 용서 받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 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 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골1:13,14).

이 구절은 일생을 죄 가운데서 마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에게 특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 받았고, 주님은 절대 우리의 죄들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피로 대속 받은 것을 깨닫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로 인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상에 희생 제물로 드러짐으로써 우리는 구속 받았습니다.

2과.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12가지

II. 다시는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해하여 평안 가운데,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죄로부터 영원히 안식을 얻는 죽음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의 염려 속에서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요8:24).

구원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자기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좌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제거해 줄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그들은 자비를 얻지 못하며, 그들을 위해 탄원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필리핀의 바탄 수용소, 중세 암흑시대 기간 로마 카톨릭에 의해 모진 고문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고통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비교할 때 차라리 새밭의 피라 할 정도일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히10:31).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시니라.”(마13:49,50).

지옥은 상상을 불허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의 저주를 받은 사람

➔ 성장을 위한 첫걸음

들이 겪을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그런 고통을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구세주 없이 멸망할 것이며,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거절했는지 기억할 것이며, 자기들이 아는 친구와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고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얻은 사실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환왕좌 심판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던 그 강도와 같은 고백을 하며,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되반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눅23:40,41).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3:19).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린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에게겐 더 이상의 그런 저주가 없다는 사실을 안 것에 대해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죽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들림 받을 때,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이 넘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살전4:16).

2과.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12가지

이 구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의 휴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III.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요일3:14).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생명이란 기껏 죄의 쾌락, 세상 이익, 일시적인 명성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죽을 때 자신들이 소중히 했던 것들, 친구, 가족, 재산, 명예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설상가상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후에 그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흰왕좌 심판대 앞에 서서 죄 없으신 구세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사망(계21:18)이라 불리는 불못 속으로 집어 던져집니다. 그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빛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요1:4).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믿는 자는 또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요8:12).

➔ 성장을 위한 첫걸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

그리스도께서 빛이듯이 사탄은 어둠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후 4:3,4).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사탄)이 그들이 볼 수 없도록 마음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는 성경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119:105).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니이다.”(시편119:130).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요14:26).

예전에 찰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불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2과.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12가지

(Arise My soul, Arise)

오랫동안 나의 영이

죄와 어둠 밤에 단단히 결박되었었네.

눈을 뜨게 하는 한 줄기 빛에

그 어두운 감옥에서 불타는 빛에

나의 사슬이 깨어지고 나의 마음은 놓임을 얻었네

일어나 앞으로 가 주를 따르리!

나를 자유케 한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흑암과 죽음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대!

IV. 하늘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어떤 책도 필요가 없으시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책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 말씀은 문자적인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이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댁의 이름도 비유로 기록해 놓으셨겠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려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눅10:20).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에서 굳게 서라.

또한 참된 명에 동료인 네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

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빌4:1,3).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계20:15).

신자들은 불못에서 벌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V.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로 가는지 못 가는지 알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영생은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 책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순간이 거듭난 생명이 시작하는 날이며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므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10:28).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2과. 구원받은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12가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5:11-13).

VI. 상속을 받습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롬 8:17).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상속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행 26:18).

신자로서 우리 개개인이 받는 상속은 이스라엘이 받는 상속과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을 말씀함

니다.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출32:13).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엡1:11).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골1:12).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상속에 대해서 보증을 서셨습니다. 이를 성령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십니다.

“이 영계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엡1:14).

상속은 짧게 묘사되어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2과.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12가지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벧전1:3-5).

상속은 켜지 않는다. (부패와 파멸이 없다.)

상속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죄의 영역 밖에 있다)

상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과 변화의 영역 밖에 있다)

상속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우리가 받을 상속(새 성품과 새 몸과 하늘에 있는 새 집을 포함해서)은 마지막 날에 그것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

하늘의 처소(천국)은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맞이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라고 말씀합니다

VII. 복된 소망을 얻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

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딤후2:13).

이 세상에서 일은 뒤틀리고, 앞은 불투명해도 우리는 여전히 다가올 복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VIII.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믿는 순간 우리 위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는 제거되었습니다. 이는 1980년 워싱턴 주의 세인트 헬렌스 산의 화산 폭발과 같을 수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흘러내리는 통로에 있던 모든 것들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화산을 향해 걸어가며 “잠잠할지어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에 화산이 멈추고 용암이 식어 버렸으며 그 위에 서리까지 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황당한 이야기이며, 인간에겐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화산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직접 창조한 자신의 피조물보다 강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화산 폭발 현장에서보다 지옥에서 훨씬 더 강력할 것입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해 둔 불타는 지옥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어느 날 구세주가 우리를 발견하시고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2과. 구원받은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12가지

IX. 하나님과 화평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다.”(롬5:1).

우리는 더 이상 진노 아래에 있지 않으므로 지옥에 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화평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옛날에 진정한 평화의 상태를 가장 잘 그리는 화가에게 상금을 주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화가들은 잔잔한 호수, 아름답고 장엄한 산 등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상을 수상한 작품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작은 섬을 삼킬 듯한 큰 파도, 해변에 파선한 배 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심사 위원들은 어떻게 평화란 주제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화가가 설명했습니다. ‘절벽 중간쯤에 아주 나약한 새의 동지가 노호하는 바다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새 동지에는 엄마 새와 새끼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평화란 혼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X.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니다.

A.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그러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후 5:20).

대사란 국가를 대신하여 본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권위를 받은 사람임

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실하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를 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복음을 온 세상에 들고 나가서 전해 주어야 합니다.

B. 영적 은사들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XI. 영적 제사장들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 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1:6).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벧전2:5).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육신의 제사장이 없이(구약과는 달리),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이란 우리가 영적인 제물들을 주께 들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물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3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히 13:15,16).

2과.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12가지

위의 구절은 세 가지 제물이 나옵니다.

1. 찬양의 희생 제물
2. 기도의 희생 제물
3. 구제의 희생 제물(선을 행함, 함께 나눔)

XII. 구세주를 변호사로 갖게 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화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2:1,2).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심을 말해 줍니다. 헬라어로 변호인이이란 parakletos 즉 중재자(intercessor)란 뜻입니다. 로마의 사법 제도에는 반드시 재판장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피고를 돕도록 했습니다. 변호인의 주된 임무는 법정에서 피고를 대신해서 재판장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지금 아버지께 자신이 구속한 사람들을 위해 자비를 구하시며 용서를 구하십니다. 주님처럼 열렬하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의 간구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보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간구는 항상 의롭고 자비롭고 항상 수용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9).

➔ 성장을 위한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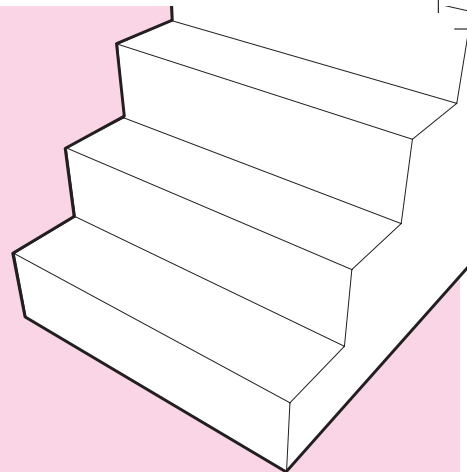
신자들이 죄를 범할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치유책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이미 처방전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딤후2:5).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시라면, 지상의 어떤 제사장이나 하늘의 성도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 단체에서는 자신의 죄를 중보해 달라고 또 다른 중보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보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강도요 절도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42:8)

2과. 구원받은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12가지



chapter 03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1) (거듭남, 영적 할례, 성령의 인침)

우리는 이제부터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기초 교리를 심도 있게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교리들은 가장 자주 접하는 용어들이기에 특별히 선별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교리들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와 싸울 때도 아주 유익합니다. 먼저 3가지 기초 교리를 배우고 4과에서 나머지 4가지 교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5과에서 마지막 2가지 교리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1) (거듭남, 영적 학제, 성령의 인침)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물레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엡4:14,15)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며 교리의 바람에 이리 저리 흔들려 밀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거나 그들에 의해 혼란을 당하는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 16:13)

1. 새로운 출생(거듭남)

첫 번째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새로운 출생’ (중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출생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 세상에 나오는 육체적 출생과 비교해서 말

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요3:3-7).

구원받을 때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중생(거듭남)이라고 합니다.

I. 영적 죽음

아담과 이브는 에덴의 동산에서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2장에서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창2:17).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금지된 실과를 먹는 순간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1) (거듭남, 영적 학제, 성령의 인침)

이 아담은 즉각적으로 죽기는커녕 930년이나 살다가 죽었습니다(창5:5).

하나님의 말씀에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롬5:12).

로마서 6장에서 죽음이란 말은 이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죽음’은 육체적인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불 호수에서의 두 번째 죽음도 의미합니다(계2:11, 20:6, 14:21:8).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롬6:23).

교회가 휴거될 때, 살아서 휴거될 성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가진 신자들만이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은 죽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이제는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2:1).

여기서 ‘살리다’란 단어는 영어로 ‘quicken’인데 ‘살아있게 만들다’(made alive)란 말입니다(벧전3:18).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다 동일하게 태어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엡2:2-3).

우리는 본래(자연적 출생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궁홀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엡2:4-7).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말씀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몸을 입은 채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거듭남, 영적 학제, 성령의 인침)

림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올라가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 또한 그분과 더불어 거기에 앉은 것입니다. (엡2:6)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의 영광의 풍요롭고 넘치는 은혜와 크신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한 번 오사 우리를 자신에게로 모으시며 그분의 모든 영광의 풍요함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II.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에 태어난다.

에덴의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은 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상태로 말입니다. 사람의 불완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 B. 사람은 모두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
- C. 사람은 모두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다윗은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시51:5).

옳은 사람이 영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욥25:4).

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III. 두 번째 출생(중생, 거듭남)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한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카톨릭과 캄벨주의자들을 비롯한 몇몇 이단들은 “물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물 침례”로 거듭난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물 침례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어디에도 ‘침례’란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6을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요3:3).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말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요3:4).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그리고 나서 6절에서 그 말씀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요3:6).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거듭남, 영적 학제, 성령의 인침)

4절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6절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할 이론이라면 “물로 태어나는 것”은 6절의 “육으로 나는 것”(자연적 출생)과 일치할 이론은 당연합니다. 문맥을 잘 따져 보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신들이 미리 정해 놓은 교리에 맞추어서 합리화하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 양수 속에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는 출생합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육체적 생명의 출생은 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창1:20).

- 육체적 탄생은 항상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5:16, 사48:1)
- 영적인 출생은 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출생은 하나님의 성령과만 상관이 있습니다.

IV.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계20:14,15).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21:8).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계시록의 구절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훗날 하나님의 환왕좌 심판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게 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에게는 변호인 없이 죄에 대해 심판과 저주만이 내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고 배척하였기 때문이며, 그들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못으로 던지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일컫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한 번 태어나지만(물에서) 두 번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면 육체적으로 죽게 되며 다가올 심판에서 두 번째 죽게 됩니다(영적인 죽음). 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 한 번만 죽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죽음도 맛보지 않고 바로 휴거되어 계속 살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죄를 해결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 영은 거듭나며(요3:6)
-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으며(마10:28,16:26)
- 몸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1) (거듭남, 영적 학제, 성령의 인침)

V. 몸, 혼, 영

사람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의 존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배웠습니다. 영은 성령님, 혼은 하나님 아버지,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살전5:23).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창2:7).

하나님은 땅의 흙을 취하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이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흙 속에 생명의 호흡(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영입니다)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살아 있는 혼(living soul)이 되었습니다.

워치만 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의 흙으로 지음 받은 것은 사람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그 콧구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란 말씀은 몸이 영에 의해 일으킴을 받을 때 자아를 의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완벽한 삼위일체이다. 창세기 2:7에 따르면 각기 두 개의 별개의 요

➔ 성장을 위한 첫걸음

소가 등장한다. 그것은 흙과 영으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을 흙으로 빚은 몸 안에 두셨을 때, 혼이 생성되었다. 영과 몸이 결합하여 혼이 만들어진 것이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지만 몸이 없는 영은 죽는 것이 아니다. 살아 있는 기관은 바로 혼이다.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는 말은 영과 몸의 결합으로 혼이 생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과 몸이 혼을 통해 완벽하게 조화되고 결합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오늘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겪는 것처럼 영과 몸이 혼을 두고 싸우는 그런 갈등이 없이 영, 혼, 몸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혼은 몸과 영의 중간 매개체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 (뎀바가 쓴 Earth's Earliest Ages를 참고할 것) 인간은 살아 있는 혼으로 지음 받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영과 몸이 만나서 개인의 자아를 이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 천사들은 살아있는 영들로 지음 받았듯이 사람은 살아 있는 혼으로 지음 받았다. 사람은 단지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을 지닌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켜 ‘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사람은 전적으로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혼이 그를 대표하고 그의 개성을 드러낸다. 혼은 사람의 의지를 드러내는 기관이요, 영과 혼이 거기서 만나는 장소이다. 만약 신자의 혼이 완벽하게 주님께 복종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영이 그 사람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할 것이다. 혼의 선택에 따라 어떤 때는 성령께 순종하다가 어떤 때는 성령을 소멸(억누름)할 것이다. (위치만 니의 영에 속한 사람 제1권 중에서 발췌함)

>>> 영, 혼 그리고 몸의 기능

육체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 세계와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거듭남, 영적 학제, 성령의 인침)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은 현재 우리의 상태와 존재를 의식하는 기관이며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통해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혼은 자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혼을 자기를 인식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입니다.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영과 몸이 혼에서 융합되기 때문에 혼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혼은 사람의 개성과 힘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혼은 영의 관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힘이 곧 혼의 힘이었습니다. 영은 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46-47절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혼이 주를 드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자세히 보면 시제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이 먼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기뻐하였고 그런 후에 혼과 교통해서 육체적 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렘버의 Earth's Earliest Age 중에서)

다시 말하지만 혼은 인성의 장소입니다. 의지, 지성, 감성이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영이 영적인 세계와 교통하고 몸이 물질 세계와 교통하듯이 혼은 그 중간에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영적인 세계나 물질 세계가 다스리도록 합니다. 가끔 혼은 스스로 자신의 지성을 통해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서 그 속에 살기도 합니다. 영이 사람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혼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혼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혼이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혼은 전인격의 축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혼이 기꺼이 자신의 의지를 겸손히 영에게 내어 줄 때 영이 전 인격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혼이 영에 대적하여 자신을 내어 주지 않을 때 영은 몸 안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 줍니다(신자의 경우).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힘을 지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그분을 거부하고 대신 사탄을 따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지가 혼에 속해 있습니다. 영이든 몸이든 아니면 혼 그 자체이든 간에 결정은 모두 혼의 영역입니다.

A. 영(The Spirit)

인간의 영은 정신(mind)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풀어보면 이 단어들이 상호 교환적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2:11).

성경에서 소문자로 된 spirit^(영)은 인간의 영을 나타냅니다. 반면 대문자로 된 Spirit^(영)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사람의 영은 사람의 일부분이며 그 사람의 속을 압니다. 정신(mind)이란 두뇌의 작용으로써 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1) (거듭남, 영적 학예, 성령의 인침)

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롬1:9).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7:25).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요4:24).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mind)과 마음(heart)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증거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정신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딤후3:5,6).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일컬어 중생(重生) 혹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중생의 씻음”(washing of regeneration)이라고 하며 이는 디도서 3장에서 의미하는 ‘재창조’입니다.

B. 혼

혼은 감정, 애정, 욕망, 소원, 자아가 자리잡고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서는 “마음”(heart)이라고 합니다(마26:38, 요12:27). 혼과 영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히4:12). 일상 생활에서 늘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감정은 정신(mind)과 정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으며 사실에 반해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혼은 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계6:9-11, 눅16:23-24). 이는 마치 글러브 안에 있는 손과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몸과 밀착되어 있으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은 몸과 분리됩니다. 이것은 영적 할례로 다음 과에서 언급하겠습니다.

C.몸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의 영은 거듭나게 되고 그의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지만 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며 오히려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롬7:17,18).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롬8:23,24).

혼은 “소망에 의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롬8:23,24).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한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그 날에 몸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주님은 우리의 천하고 죄 많은 몸을 그분 자신과 같이 영광스런 몸으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1) (거듭남, 영적 학제, 성령의 인침)

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몸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빌3:21).

VI. 사람이 거듭날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이 구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이 새로워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요1:12,13).

물론 우리가 스스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께로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요6:44).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길 때(롬10:17)—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엡2:8,9)—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를 행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배척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에 의해 거듭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초청장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 초청장을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 시더라.”(계22:17).

VII.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구원은 행위에 의해 얻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점검 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 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행위입니 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롬4:4,5).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단순히 믿 으십시오.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다 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신뢰할지라도 저희들은 갈보리에서 완성된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거듭남, 영적 할례, 성령의 인침)

주님의 사역을 신뢰할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일(행위)만이 굳게 설 것이니까요.

2-1. 영적 할례

다음으로 공부할 주제는 혼에 대한 영적 수술에 관한 교리입니다.

I. 하나님의 활동(수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수술(the operation of God)이라고 하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골2:10-13).

할례는 외과 수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영적 할례입니다. 이 할례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육체의 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벗겨집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죽어 있고 혼은 몸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반

면 영이 거듭난 사람의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혼을 분리하는 기적적인 수술이 바로 영적 할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육체적 할례는 신자들이 거듭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영적 할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율법 자구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인즉 할례는 율법 자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롬2:26-29).

이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할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갈3:8).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갈3:29).

이 구절들을 통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현재 아브라함의 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은 모두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거듭남, 영적 할례, 성령의 인침)

의 유대인들은 육체적 할례를 받았습니다(몸의 포피에 행한 외적 할례). 구약의 할례가 난 지 팔일 만에 행해진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성경에서 수(數)의 의미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8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수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사람은 모두 죽은 영과 몸에 달라붙은 혼을 지닌 채 태어납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 영적 할례가 행해지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살게 되며 혼은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영원히 분리됩니다.

영적 할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젤(Jell-O)을 먹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릇에 들어 있는 젤을 이리 저리 흔든 다음 칼이나 스푼을 가지고 그릇으로부터 갈라내면 그릇으로부터 젤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젤은 그릇 속에 있지만 그릇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릇을 뒤집으면 젤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릇과 붙어 있을 때는 엎어도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 다. 그때는 그릇과 젤이 하나였지만 이제는 분리되어 하나처럼 보이지만 둘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은 몸의 형태로 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몸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현재 구원받았고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휴거 때 있을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 현재의 몸을 대신할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죄의 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또한 그분께서 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2:1).

새로운 출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왜 우리는 “우리의 죄들”(in our sins)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혼이 죄들이 거하는 우리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들은 우리의 일부분이었으며, 우리 또한 죄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서 몸으로부터 혼을 분리하는 수술을 행하셨습니다.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롬6:18,22).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롬8:2).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여전히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딜레마에 대해 논했습니다. 언뜻 이 장이 어렵게 보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거듭남, 영적 학제, 성령의 인침)

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17,18,24,25)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입니다. 결국 바울은 죽을 때 옛 죄의 몸에서 벗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의 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육신은 율법을 섬겼지만 육신으로는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며 육신의 정욕을 통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 안에 거하며 행하는 죄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웃집 개에 물린 어떤 사람이 그 개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그에 맞서 개 주인은, 그 사람을 문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개라고 증언하며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지만 그 주인은 자신의 개를 풀어 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자신의 몸을 다스리고 마귀를 대적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피해야 합니다(고전10:13). 우리의 육체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모든 길에서 완전한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은 우리의 몸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들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의 혼은 그런 죄들로 인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혼이 자신들의 몸에 달라붙은 채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죄는 육체의 일부분이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죄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죄들이 우리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죄의 일부입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 집니다. 그러나 로마서 7:17,18과 24에 따르면 죄는 여전히 우리의 죽을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몸으로부터 혼을 갈라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육신으로 인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로마서 6:6-8).

여기서 “멸하다”란 단어는 완전히 없애다, 무(無)로 만들다란 의미가 아니라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육신은 죽었으며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 산 자요, 육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성이 있는 몸 가운데 살며, 사악한 세상에 거하다 보니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죄성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혼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정신과 삶에 정함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거듭남, 영적 항례, 성령의 인침)

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약1:18).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롬6:11,12).

여기서 “죽을 몸”(mortal body)에서 mortal은 ‘죽은’(dead)이란 뜻입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으로부터 혼을 잘라내어 몸을 죽이십니다(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나). 하나님에 대해서 몸은 죽었지만 이 세상을 살 때는 몸을 떠날 때까지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롬8:9,10).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 성령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한다.
- 성령은 우리의 몸을 죽이신다.
- 성령은 우리의 몸으로부터 혼을 분리시킨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시체를 끌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 있는 몸과 죽은 영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살아 있는 영과 죽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어떤 사람의 영

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주님의 약속에 따라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원히 내주(內住)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과 몸이란 단어가 자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은 혼으로 언급됩니다. 이는 구약 때에 그들의 혼이 몸에 여전히 하나로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리할 방법은 없습니다(창12:13, 46:26, 시59:3, 잠언13:25, 25:25). 이와 같은 예는 구약 성경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몸과 혼이 동의어로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영적 할례를 베푸셔서 혼과 몸을 확실히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 수술을 실행하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구약 때에 몸에 할례를 행할 때 쓰는 칼과 같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칼”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손에 지니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을 사용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엡6:17).

“그러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니라.”(롬10:17).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벧전1:23).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거듭남, 영적 학제, 성령의 인침)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있고 영원하며, 썩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약1:18,21)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히4:12-13)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르고 갈라 나누며 관절과 골수(우리의 몸)로부터 분리해 냅니다. 여기서 “그분”(He)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며 또한 압니다.

젤(Jell-O)의 예화를 기억하십시오. 그릇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입니다. 잘리기 전에는 혼은 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몸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습니다.” 몸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사람이 죽는다면 그의 몸은 무덤으로 가겠지만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는다면 성령은 혼을 몸으로부터 분리해 냅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의 혼은 주와 함께 있기 위해 하늘나라로 갑니다. 지금 신자들은 자기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육신의 죄 있는 몸 안에 갇혀 있습니다.(갈 2:20) 하지만 신자는 더 이

상 몸의 일부가 아니며 그 몸에 복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육신의 몸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2-2. 성령의 인침

I. 구속의 날까지 인침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엡1:13-14).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14)이란 우리의 몸이며 그 몸이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롬8:23). “그들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니”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4:30).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고후1:21,22).

II. 두 가지 성품

영적 할례가 일어날 때 새 피조물이 신자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자는 두 가지 성품을 갖게 됩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1) (거듭남, 영적 학제, 성령의 인침)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고후4:16).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 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엡4:20-24).

구원받기 전에는 “겉 사람”만 존재했습니다. 우리의 혼은 “옛 사람”, 즉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혼과 몸이 서로 붙어 있어 완전히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의 본성이 우리 몸의 일부이며,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형성된 새 사람은 새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옛 본성은 죄성으로 타락했으나(엡4:22), 새 성품은 완벽하고 죄가 없습니다. 에베소서4:24은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지음 받은 새 사람에 대해 언급합니다. 신자들이 갖게 되는 이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알지 못해 다음 구절에 대해서 엄청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요일3:6).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속에 새 사람이 거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죄란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6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9을 보면 한 술 더 뜹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 3:9).

요한일서 3:9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1:8-10은 요한일서 3:6,9과 완전히 모순되는 말씀인 걸까요?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1:8-10).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일서 3장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거듭남, 영적 학제, 성령의 인침)

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의 두 가지 성품에 관한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옛 성품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 안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몸이 행한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육신에 저서 육신대로 행하면 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 그런 죄들을 고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 성품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 받아 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은 옛 성품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옛 성품은 무덤에서 끝이 납니다. 반면 새 성품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대답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 3:9).

신자의 영은 거듭나며 완벽하고 죄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의 씨”라고 할 때 그분은 성령을 언급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씨를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벧전1:23).

우리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구절들은 죄 없는 완전성을 가르치는 몇몇 교단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물론 신자의 혼은 거듭난 후 더 이상 더럽혀질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육신의 죄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구속 받지 않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신자들이란 죄 있는 몸 안에서 죄 없이 완벽한 새 사람을 입고 사

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은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썩어 빠진 죄들을 갈보리에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 죄들을 모두 거기에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육체는 계속 죄를 짓기를 원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의를 행하려는 새 성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옛 본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죄 있는 육신으로 행한 것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오직 죽을 때만이 그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롬7:18-20).

신자의 두 가지 성품이 선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를 짓기를 원하지만(때때로 그 욕망을 따라 행하기도 합니다), 새 사람은 죄를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울 사도가 경험한 것과 같은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1) (거듭남, 영적 학제, 성령의 인침)

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7:21-25).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겪은 동일한 체험을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해 준 그 능력은 바울에게나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옛 본성을 죽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롬6:6,11,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롬12:1,2).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롬13:14).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세상에 동화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중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를 단절하는 중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자신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행하는 이는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가지는 두 가지 성품은 갈라디아서 2:20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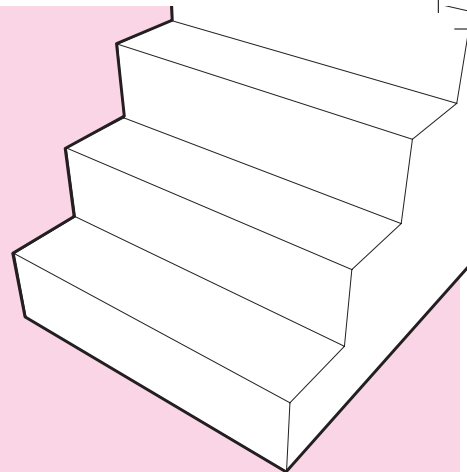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신자가 이중 인격의 소유자요, 한 사람이면서 두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몸으로부터 혼을 갈라내어 구속의 날까지 혼과 영을 인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은 성경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봉투 속에 편지를 넣고 우표를 붙인 후 그 위에 소인(消印)을 찍어서 보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봉투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편지는 개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밀봉된 통조림 캔과 같습니다. 통조림 캔은 뚜껑을 열 때까지 내용물이 안전합니다. 통조림통이 바닥에 떨어지고 더러운 것들 사이로 통과하고 뒹굴어도 안에 든 내용물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의 뚜껑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육신의 정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생에서 뿌린 것을 거두게 될 것이며,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혼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는 혼은 이

3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거듭남, 영적 학예, 성령의 인침)

미 인침 바 되었고 더럽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3가지 사실을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다음 과에서 6가지를 더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관련 구절을 쓰십시오.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진리를 알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만약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수 없다면 누구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깨우침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지식을 갖추도록 도우사 주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섬긴 대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chapter

04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우리는 지난 3과에서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12가지 변화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기초 교리 중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기초 교리 4가지를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 성령 침례(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 칭의 혹은 의롭게 됨(Justification)
- 전가(Imputation)
- 양자됨 혹은 입양(Adoption)

구원과 관련된 위대한 교리들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쓴 서신(로마서~디도서)에서 주로 나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고(롬11:13, 롬15:16), 또 교회의 신비가 그에게 계시되었기에(엡3:1-11) 바울 서신은 우리들이 취할 교리의 원천을 제 공해 줍니다. 이 성경 교재를 공부하는 동안 가능하다면 바울 서신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 서신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며, 우리가 아주 잘 알아야 할 책입니다.

3. 성령 침례

1. 성령 침례의 의미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요4:24).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출생을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으로부터 혼을 갈라내시고 우리의 영을 주 예수 그리

스도와 결합시켜 버립니다(고전6:17).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주십니다(고전12:13).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새 사람이 형성됩니다. 이미 2과에서 거듭남과 영적 할례에 대해서는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고 성령 침례에 대해 공부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교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이런 귀한 진리가 왜곡되어 비성경적 가르침이 오늘날 너무나 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롬6:3-5).

로마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는 성경적 침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침례는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분으로 바뀌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 침례를 모형(본보기)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가 물에 잠길 때, 자신이 호흡하고 살던 공기와 접촉이 단절됩니다. 이처럼 물 침례는 물을 무덤으로 하는 장사 지냄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은 물침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물론 물 침례는 좋은 모형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음을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일치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일부가 되게 해 줍니다. 이 교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몇몇 이단들은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뒤범벅해서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인 양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피터 렉크만 박사는 ‘일곱 침례’ 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침례교도들은 침례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침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침례교도라고 하면, 침례를 매우 강조하는 사람들이 틀림없겠군 생각하지만, 진정한 침례교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침례교도란 타이틀을 붙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침례교도들이 다음 세 가지 원칙 위에서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구원의 영원한 보장-나는 그것을 믿는다. 둘째, 지역 교회의 자치성-나는 그것을 믿는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나는 그것을 믿는다. 진정한 침례교인들은 물 침례는 단지 몸이 물속에 들어가 젖는다는 사실 외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안다. 이 점이 바로 다른 개신교도들과 특징적으로 구분되는 점이다. 여러분은 침례교란 원래 재침례파에서 기원하는 말임을 알 것이다. 재침례교도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 받았던 유아 침례^{세례}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에 성인이 되어 다시 침례를 행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들을 일컬어 ‘유아 세례 거부자’ 즉 유아 세례^{침례}가 어떤 효력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믿은 침례교도라고 말했다.”

II.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교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 침례입니다. 이 교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12:13).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거듭난 신자들에게 영적 은사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교회는 한 몸이란 사실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은사주의 교회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참된 교회, 즉 영적인 몸에 대해서 말하는 중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지체가 되는 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침례교이든 감리교이든 감독 교회가든 은사주의 교회가든) 그리스도의 몸인 진정한 교회 안으로 침례를, 성령에 의하여^(by), 받습니다.

우리는 몇몇 교단에서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하게 가르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낸 자라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몸 일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 교리를 가르쳤다고 해서 형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들이 불타 없어지고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고전3:15). 하지만, 그들이 거듭나기만 했다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 일부분인 것입니다.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고린도전서에서부터 에베소서까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정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총만이니라.”(엡1:22-23).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은 분명합니다(엡1:22,23, 골1:18).

III. 영적 결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인 ‘믿는 자 안에 창조된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하는 사역’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6:17).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의 결합은 결혼입니다. 이로써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엡5:30-33).

에베소서 5:30은 우리가 그의 몸의 일부라고 합니다. 어떻게 몸의 일부가 되었을까요? 성령께서는 각 성도에게 침례를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살과 뼈 일부분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고전12:13).

에베소서 5:31에서 바울은 육신적 결혼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영적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32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해서 말하노라 하며 이를 더욱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목적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영적 결혼의 모형입니다. 아담과 이브도 이 결혼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브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들은 한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속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육체적 몸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계속 그분의 살과 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고전6:17).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비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 버립니다. 우리는 신성의 일부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 율법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바에 대해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롬7:1-4).

로마서 7장은 우리의 영적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육체요, 여자는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혼과 육체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릭크만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율법은 당신의 몸을 잡고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 안에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혼을 갈라내어 여러분의 몸을 죽여 버리셨다(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로마서6:7-8,6:2을 보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혼을 갈라내고,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셨을 때, 여러분의 육 즉 몸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된 것이다! 혼자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 버린다. “우리는 그분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의 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것은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몸은 죽음에

처해지며, 여러분의 혼은 자기 뜻대로 주님과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음으로써만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그분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창 2:23).

1. 로마서 7:3에서 여자(우리의 혼)는 남편(몸)이 살아 있는 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없습니다.
2. 그녀의 남편이 죽을 때, 그녀는 다른 남자(그리스도)와 결혼할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확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한 영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두고 영적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많은 곳에서 성경의 의미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고후11:2).
-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계19:7, 8)
-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12:13).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롬6:3,5).
-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골2:12).
-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3:27,28).
-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롬8:9).
-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엡5:30).
-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딤후2:12,13).
-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요일4:17).
-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

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빌3:12).

-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고전1:7-9).
-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엡2:6)
-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 하되 오직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 왔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보내기를 바라되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빌1:21-24).

4.5. 칭의와 전가(Justification and Imputation)

I. 칭의와 전가의 의미

칭의란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 간주하여 죄와 형벌로부터 무죄를 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주된 변화를 다룬 것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신적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죄들을 지워 버리는 자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너는 밝히 드러냄으로 의롭게 되라.”(사43:25,26).

또한 칭의란 정죄의 반대말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서 이 두 단어의 명확한 대조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며”(신25:1)
-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한 자니라.”(잠17:15).

믿는 이들이 의롭게 되는 순간 그들의 모든 죄는 용서되고, 모든 형벌과 진노는 제거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인 요한이 한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3:18).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와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요3:36).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 내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가란 의미는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말합니다.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롬4:3-8).

바울 사도가 사용한 다음 세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count^(3,5)

reckon⁽⁴⁾

impute^(6,8)

이 세 단어는 모두 같은 단어에서 유래한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의 뜻은 ‘비록 본래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지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4:8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속사람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 속사람에게 죄를 지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의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롬4:22-25).

우리는 이 구절들 속에서 칭의와 전가라는 두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22,23절에는 전가, 24절과 25절에는 칭의란 말이 나옵니다.

II. 자기 의 vs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을 펴 봅시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10:1-4).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해도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속사람이 이 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

타나신 바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
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롬3:20)

율법은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죄를 보게 하지만 그 죄를 제거해 주지 못합니다. 사실 율법은 죄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본질과 사람의 무능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지적함과 동시에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로부터 사람을 정결케 하지는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16, 3:10, 로마서 3:28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 모세와 그리스도
- 행위와 믿음
- 율법과 약속
- 일하는 것과 믿는 것
- 값과 값없는 선물

성경은 이와 같은 분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존재했던 완벽한 관계는 깨졌습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 죄의 저주 아래 놓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저주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부여함으로써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다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죄요, 저주였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럽고, 썩고, 오염된 모든 죄들을 대신 청산하시고, 대신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의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거룩하고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으며, 죄와 허물과 더러운 가운데서 살던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주님의 삶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았지만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그냥 값없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롭고 숨겨진 사람을 완벽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요일3:5,6 요일4:17).

전가의 성경적 실례는 빌레몬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물을 훔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는 로마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빌레몬과 아주 절친한 사이인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을 전해 주었으며, 편지 한 장을 쥐여주고 다시 그를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만일 그가 네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빌레몬서17,18).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전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자신이 친히 다 갚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53:4-6).

이 구절에는 당신의 이름을 대신 집어넣을 수 있는 대명사가 무려 1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는 10번, 흠정역 성경에는 9번 사용됨).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복을 받고 싶으면 ‘우리’란 단어 대신에 각각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이라고 할 때 훨씬 더 마음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전가를 잘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예는 두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에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한 권의 책에는 주님의 모든 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책 표지를 바꾸십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행위들, 의가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의 표지에 여러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표지를 붙이시고, 여러분들의 죄의 허물이 기록되어 있는 책 표지에 주님의 이름을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책을 펼치시면 그 안에는 온통 의로운 일들과 행위, 성결한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벧전3:18).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2:24)

베드로전서 3:18에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의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으셨고, 그분의 몸으로 친히 그것들을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 고난 받으신 그분께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그만두고 무릎을 꿇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III. 하나님의 선물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값없는 선물이란 사실을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들을 더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선물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 보십시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롬5:15-18).

선물이란 단어는 거의 구절마다 나오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17절에 ‘의의 선물’이란 단어에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얻기에 너무 쉬운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6. 양자됨

1. 양자됨의 의미

- 양자됨(Adoption)이란 하나님께서 입양을 통해 상속을 비롯한 모든 법적 권리와 책임, 특권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며, 양자됨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됩니다.
- 중생(Regeneration)이란 우리 성품의 변화를 다룹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벧후1:4)라고 했습니다.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 의로워짐(Justification)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위치를 다룹니다. 우리는 현재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엡1:6).
- 양자됨(Adoption)은 우리 지위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아들로써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갈4:5-7).

중생은 우리의 영적 탄생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의로워짐과 양자됨은 법률적 용어입니다.

양자란 말은 로마 사회에 배경을 두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 사회에서는 양자로 삼는 일이 많이 있었으며 로마 사회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해리 A 아이언 싸이즈(Harry A. Ironsides) 박사님이 쓰신 ‘In the Heavens’란 책에 보면, 양자됨이란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자 입양의 문자적인 의미는 ‘아들로써 완전한 위치를 부여함’이란 말이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그 배경을 이해할 때 한결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인은 몇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 아내들 가운데는 노예도 있었다. 주인이 노예로부터 태어난 자식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몇 명을 선택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양자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하면 아들로써 합법적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며 모든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양자’란 말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쓰인 적은 결코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우리들의 지위와 특권을 언급할 때 한 번 사용했을 뿐입니다. 로마의 관습에 정통했던 바울 사

도는 이런 로마의 법률적 관점을 통해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가 로마시대의 주인과 양자의 관계와 동일함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신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요1:12,13).

중생이란 신자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합니다. 양자됨이란 새로운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가 즉각적으로 신분이 변화되어 상속자의 지위를 확보함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종노릇 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갈4:1-7).

II. 양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요4:22).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요1:11).

구원받을 때까지 이방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엡2:11,12)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바, 아버지”란 표현은 우리가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아바’란 히브리어로 ‘아버지’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그는 구약 성경의 족보를 거슬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호적에 등재됩니다. 영적으로 그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롬8:14-15).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갈3:29).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며,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들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문자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입니다(주의 요망).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대신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이며, 전혀 진리가 아닙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인요 할례는 율법 자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롬2:28,29). (29절의 할례 또한 영적 할례이지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III. 양자되는 때

어떤 의미에서 양자됨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에베소서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엡1:4,5)

하나님께서서는 미리 아심을 통해 창세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양자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비록 모든 신자들이 양자로 입양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양자로 입양된 것은 믿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말입니다.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3:1,2).

비록 우리가 왕의 아들의 신분이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 되었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만족하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요1:12).

현재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호적 서류가 다 올라갔고, 법적으로 완벽히 양자로 입양되었으며, 많은 것을 양자로서 누리지만 아버지가 돌아와서 집에 데려갈 때까지 우리는 고아처럼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때 우리의 양자됨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롬8:23)

우리는 이미 양자로 입양되었으며 앞에서도 언급된 것 같이 우리의 속 사람은 죄 없고,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합해져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 결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 주실 때, 우리

의 양자됨은 완벽해 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결합할 것이며, 우리의 양자됨은 모든 열거된 특권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요일3:2).

IV. 양자의 축복

양자가 누릴 축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의 사랑 - 요17:23
2. 아버지의 보살핌 - 요12:27-33
3. 아버지의 징계 - 히12:5-11
4. 아버지의 위로 - 사66:13, 고후1:4
5. 아버지의 상속 - 벧전1:3-5, 롬8:17

V. 양자의 특권

양자가 누릴 몇몇 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의 이름 - 요일3:1, 엡3:14,15
2. 가족과 동일함 - 롬 8:29, 요일3:2
3. 가족 사랑 - 요13:35
4. 가족과의 유대 - 롬8:15, 갈4:6
5. 가족의 일 - 요14:23,24, 요15:8

VI. 양자의 증거들

영국 리버풀 출신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J.C. 라일(1816-1900)은 '새 출생'(The New Birth)에서 양자로 입양된 우리의 아들 신분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다음은 그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롬8:14).

양자된 자들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길로 가지 않으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천연적인 본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지도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애착하는 모든 것들에서 성령은 진리라는 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느끼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자기 의’라고 하는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입양한 아들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보여 주십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적 평안을 갈구하도록 하시고 또한 부여해 주십니다.

- 양자들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 양자들은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 양자들은 기도를 통해 인도함을 받습니다.
- 양자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인도받습니다.

이 길들이 성령께서 양자들로 걷게 하는 좁은 길이요, 험착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 사람들은 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죄가 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또한, 거룩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독자들이여,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2.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양자된 아들의 감정을 갖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롬 8:15).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예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성상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들이 될 때 아담이 동산에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린 그런 죄의식,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물러날 때 지닌 그런 죄의식으로부터 놓이게 됩니다. 아들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 공의 앞에 죄인으로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깊은 골, 높은 장벽이 있던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혼의 속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갖는 느낌은 평안과 확신입니다. 아버지이시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속박의 영이 자유의 영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딤후1:7) 사랑의 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감정입니다.

저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감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옛 사람의 본성이 살아 나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거리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감정의 표출은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감정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양자됨 또 다른 확실한 증거입니다.

3.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증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롬8:16)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들어왔으며 죄는 사라지고 평안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닫힌 그런 내적 의식을 지니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느낄 수 없는 적극적이고 확실한 소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성령의 인(도장), 성령의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고후1:22; 엡1:13).

저는 이런 성령의 내적 증거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깊고 다양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하고, 생생하고 뚜렷하고 독특한 내적 증거를 의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도다’ 반면 어떤 이는 이런 의식을 전혀 갖지 못한 채 마귀의 속삭임과 육신의 욕구에 이끌려 삽니다. 어떤 아들은 구원받자마자 안전한 항해 길을 택해 하늘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반면 어떤 아들은 그들의 배를 타고 이리 저리 흔들거리느라 거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얻었던 믿음조차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아무리 안되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물어 보십시오. 내가 현재 철저히 세상으로 마음을 돌렸는가? 내가 한때 붙들었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마음을 터놓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답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떨쳐 버리기 싫은, 결별하기 싫은 무엇인가 한 가지는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의식 속에 성령의 증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들의 표시입니다.

4.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데 참여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롬 8:17)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겪어야 할 시련, 어려움,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 육신으로부터 오는 시련, 마귀에게서 오는 시련도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심한 말, 심한 행동, 심한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오해와 욕설과 조롱과 모욕과 이에 준하는 모든 나쁜 일들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때때로 세상의 이익에 눈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다가 사람들을 잃어버리거나 앓을지 선택의 순간은 자주 찾아옵니다. 이런 유혹은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찾아듭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가족 가운데서 찾아들기도 합니다. 가족이 원수요 마귀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겪는 경험입니다.

고난은 주의 가족들의 식단에 놓인 음식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니라.”(히12:6,8).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행 14:22).

집주인이 래티머 주교에게 자신은 어려움을 겪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실 리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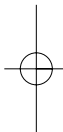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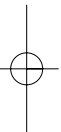
고통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해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가끔 징계를 통해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자가 되어 갑니다.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셨다면,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어 보지 않거나, 깊은 타락 가운데 있어 보지 않고 위대한 성인이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필립 멜라크손은 ‘걱정거리가 없으면 기도할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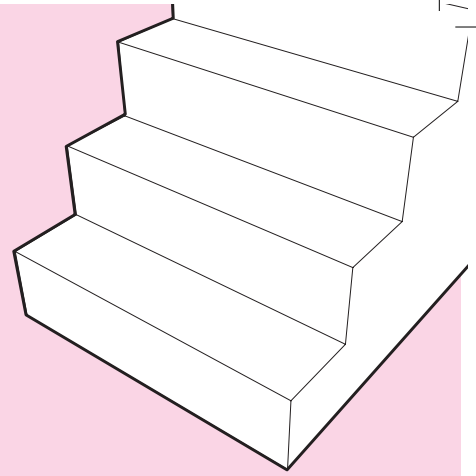
고난을 받은 구세주는 고난 받는 제자들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슬픔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신부가 슬픔을 전혀 알지 못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불평하지 맙시다. 이것은 아들됨의 징표입니다.

독자 여러분이여, 저는 여러분이 성경적 아들의 징표도 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하십시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고, 내적 증거도 없고, 삶 가운데 어떤 십자가도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저는 감히 확답을 내리지는 못하겠습니다.



4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chapter 05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이 과는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기본 교리 시리즈의 제 3편이며, 여기서는 구속, 화해, 성화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7. 구속(Redemption)

I. 구속의 의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롬3:24).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골 1:14).

구속의 의미는 “다시 사들이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권세로부터 구출하는 것, 몸값을 지불하고 사들이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새롭게 다시 얻는 행위입니다.

필그림 성경에서는 ‘구속’이란 단어를 출애굽기 6:6의 관주에서 다음과 같이 주석했습니다.

“구속이란 것은 다시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파라오의 노예였지만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자 그들을 다시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신 그 구속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자유를 얻기 위한 대가입니다.” 범선을 만든

소년이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시장에서 ‘판매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자신이 만든 것이며, 자신의 소유인데, 그것을 다시 소유하려면 되 사들여야 합니다. 구속이란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 그들을 잃어버렸고,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갈보리에서 자신의 아들의 귀한 피를 흘리게 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다시 그들을 사들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시 사들인 훌륭한 예로써 제가 들은 구속의 예화 중 가장 인상 깊은 예화입니다.

II. 구속의 값

성경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지불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값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싸므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딤후2:5,6).

이는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사탄이 사람을 포로로 잡은 것과 정반대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시107:2)

우리가 구속 받기 전에 매여 있던 곳은 원수의 손입니다. 속박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 몸값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신의 피만이 이 속량의 대가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비싼 것이어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결코 그 가치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2:2)

‘화해’(propitiation)란 말의 설명을 위해 필그림 성경의 로마서 3:25의 각주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 9:5에 따르면 긍휼의 자리라고 번역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레위기 16장으로 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는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렸습니다. 보좌는 바로 심판의 보좌입니다. 피는 누군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보좌는 긍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소(만나는 곳)가 되셨으므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장 사악한 죄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써 구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롬5:6).

불경건한 자를 위해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한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구원의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이며,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값 주고 사신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나?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9,20).

자신이 직접 만든 범선을 다시 산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범선은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자신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그것을 되 사야 하였습니다. 값을 주고 되사 버리면,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전혀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유괴범에게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고 사야 할 만큼 값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죄인 한 명을 사는데 아무리 많은 값을 주어도 살 수 없을 때, 왕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영원한 구속의 대가와 우리의 혼에 대한 속량 값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 비싼 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알게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벤전1:18,19).

III. 구속의 때

구속은 현재와 미래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A. 우리의 혼-현재적 구속

이는 우리가 믿는 순간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최종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현재 시제로 우리의 구속에 대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골 1:14).

우리는 또한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혼에 대한 영원한 구속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혼의 영원한 구속에 대해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 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히9:12).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갈 3:13).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갈4:5)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구속은 현재적 사실입니다.

B. 몸의 구속- 미래적 구속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롬8:23)

이는 성도들이 휴거될 때 몸의 구속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우리의 현재적 몸은 최종적으로 영광을 입은 새 몸이 아닙니다. 영원한 몸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해 하늘에 갈 수 없지만 장차 구속을 받아 죄 없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4:30).

우리는 늘 우리의 구속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악한 현 세상에 오셔서 모든 영광을 버리신 사실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저는 찬송가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찬송을 늘 기억합니다.

“구속 받음-얼마나 그것을 사랑하는지!

어린양의 피로 구속 받음

그것을 얼마나 선포하고 싶은지;

그분의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구속을 받고

나는 영원히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네!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그것을 선포하기를 얼마나 갈구하는가!

영원히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분의 무한하신 긍휼을 통해 구속 받은 사실을...

-Redeemed, By Fanny Crosby

우리 모두 구속해 주신 그분을 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어린양의 피로 구속 받은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 말하기를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8. 화해(Reconciliation)

1. 화해의 의미

“그러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 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히2:14-17)

화해란 평화 또는 조화의 상태로 회복하는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서로 소원한 두 당사자를 함께 불러모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L.E.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가르침대로 자기를 제쳐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한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돌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돌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엡2:12-18).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아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며,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다.”(롬3:11,12).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라고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으셔서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분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지 결코 인간이 내민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사람을 돌이키고자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소원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요6:44)

II. 화해의 수단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 화해의 수단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이라는 과에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배웠습니다. 화해란, 주님과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써 하늘로부터 사람에게로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아버지께로 나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자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딤후2:5)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롬5:10)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골1:20)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피 없이는 누구라도 영원한 저주만이 있을 뿐 화해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라 해도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짓지 않는 데 있어 전혀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의 피를 통해 구속을 이루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 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히9:12)

만약 구원받고 나서 죄를 안 지으며 사는 것이 구원의 유지 조건이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아주 잠깐밖에 구원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죽음에 처해 버렸습니다. 이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케 한 것은 시험 삼아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야 할 것입니다.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요10:27-30)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영원히”(Once for all) 자신을 드리셨습니다(히 10:10).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 영원한 것입니다.

☞ 우리가 멸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절대 없습니다.

찰스 웨슬레는 ‘깨어라 나의 혼아. 깨어라’란 찬송사에서 이런 가사를 달았습니다.

“일어나라, 나의 혼아. 일어나라.

죄의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희생의 피가 나 대신 흘러내리고

보좌 앞에 나는 확실히 서 있네-

내 이름이 그분의 손에 기록되어 있구나.

나의 하나님은 화해하셨으며

그분의 용서의 음성을 나는 들었다네.

나를 그분의 자녀로 소유하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리.
아,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부르며
확신을 하고 가까이 다가가리.

>>> 영원한 보장에 관하여

결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연관된 말씀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앞이나 뒷부분에 영원한 보장이란 말을 쓰고 관련 구절들을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련 구절들을 써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편 후에 처음 언급된 구절에 표시하십시오. 구절을 표시한 후 다음에 펼칠 구절을 적어 넣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빠르게 구절들을 펼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표시해야 할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1:6-8, 에베소서1:13,14, 4:30, 빌립보서1:6, 요한복음5:24, 요한복음6:37-39, 요한복음10:27-29, 로마서8:35-39, 요일5:12,13.

III. 화해의 직분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후5:18-20)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을 지니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했을 뿐만 아니라 화해의 직분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양팔이 되어 그분이 잃어버린 자를 향해 뻗치는 손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의의 병기로 내어 드려서 그분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롬6: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10:13-17)

화해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귀한 씨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씨 뿌리는 자로서 주어진 약속들을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126:6)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눅8:11b)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썩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썩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벧전1:23)

여러분은 구주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화해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합니까? 지금 당장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해하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9. 성화, 거룩함(Sanctification)

I. 거룩함의 의미

거룩함에 관련된 주제로 언급된 구절은 성경에서 최소한 1,066번이나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다(*sanctify*)의 어근은 ‘분리하다’ 또는 ‘떼어놓다’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거룩함이란 죄와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적 의미를 규정해 주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시4:3)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레11:44)

여기서 ‘defile’ (더럽히다)이란 의미는 ‘거룩하다’는 뜻과 정반대입니다. 거룩함이란 깨끗함, 더럽혀지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II. 거룩한 때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거룩함’이라는 책을 쓴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거룩함이란 행위이며,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칭의와 같습니다. 피가 우리를 씻기는 순간, 즉 우리가 하나님의 피에 대한 증거를 믿자마자, 우리는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는 의식적 이요, 제사장적인 의미로서 히브리서에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칭의는 우리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으로서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기명들을 씻고, 그들은 섬길 때 피를 적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명들은 후에 날마다 깨끗하게 씻으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마찬가지로 매일 깨끗하게 씻음 받도록 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피를 통한 거룩함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룩해지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성별은 세 개의 다른 면들을 보여 줍니다.

1.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된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2. 주 안에서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3.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이 구속 받고 영원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A. 우리의 과거- 순간적이고도 즉각적인 거룩함

우리가 믿는 순간 일어남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고전 6:11)

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며,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오직 이 사람들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히 10:10-12)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즉각적인 성별은 주님의 몸을 드리심으로써 신자들이 죄로부터 떨어져 하나님께 드리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며, 단번에 우리의 죄를 인해 주님의 몸을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모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는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성별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단 한 번에 영원히 성별 된 것입니다.

1. 우리는 하나님께 성별 되었다.

지상에서 주님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영적 수술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셨습니다(골2:11-12). 우리는 이미 이 영적 할례가 우리의 혼을 몸으로부터 분리해 내는 수술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죄 없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며,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거룩함은 하늘에 있는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계13:8).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으며, 주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님에 의해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우리는 시내 산의 경계를 통해 거룩함의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에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셨시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매”(출19:23)

시내산에서 경계는 사람과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 다. 이제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제사장입니다(히9:12, 벰전 2:5,9).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대히 나아갑니 다(히4:16).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하늘의 시온 산의 경계 내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 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시48: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혼합된 무리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졌 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는 타국인이요, 낯선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 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엡2:12)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엡2:19)

더욱이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권자들로서 우리는 지금 현재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께 성별 되었습니다.

“그들은 속죄하는 데 쓰는 그것들을 먹어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룩히 구별하되 그것들이 거룩하므로 타국인은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라.”(출29:33)

본문을 통해 타국인들은 거룩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기억해 봅시다. 그 축복스러운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주의 피를 예표하는 포도즙을 들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여전히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의 피로 씻음 받아 거룩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성별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키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출31:13)

주의 만찬은 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분리되었다는 표식이며, 간증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찬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어 봅시다.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고전11:25,26)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성별 된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분리이며, 주의 만찬이란 의식을 통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이상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었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고전6:17).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골3:3)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담대히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전15:55)

2.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면전에 죄가 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문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골3:3). 하지만 모든 신자가 구원받는 순간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의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

가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죽어야 합니까?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자신의 저서 ‘거룩의 길’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끔찍한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불행이나 병, 나쁜 것이란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심지어 소돔과 시네 산에서 보여주신 것도 단지 막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의 저주와 심판의 선고를 보여줍니다. 구주와 전능하신 성령의 정당한 간구만이 필요합니다. 혼을 파괴하고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바로 죄입니다. 사람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며, 6천 년 동안 지상에 넘쳤으며,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제단 위에서 흐르는 피와 연기와 불이 바로 죄의 끔찍함을 드러내 줍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며, 둘째 사망이며, 영원한 흑암입니다.

거룩함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이해해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무덤을 보며, 겹세마네와 골고다의 의미를 압니다.

나는 현재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죄를 보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험을 감행하고 싶다면 다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을 불허할 것입니다. 모든 오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죄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서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보는 자에게 화가 있으며, 그분이 품은 마음과 달리 죄를 경시하는 사람들, 성경을 부정확하고 오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부분적으로 영감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하나님의 진리를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지게 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믿고 버리고 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 혹은 확고 불변하게 계시된 진리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당히 믿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으며, 모든 면에서 우리를 불러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혐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잉태하였으며 불법 가운데 태어났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병을 앓아서 약을 필요로 하거나 연민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었으며, 율법에 따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변명해 주시지도 않고 들추어내어 과장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보여 주시며, 우리를 부르시기 전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더러운 것과 불의, 모든 타락과 모든 굵은 길, 모든 불순종, 모든 육과 영의 더러움으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심각하게 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J.C 라일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기독교인의 거룩함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라고 하는 심각하고도 광범위한 주제를 배워야 합니다.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야 합니다. 이 점을 실수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거룩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유래합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기독교 구원의 뿌리에 해당하는 매우 평범한 진리입니다. 칭의, 회심, 성화와 같은 교리들은 죄가 없다면 마음 가운데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용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물질은 바로 빛입니다. 영적 창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빛을 비추십니다. 이로써 영적 생명이 시작됩니다(고후4:6). 죄에 대해 흐릿하고 불분명한 관점은 오늘날 성행하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들의 근원이 됩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혼이 치유불능의 깊은 병에 걸려 그 본성이 위협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거짓되고 불완전한 치료약을 가지고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충분한 가르침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죄에 대한 충분하고도 분명한 증거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그분의 대속과 피의 진리에 대해 정확히 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죄를 속할 수 없다는, 죄의 끔찍한 실상에 대한 인식만이 충분한 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셨으며, 골고다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버리시나이까?'

B. 우리의 현재적이고 진행적인 거룩함은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우리는 흔히 거룩함은 하나님에 의해서(by)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또한 '하나님께(unto)' 라고 표현됩니다. 거룩함의 목적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 주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이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우리의 육신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음을(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로마6:11)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이미 도달했다 함도 아니요-빌3:12).

1.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딤후2:21)

L.E 맥스웰은 말했습니다.

“AJ 고든 박사의 지혜로운 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자주 양극단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불완전한 죄의 상태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더 큰 이단이라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의 말씀을 늘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벧전1:15,16)

J.C 라일이 죄에 대해 논한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앓는 병에 대한 극단적인 무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성도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춘 채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나는 너의 원수다. 나는 너를 영원히 지옥에서 파멸시킬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죄는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하면서 접근했듯이, 요압이 아침

➔ 성장을 위한 첫걸음

하는 말로 접근했듯이 금지된 나무의 실과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였듯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실과는 결국 이브를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왕궁의 성벽에서 할 일 없이 걷고 있는 다윗의 게으름은 다윗으로 죄를 짓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단순히 훑쳐보는 한 가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음과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해야 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악한 자에게 좋은 이름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사악한 자의 본성과 인격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히3:13)

어떤 신앙의 고백은 시류에 민감하고 현 시대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좁고 깊게 흐르던 신앙의 물길이 넓고 얇게 흐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얻는 대신 내적인 것들을 잃어 버렸습니다. 지난 25년간 교회의 외적인 팽창과 부의 증가는 세속화로 이어졌으며 사회적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일단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을 맛본 교회는 위로와 필요와 자기 부인과 같은 실제적인 신앙의 핵심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통이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의 경건함과 신앙심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겸손과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옛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겸손하게 앉아서 모든 문제를 그대로 직시하며 주님께서 죄라고 부르신 것들을 냉정하게 찾아보고 주님께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너무나 부주의하게, 편안하게, 반은 세상에 몸담은 채 살려 했다는 점을 깊이 깨닫고 동시에 내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흥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죄가 너무나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이란 사실을 자각하고 나서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죄는 훨씬 더 가까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주님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서 더욱 많은 것을 마실 수 있게 되고 철저히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독소가 우리 몸 가운데 퍼진 것을 알 때 유일한 치료책은 독소가 퍼진 부분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란 책에서 다음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신자에게 이루어지는 성화’란 주제에 관한 고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가나안 땅에 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땅은 열매가 풍성한 땅인 동시에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축복의 땅은 이미 그들의 유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수가 그의 대적들의 목을 발로 밟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의 지체들을 즉 몸의 행실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한 번에 모두 점령하라고 하

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하므로 내가 일 년 내에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 할 때까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출23:29,30)

우리는 평생 새로운 영토를 계속해서 점령해 가야만 합니다. 우선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 너머에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보다 더 강력한 일곱 민족과 대면하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분의 힘을 힘입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 생명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롬8:13)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소유를 차지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광야에서 뼈를 깎는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진대 두 마음을 품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런 땅도 점령하지 못하면서 젖과 꿀과 포도 열매를 맛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구속의 주를 위해 아무런 포로도 잡지 못하면서 고국에서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것은 무 의미합니다.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두 본성 사이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로부터 공물을 받으라든가 그들을 묶어 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물이 아닌 죽음에 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열매를 뿌리째 뽑아 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싸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은 물론 당신 자신의 경험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두 가지 본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나 뿌리째 옛 사람을 뽑아버리고서 더 이상의 싸움은 없다는 주장은 성경적인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옛 사람을 벗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옛 사람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적용하십시오. 거룩하지 못한 이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십자가로 하여금 당신을 부끄럽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여 그대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 십자가는 우리가 성도처럼 살도록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십시오. 이제 당장 올라가 유업을 차지하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냅시다.

우리는 이번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인도에서 병든 채 주님의 군사로 살았던 에미 카르미카엘(Amy Carmichael) 자매의 고백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녀는 실로 고통의 길을 배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성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 삶의 즐거운 일들 대신 고통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뭇거림과 도피행각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장미 왕관을 쓰고자 합니까? 그분의 손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는 보석이 끼워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니셨는데 우리는 고급 양말과 신발을 신고 다녀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고생을 해 보았습니까? 피눈물과 애통한 상황과 조롱을 당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느슨한 삶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것만을 좋아하는지요. 주님의 삶과 비교해 볼 때 근처에도 못가는 그런 삶으로부터도 도망치려는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갈보리로, 그리고 겿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그곳에 가 본 적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7장에서 혼란과 방황을 거듭하며 한동안을 보낸 후에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회심 이후 내적인 삶에서 겪게 된 쓰라린 체험을 체험에 고뇌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오 너는 비참한 사람이로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 내랴?” 그 후에 그는 로마서 6:11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는 지긋지긋한 자아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이 자신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여기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죽음의 길은 일단 받아들여진 후에는 계속적인 배움이 뒤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생명은 매 순간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문제를 해결했지만 우리에게 매일 지고 갈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길은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눅9:23)

초대 교회의 제자들은 당시 수많은 범죄자들과 살인자들이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걸어가는 행렬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그것만은 빼고 어떤 것이든 괜찮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일이 당신에게 닥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당신의 눈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은 고통과 수치와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당신의 자아를 더 깊은 죽음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황을 수용하여 자아를 처리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마땅히 해야 할 바로 그 일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옛 자아를 처리하는 도구로서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당신은 자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

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당신이 수용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커다란 불행, 질병, 재난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십자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들추어내어 우리의 자아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자원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골고다가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죽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짚어잡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4:10)

십자가에 못박힌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십자가의 거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바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빌2:5)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다가 무명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종의 형체를 취하였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린양을 따르는 자입니까? 그 분의 길은 자신을 무명하게 하는 길이요,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길입니다.

스승의 법은 제자들의 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나의 주는 이 땅에서 참아 내셨다.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그렇다면 내가 평안히 앉아서
자신을 즐겁게 하며 쉬어야 할까?
그분의 나약한 제자로서
나는 왜 그분처럼 살고 죽지 않는 것일까?
오 선생님, 나는 당신을 그렇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멍에와 짐을 내가 지오니,
당신의 발걸음을 따르고자 하나이다.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죽음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아래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저주하소서.
-찰스 웨슬리

2.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점진적인 성화(聖化)를 이루어 나가는 데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원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a.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 b. 죄는 즉각적으로 자백하여 주님과 친교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
(요일1:6-10)
- c.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할 것이다(약4:7)
- d.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라.
- e. 자기 희생을 실천하라. 구령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적극적이 되라.

아래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성결을 유지하고 점점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요한복음17:17)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요한복음15:3)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에베소서5:25-26)

성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랄 만큼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며, 죄를 깨닫게 해주고 의의 길을 보여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장이 조타수에게 “배를 돌려 바위를 피해 가라.” 하고 외쳐도 조타수가 주의해서 듣고 키를 돌리지 않으면 배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해 가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 갔듯이 말입니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란 유명한 작가는 자신의 이름을 강배에서 따왔습니다. Mark Twain이란 말의 의미는 배가 충분히 떠서 다닐 수 있는 물의 깊이(6 fathom=6×1.83m)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로프와 연추를 가지고 물속으로 넣어서 물의 깊이를 재고 배의 밑바닥이 땅에 닿지 않게 운행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를 재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어서 향해하기에 안전한지 재어 보고 안전한 수로(하나님의 뜻)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C. 우리의 최종적이고 미래적인 성화는 재림 때에 있을 것이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살전5:23)

이 말씀은 미래 시제로 된 미래의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히 그분과 같이 죄 없는 완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같이 완전한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벧 3:20-21, 요일3:1, 2, 롬8:29).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현재에도 죄가 없지만 겉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들림 받을 때까지 겉사람의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구원받았을 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과거 시제)

☞ 우리는 날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현재 시제)

☞ 앞으로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미래 시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내셨고(과거), 건져 내시며(현재), 건져 내실 것입니다(미래).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을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성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점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딤후2:15).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약1:22-25).

1. 거룩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거룩에 대한 3가지 측면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주요한 두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a)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시제의 거룩함, 즉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어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b) 이 지상에 살면서 완전한 거룩함과 성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은 이 몸도 죄 없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물론 우리의 속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겉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몸을 주셔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무죄의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생에서 완전한 거룩함과 성화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이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롬7:17,18).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1:7-10)

이 세상에서 죄의 몸을 입고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산다고 주장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어떤 진리도 거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요일3:6-9)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우리의 속사람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휴거 때에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완전한 성화를 받을 때까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딤후1:15)

바울은 여기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의 우두머리였느니라(과거)가 아니라 우두머리니라(현재 시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으며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여전히 모든 죄인 가운데 가장 악한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매일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소원이 충만하다 해도 우리의

고백은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로다’ 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세상에는 오직 죄인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죄인’ 과 ‘잃어버린 죄인’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18,24)

바울은 죄를 짓기 원하는 육신의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서 죄를 없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절대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에서 육신을 입은 채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3가지 면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시제에 해당하는 거룩의 단면을 현재 시제로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를 거부한 결과 생겨난 것입니다. 영적 할례에 대한 교리를 오해하였으며 두 가지 성품에 대한 교리를 오해에서 이런 이단이 비롯됩니다. 초신자들은 이런 교리들을 철저히 이해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추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앞에서 인용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물론이고 저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동일한 일을 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J.C 라일의 “그리스도인의 성화”란 고전에서 장문을 발췌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12:14)

이 책을 손에 쥐고서 이 주제를 펼쳤다면 매우 중요한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주제는 실제적인 거룩이며, 이 주제는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가?

1. 첫째, 실제적인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부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대언했지만 전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결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과업(사도직)을 수행했지만 결코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으니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거룩하지 못했던 것은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는 종교 문제와 관련해 열정이 있었으나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고, 젊은 통치자가 가졌던 외적 행위와 존경심이 있었으나 전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유대인들은 설교자들의 말을 즐겨들었으나 회심하여 거룩해지지 않았으며, 요압과 게하시와 데마는 경건한 사람들을 동료로 삼고 있었지만 거룩한 삶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만 가지고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한가지를 지냈다고 해도 절대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진정한 거룩은 무엇입니까?

(a) 거룩이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마음에 합하도록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여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잣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일치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b) 거룩한 사람은 모든 알려진 죄들을 피하려 애를 쓰는 사람이며, 모든 알려진 계명들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완전히 기운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세상을 불쾌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훨씬 더 무서워하며, 그분의 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롬7:22)이며, 다윗처럼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訓戒)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는” 것(시119:128)입니다.

(c) 거룩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애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참고 용서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이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명성을 얻지 않으시고 겸손하신 것 같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증거하시는 데 늘 신실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온유와 인내심을 가지셨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고 죄인들을 향해 연민과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셨으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지 않고 늘 선을 행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셨고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셨으며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 걸림이 될 때는 책망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려 애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주님의 길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 두고 행동합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요일2:6)

베드로의 말 또한 금과옥조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벧전2:21)

구원이나 삶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생각하고 배우는 자들은 행복하다! 구원받은 지 오래 될수록 더 죄의 삶에서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스스로 “만약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d) 거룩한 사람은 온유함, 오래 참음, 친절, 인내, 부드러운 성품, 혀를 제어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매사에 인내하고 더 오래 참고, 더 많은 것을 보아 넘기며 의에 굳게 서서 혀를 조심할 것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보인 다윗의 행동은 좋은 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보인 모세의 행동도 보십시오 (삼하16:10, 민12:3).

(e) 거룩한 사람은 절제와 자기 부인을 좇아 삽니다.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고 매 순간 자기에게로 향하는 모든 것들을 처리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주의해서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눅21:34)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 9:27)

(f) 거룩한 사람은 사랑과 형제애를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율을 준행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타인을 대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신체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 성품과 감정과 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롬13:8) 라고 말한 것을 실천합니다. 거짓과 욕설과 헐뜯는 것, 사기, 불명예, 부정직, 불공정한 거래 등 매우 사소한 것 하나 하나에까지 불의한 것들을 증오합니다. 성소의 세겔과 규빗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큼니다. 외적인 행실로 자신이 믿는 신앙을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인정받게 처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산상 수훈의 위대한 말씀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말씀들이 모두 저주로 변할 것입니다.

(g)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영을 좇아 행합니다. 하루도 게으르게 보내지 않으며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이 사는 동안 자신의 세대에 무언가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영적인 부족과 불행을 해소하고자 힘씁니다. 도르카의 경우 “모든 선한 일과 자선에 넘치는 자매”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기꺼이 쓰고 또 나 자신까지도 쓰리니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 받으리라”(행9:36,고후12:15).

(h) 거룩한 사람은 순결한 영을 좇을 것입니다. 영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두려워하며 그런 것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을 피하고자 노력합니다. 자신의 가슴이 불붙기 쉬운 발화 물질과 같음을 알고, 불을 일

으킬 매개체가 있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다윗이 타락할 수 있다면 누가 감히 나는 괜찮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i)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말하는 두려움은 노예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노예들은 발각되지 않는다면 게으름을 피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두려움은 아이들이 갖는 두려움 즉 늘 아버지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점에서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에 통치자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느5:15)

(j) 거룩한 사람은 겸손을 좇아 행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악을 보려고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이해합니다. “티끌과 재와 같은 내가...” 그는 야곱의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 주신 모든 공훈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 오니...” 욥의 고백이 바로 그의 고백이 됩니다. “보소서, 나는 비참한 자이오니...” 바울 사도가 말한 “나는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

(k) 거룩한 사람은 삶의 모든 의무와 관계성에 있어서 신실함을 추구함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니다. 자기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혼에 관심도 갖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동기와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은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롬12:11b). 거룩한 사람은 모든 일을 목표를 가지고 행하며 선을 행하다가 자신에게 나쁜 일이 닥친다 해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단6:5) 삶을 살 것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훌륭한 아버지, 착한 자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좋은 상사, 좋은 부하, 훌륭한 이웃, 선한 친구, 충직한 일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모두 흠 잡힐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은 이런 종류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마5:47)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 (1) 마지막으로 영적인 마음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다가올 세상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늘에 보물이 있는 것처럼 목표를 하늘에 두고 살며, 이 세상을 단지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살아갑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와 형제 자매들과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교제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가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사람들
은 장소이든 무엇이든 영적인 가치와 비례해서 가치가 부여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합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뉘이오
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시119:57)

저는 결코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망의 몸
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겪는 어려
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을 행할 때도 악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옛 사람이 매 순간 따라 다니며 다시 죄와 불법으로 끌어가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로7:21).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죄를 미워하고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함이란 예루살렘의 성
벽을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
축될 것이며”(단9:25b).

Ⅲ. 마지막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 마디 충고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거룩하고자 하십니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
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철저히 자각
할 때까지 성장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의 원천이시며 시작이
시며 믿음으로 그분께 결합한 모든 이들을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또한 원합니다. 슬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폰 일은 그들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거룩해지고자 애쓴다는 점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아도, 유출병에 걸린 여자가 나음을 입지 못하고 점점 더 악화하였던 것처럼^(막5:26) 여전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헛되이 달리고, 헛되이 노력하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는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래성을 쌓고 있기에 쌓는 대로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구멍이 난 그릇에 물을 붓고서 물을 담아 두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구멍 난 그릇에는 절대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반석도 거룩함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15:5b) 트레일(Trail)의 말은 심한 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닌 지혜는 저주받을 잔피에 불과하며,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의는 죄악이요 저주일 뿐이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거룩함은 오물이며, 더러운 누더기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닌 구속은 속박과 노예일 뿐이다.”

거룩함에 이르고 싶습니까?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거룩함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연관시키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구하십시오. 아래 찬송가의 가사를 한 번 보십시오.

“내 손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네.
내가 붙들 것은 당신이 매달린 십자가뿐,
벌거벗은 나에게 주께서 옷 입혀 주시기를
무기력한 나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라네.”

주님께로 달려가기 전에 거룩함을 쌓을 수 있는 벽돌 한 장, 돌맹이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거룩함은 주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거룩함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밀어 넣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도우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13;행5:31). 거룩함은 혈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의지로 되지도 않습니다. 침례를 준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은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거룩함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에서 나옵니다. 거룩함은 참 포도나무의 살아 있는 가지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주님, 죄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죄의 권능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게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15:4,5).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며 신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매일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주는 의사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이며 날마다 마셔야 할 음료이시며 늘 의지해야 할 무기이시고, 이 세상

5과.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III) (구속, 화해, 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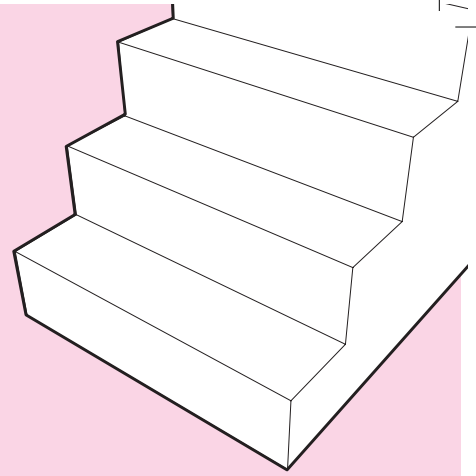
의 광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계속해서 자라나며 성장을 거듭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였을까요? 바울은 주님을 모든 것 안에 모든 것(all in all)으로 삼았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히12:2, 빌4:13, 갈2:20을 보시오).

다음 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잘 들어 보십시오. 이 질문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 드려 온 거룩함에 대해서 당신은 아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지속적으로 교회 출석을 했는지, 침례를 받았는지, 주의 만찬에 참여했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는지를 묻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물어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거룩하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거룩함을 입증했느냐고 묻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의 전기를 읽어 보았느냐고 묻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 경건한 신앙 서적을 두고 언젠가 거룩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아닙니까?



chapter 06

그리스도인의 상속

이 과에서는 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속에 대한 다른 면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왕들 중의 왕이며, 하나님의 상속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 64:4을 언급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내용에 따르면 바울은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와 영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받게 될 하늘의 상속을 깊이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상해도 닿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에 받게 될 상속은, 구원받은 후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성취한 일에 따라 받게 될 보상에 근거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한 수고의 대가로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롬4:4,5)

로마서 4:4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일한 자에게 빚진 것이 됩니다. 이는 매우 간단하지만, 반드시 파악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 보상으로 얻게 될 하늘의 상속과, 값없이 주어지는 영생이란 선물은 서로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미 제 1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배웠으며,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사실도 공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절은 에베소서 2장일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구원이 값없는 선물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는 요한일서 5 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5:12,13)

구원이 값없는 선물이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는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주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로부터 얻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으로만 모든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함으로 얻게 될 보상과 혼이 구원받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인의 상속

이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교리적 오류를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다룰 것이지만 지금은 단지 성경에서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라 명백히 다른 것이란 사실에 대해서만 공부하겠습니다.)

이 두 용어를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 하늘의 왕국(The Kingdom of Heaven)

이것은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왕국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문자적으로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 땅 위에서 다스리실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1000년간 지속할 것입니다. (참조 : 단2:44, 7:27, 눅1:30-33, 계11:15, 20:1-6)

• 하나님의 왕국(The Kingdom of God)

지금 공부하는 이 과에서는 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는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도덕적인 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이 왕국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그렇게 됩니다. 이 영적인 왕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에는 물질적인 왕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는 이를 두고 밖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롬14:17)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눅17:21)

이는 영적인 왕국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왕국이 하나님의 의와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 줍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이 영적인 출생을 통해 영적인 왕국으로 들어갈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줍니다.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화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영적인 출생을 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습니다(고전12:13).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앉히십니다(엡2:6).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인 왕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속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현재는 영적인 지각으로써 그 나라에 들어감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요3:5).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돌아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적이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 될 것입니다.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눅19:11)

비록 현재 그것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말씀에 있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비교해서 말씀의 차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요3:3)

요한복음 3:3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말했으나 3:5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에 주님이 오실 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왕국으로서 땅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현재적 소유로서 지금 당장 소유하고 있는 것인 반면(요3:18,36,5:24, 요일 5:12,13), 상속은 영광스런 새 몸을 입을 때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고전15:50)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혈과 육의 몸 안에 갇혀 있지만, 주님께서 문자적으로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우실 때 우리는 구주와 같은 피 없는 영광스런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50과 누가복음 24:39을 비교해 보십시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눅24:39)

고린도전서 15:30은 분명히 “혈과 육(살과 피)”은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39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살과 뼈들’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로써 살과 뼈는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 없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육(살)은 들어갑니다. 뼈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피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광스런 새 몸을 입기 전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로써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늘의 상속은 무엇인가?

이 상속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믿는 신자에겐 상속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면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며 불변적인 것입니다. 반면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행실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가변적인 것입니다.

I. 이미 확정된 것

이미 확정된 것은 하늘에 준비되어 있으며,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엡1:11)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벧전1:3-5)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상속은 확실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영광스런 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

- 롬 8:29, 빌3:20-21, 요일 3:1-3

- 하늘에 있는 집(처소)

- 요14:1-3과 계시록 21장 전체는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살게 될 새 도시입니다.

II. 다양한 상속

지금 말하고자 하는 상속은 미래에 얻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받게 될 상속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날이 되어야 우리가 받게 될 다양한 상속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영광스런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씨가 이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롬4:13). 신자로서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갈3:29)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될 때 영적인 유대인(롬2:28,29)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게 될 상속의 일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 후 1000년간 지속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계5:10)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계20:6)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언젠가 지상의 땅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땅을 상속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란 사실을 압니다.

- 구약 성도들은 이 상속을 얻어야 했습니다.
- 환란 성도들은 이 상속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 교회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들은 우리가 받기를 고대하는 이 상속의 일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라면 비록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천년왕국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권리를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저는 상속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에는 놀라운 만큼의 영광과 권세가 함께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상속을 어떻게 얻는가에 관한 놀라운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허비해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보상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000년의 통치 기간에 지구는 에덴의 동산과 같이 회복될 것이며, 신부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는 신랑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의 신혼여행의 기쁨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 과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상속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 성경을 통해 공부할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놀라운 보상의 몫을 받도록 합시다. 성경은 어떻게 상속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A. 첫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골3:23-25)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상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상이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보상도 상속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보상과 값없는 선물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23절에 따르면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해진 일이라면 헛된 것이며, 아무런 보상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받을 보상은 하늘에 쌓아

둘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고전 3:11-15)

바울 사도는 ‘불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시험할 것’ 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시험하는 것’ 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 인지를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불타게 될 것은 헛된 일이지 사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15). 신실하게 주님께 행한 사역은 금, 은, 보석들로 쌓일 것이며, 반면 나무, 짚, 건초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 행한 죽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시험하는 불이 우리가 행한 일들을 태울 때, 나무와 짚, 건초는 완전히 태워 버릴 것입니다. 단지 금, 은, 보석들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남게 될 것입니다.

- 골로새서 3:24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보상도 상속의 일부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5:50은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없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상속은 앞으로 받게 될 미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만약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골로새서 3장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 또 다른 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주님께서 특히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케 하는 구절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행하도록 감동시키는 구절들은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지 알 수 없으며, 미래에 받을 상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30-50년씩이나 주일학교를 참석하지만 성경이 언급하는 위대한 상속과 귀한 교리들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요나와 고래 이야기, 요셉, 야곱과 에서와 같은 기본적인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만 알 뿐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슬프고도 애석한 일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드린 것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남의 탓을 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성경이 있고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런 삶을 삶으로써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

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B. 두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롬8:16-18)

로마서 8:17에서 자녀들은 곧 상속자들이라고 합니다. 역만장자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먹기에 따라 자신의 유언장에서 자녀들을 제외할 수도 있고 몫을 나눠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들이 아들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아들이란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출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관계는 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상속을 부인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란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19-22은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 동물들이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을 참조하십시오. 신자들의 몸의 구속은 휴거 때에 있을 것임을 압니다(롬8:23). 본문은 바울 사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도가 천년왕국 때를 말하고 있음을 문맥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고난’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물론 고난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서 고난이란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면 불편한 것을 참는 것 또는 견디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박해합니다(딤후3:12). 바울 사도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니”(딤후3:12)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장차 받게 될 상속의 일부는 바로 박해를 통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약간의 육신적인 고초를 겪을 수 있겠지만 초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의해 엄청난 고문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 장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행5:40-42)

➔ 성장을 위한 첫걸음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도들은 얻어맞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자격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했으며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상속을 받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죽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적 고난을 겪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증표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빌1:28-30)

바울 사도의 생애를 공부해 보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신자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딤후1:16).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주님은 고난의 본이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베후2:21)

과거에 그러했듯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임할 육체의 고난에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대해 더 많이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대환란 때는 분명히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미 휴거 되고 이 땅에 없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휴거 되기 직전 신자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과 보상에 대해 토론하면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그런 물리적인 박해를 받는 것 말고는 상속을 얻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고통을 견뎌냄으로써 상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당하게 대접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라 정서적인 마음의 상처 등을 견디는 것도 육신의 고통과 동일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또한 원치 않는 고통이기에 육신의 고통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설교하거나 전도지를 나누어주거나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죄에 대해 책망할 때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마10:38,16:24, 눅9:23,14:27, 갈6:14). 육신을 부정하고 성령께 순종한다면 박해는 필연적으로 옵니다. 사탄은 그것을 주목해서 봅니다.

C. 세 번째 방법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후에 세상으로 떠나거나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명확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실 보상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불 같은 시련을 견디지 못했

➔ 성장을 위한 첫걸음

다면(롬10:11, 눅9:26, 요일2:28, 벰전4:16) 주님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선택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건짐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딤후2:10)

바울 사도가 한 두 가지 말에 주의하십시오.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2. “영원한 영광”은 보상으로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8:18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영광”이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 그러나 영원한 영광은 얻어야 합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구절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딤후 2:11,12)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마7:23)

그러나 마태복음의 구절과 디모데후서의 구절은 전혀 별개의 구절입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문맥에서 벗어난 구절들을 혼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합한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은 그를 아십니다. 거듭나는 순간 ‘그분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 (렘5:30)이 됩니다. 더욱이 그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히13:5). 만약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디모데후서 2:12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주님께서 누군가가 하늘로 오는 것을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신자는 그의 상속의 몫을 부인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거부당함). 이 구절을 문맥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참으면, if we suffer, - A.V.1611)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스림에 관련된 말씀으로 다스림을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끄럽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요, 그들의 상속의 몫 또한 부인될 것입니다.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에 분명한 예가 나옵니다.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으며 그레스겐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딤후4:10)

데마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본보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 또한 믿음에서 떠날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특히 마지막 날들에 더욱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는데”(딤후4:1)

이 서신은 분명히 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며”라고 쓰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지만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상속을 잃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서 13절을 읽어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딤후2:13)

이 구절은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할 박해와 고난을 견뎌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해도, 세상으로 가 버리겠다고 결심한다 해도,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 버려도, 더 이상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한다 해도, 구세주이신 주님께 신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셔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해도 부인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10:27,28)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 일부분입니다(엡5:30-32).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얼마나 신실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그분이 영원히 신실하다면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영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도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요일4:17)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어려움, 시험, 박해, 모욕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분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마처럼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분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 주중의 주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D. 주님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런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엡5:1-5)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만 천년왕국에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부인해야 합니다. ‘탐욕’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구를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골3:2)

탐심(탐욕)은 골로새서 3:5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골3:5)

에베소서5:5과 골로새서 3:5에 따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것들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속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구원이 아니라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상속이며, 주님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를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분을 섬기는 것과 비교할 때 완전히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육신의 욕구가 삶을 지배하거나 거기에 돈과 시간과 열정을 낭비한다면, 성령의 욕구를 따라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욕구가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롬6:11-13)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은 것이라고 여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갈등은 항상 육신의 욕구에 눈길이 갈 때, 그리고 그것을 따를 때 생기는 법입니다.

깨끗한 삶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이 언급하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서 5장의 이 유명한 구절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전혀 구원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혼의 구원과 행위로 얻는 보상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

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거짓 교사들로 인해 혼란에 빠진 형제들을 바로 잡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과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갈5:19-21)

성경은 절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이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나오는 ‘상속’이란 말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24의 정의를 기억하십시오. 상속은 분명히 샅(보상)으로 주어지는 상속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로써 이 구절들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샅이 아니며,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문자적이지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왕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명백하다는 말은 증거가 있거나 확실하며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분명하게 보인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리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께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의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음 - 간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혼한 남자 또는 여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최소한 한 명은 기혼자) 성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몸과 몸의 결합).

2. 음행 - 글자 그대로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못한 행위로써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결혼이란 테두리 내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맺어진 성적 행위, 불결한 성행위 등을 말합니다.

현 세대는 간음과 음행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혼외정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육신에 뿌린 대로(갈6:8) 자신의 육신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간증을 잃어버릴 것이며, 순결을 잃어버리며, 양심을 잃어버리며, 상속의 몫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3. 부정함(불결) - 이는 더러운 것, 외설, 추잡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도덕적 성적 불결을 말합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선정적인 옷차림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불결

함의 목록에 기재됩니다. 여자는 입는 옷으로 남자들을 마음 가운데 간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벧후2:14, 욥31:1, 마5:27-28).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with her) 간음하였느니라.”

둘 다 유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자와 함께’(with her)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이 죄 때문에 자신들 상속의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노소를 불문하고 오늘날 여자(자매)들은 공히 자신들의 여자다움, 성적 매력을 살려 주는 옷을 입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함께 간음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체(몸)를 강조하여 정욕을 유발시켰기 때문입니다.

4. 섹욕 - 성적으로 정도를 넘어 무절제하고 과도한 것을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을 듣지도 못할 것입니다. 요즘 이 단어는 야성적이며 자유분방한 삶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성욕을 유발시키고 자극하는 것을 섹시하다고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5. 우상 숭배 - 사람이나 사물에 필요 이상으로 애착을 갖거나 헌신하는 것. 우상 숭배란 말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죄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듯이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들을 통해 우상 숭배에 대한 의미를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 탐욕 - 부(富) 또는 소유에 대한 강렬한 욕구
- 숭배 -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정도를 넘어서는 존경심과 애착
- 우상 - 옛날 영어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유대인이나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말로서 어떤 대상에 신성을 부여하는 형상, 물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애정과 경배를 차지하는 대상 따위.
- 우상 숭배자 - 우상이나 형상을 섬기는 자,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현신적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자.

6. 마법 - 악한 영들로부터 얻은 힘을 사용하는 자들, 흔히 마약을 사용함. 약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PHARMACY란 단어는 그리스어 “pharmakeia”에서 유래한 단어로써 계시록 18:23에 사용되는 “sorceries”(마법)를 번역한 말입니다. 점판(Ouija), 점성술, 운명가, 강신술, 점신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무엘기상 15:23에서는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라고 말씀합니다.

7. 증오- 이 말은 극한 적대감이란 뜻입니다. 나쁜 감정이 지속하여 어떤 대상을 반사적으로 싫어하는 현상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으로 그냥 싫어하는 것도 증오라 할 수 있습니다. 원수 또는 적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악한 행동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만 죄인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로12:18-21, 살전5:15, 갈6:10을 비교해 볼 것). 죄인들이 하는 그 악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워하며, 그런 죄악들을 증오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혼은 주님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향해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어야 합니다^(마 18:21-35, 눅10:30-37, 유15-25을 참조할 것).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거나 복수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롬12:19b)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며,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얻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자세로 그들을 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8. 불화 - 이 단어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심각한 논쟁을 일으키거나 쓴뿌리를 갖게 되는 일련의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친히 다루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에 대해서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 토의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논점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흥분하여 논쟁을 벌이면, 상대를 전혀 설득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성령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리 논쟁을 벌이며, 불신자들 앞에서 좋지 못한 간증을 보여 줍니다.

9. 경쟁 - 남보다 뛰어나려는 시기와 질투, 라이벌간의 말다툼, 싸움. 육신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따라잡거나 그보다 앞서려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는 욕심에서 비롯됨.

기독교인들은 흔히 다른 형제들보다 자신이 좀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런 죄악을 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상속에 대해 절대로 자랑하거나 허풍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벧전5:5-6, 빌2:3, 롬12:10, 갈 5:26, 마23:12을 참조할 것).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이 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골3:23).

10. 분노 - 과도한 성냄.

성질을 낼 때,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다른 믿는 자들 앞에서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성정은 말하기를 우리는 화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는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엡4:26). 화를 내는 것은 분노하는 것과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내 쫓으시며 화를 내셨습니다(요2:13-17). 어떤 때는 죄와 불의를 보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분노는 충분히 통제될 수 있어야지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11. 다툼 - 서로 잘났다고 부딪치는 것을 말하며, 파벌과 당파도 다툼으로 여겨짐. 경쟁과 이웃사촌.

오늘날 너무나 흔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툼을 싫어하시며, 교회 내에서 말다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들에서 성경이 이미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잠13:10, 15:18, 20:3, 눅22:24, 롬13:13, 고전3:3, 딤후전6:4, 약3:16.)

12. 폭동 - 합법적인 권위에 대해 선동하거나 저항하는 것. 반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회 내에도 무질서와 작은 조직을 만들어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아들(trouble makers)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폭동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1:10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분열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작은 파당을 만들어 서로 분열을 일삼지 않을 것입니다.

13. 파당 -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을 일컫습니다.

비록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상속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진 신자가 그것이 말하는 바를 믿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 공부한다면 거짓 교리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문맥과 상관없이 구절을 뽑아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성경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일을 태연스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왕국에는 가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류로 이끈 그들의 죄에 대한 상속의 상실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성경 선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여 절대 사소하게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약3:1, 벰후2:1, 딤후4:3).

14. 시기 - 남이 잘되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분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 질투, 남의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소유에 대해 탐욕이 드는 것 따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15. 살인 - 미리 마음에 품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매우 즐겨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죽이면 천당에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천당에 간다”가 저의 대답입니다. 물론 저의 이런 답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두 가지 성품, 혼의 영적인 할례(2과를 참조)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살인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비록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해도 그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신자로서 받을 상속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지 않다면, 살인이 아니라 사소한 거짓말의 죄라 해도 그를 지옥으로 보내 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똑같이 지옥으로 갈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신자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지은 모든 죄는 육신의 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이전의 과거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기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21:8)

구원받고 난 후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제 시해 보십시오(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리 작은 일탈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입니다. 비록 선의의 거짓말이라 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계시록 21:8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마찬가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어떤 것을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의 죄라고 합니다(요일3:15).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사람을 죽였고, 그 죄는 속죄 헌물이 없는 죄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이었고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지불되었지만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과 그들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16. 술취함 - 알코올의 과도한 사용, 술의 독성에 압도되는 것.

잠언 20:1은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이것들에 속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이로 인해 속고 상속의 일부를 잃어버립니다.

17. 흥청댐 - 연회나 잔치에서 시끄럽게 하며 즐거움을 깨는 것. 절제나 통제가 되지 않는 연회, 잔치.

우리가 함께할 때, 그 모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선하고 정결하고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즐거우면서도 영광이 돌아가는 모임이어야지 단지 유흥이나 수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하다면, 또는 구원받은 후 그렇게 해왔다면 주님께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임이나 연회를 할 때면 주님께서 이 일을 돌보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며 주님의 보혈 아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모든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1:7-10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수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꾀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빌3:13,14)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뒤에 두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부르심의 상은 아직 그대로 있으며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자라도 자신이 구원받은 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자신이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죄를 범했으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계시록21:8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우리는 이 구절을 모든 신자들에게 상속의 몫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연관시켜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두 가지 본성(구원받은 후)과 혼의 영적 할례에 대한 교리(3장 참조)까지 다루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거짓말 할 수 있지만 거짓말쟁이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천당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목록들은 “육신의 일들”입니다. (간음은 육신의 일입니다. 살인도 육신의 일이며 음욕, 술취함도 육신의 일입니다). 더욱이 갈라디아서 5:21에는 말하기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신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 상속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한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후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여기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요,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고전6:9-11)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¹¹⁾란 말씀은 10절의 불의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한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거룩히 구별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9-10과 갈라디아서 5:19-21을 비교해서 철저히 보시기 바랍니다.

- 고린도전서 6장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행자들”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들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반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서 바울은 육신의 일들을 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음행자”(fornicator)와 “음행”(fornication)은 다릅니다. - 신자는 육신의 일로 음행을 행할 수 있어도 음행자는 아니란 말임, 역주 -
- 고린도전서 6:9은 “우상숭배자들”(idolaters)이라고 하는 반면 갈라디아서 5장은 “우상 숭배”(idolatry)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육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 고린도전서 6장은 “간음자들”(adulterers)이라고 하는 반면 갈라디아서 5장은 “간음”(adultery)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도 “간음”이란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간음자”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간음을 행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상 숭배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혼이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인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거짓말쟁이로 분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만 거짓말한 하나님의 아들로 분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죄는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불신자로 낙인찍히는 않겠지만 뿌린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본 모든 죄목들은 육신의 일들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혼이지 몸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그들의 몸과 혼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인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육신의 일들을 행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할례를 통해 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그런 부류의 죄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보혈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고 의롭다 칭함을 입었습니다. 육신의 일을 행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들이 받을 상속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에 대한 완벽한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피터 릭크만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동굴에서 술에 취한 채 발견된다. 그는 죄를 사랑했다. 그는 죄에 매여 있었으며, 술취함과 부도덕성에 붙들려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롯은 어디에 있을까요?”라고 물을 것이다.” 롯은 하늘에 있다(벧후 26-8). 그는 구원 받은 사람이었다. 선행과 경험과 감정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롯이 구원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는 이런 종류의 교리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베드로후서 26-8에서는 롯은 사악한 자들의 행실로 자신의 혼에 큰 고통을 받은 의인(義人)이라고 말한다.

롯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불에 태워 버려 아무것도 얻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이다(고전3:10-15). 그 부분을 읽어 보라. 나는 여러분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건하고 의롭고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성경적인 진리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성경적 진리란 뭇은 하늘에 갇으며 여전히 거기에 있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점이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뭇이 걸었던 길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으며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뭇보다 훨씬 더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

E. 상속을 얻는 다섯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약2:5)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네 가지를 잘 실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성경은 야고보서 1:22에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상속은 다음 5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
2.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음
3. 그리스도를 위한 정결한 삶
4.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음

5.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구원받았으며 주님께서 그 일을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8-9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10절까지 한 절 더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8-10)

구원은 8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10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상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빌2:12,13)

어떤 사람들은 12절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목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구원을 위해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일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내라(work out)고만 말씀하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표출해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3절을 통해 볼 때 사람이 구원받은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한 설명임이 분명합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내어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2:14)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생을 살기 위해 한 모든 일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 한 일만 영원히 남는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예언적 사건은 교회의 휴거와 그 뒤에 바로 이어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그날에 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보혈로 다 덮여지고 사함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죄는 다시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지

➔ 성장을 위한 첫걸음

만(갈5:1,13, 롬4:4-8)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육신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며 이는 보상의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갈6:7-8). 지금은 비록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라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상속은 점점 더 작아지고 그날에 이르러서 불타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갈6:7,8)

성경은 받는다,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이미 영생을 가졌지만, 성령을 위해 심었든지 육신을 위해 심었든지 심은 것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것은 수확 때에 수고의 열매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지금 십자가를 지고 후에 영광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대로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 우리의 상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이 땅을 영광 가운데 통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족이 자기를 위해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열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십 므나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므나로 십 므나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므나로 오 므나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다섯 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 므나를 빼앗아 십 므나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십 므나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눅19:11-27)

지금은 이 비유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 들어 있는 몇 가지 논점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 12절에서 “귀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먼 나라”는 하늘의 모형입니다. 귀족이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 13절에서 “10”이란 숫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10이란 수는 성경에서 이방인을 예표하는 수이며, 므나(pounds)는 이방의 도량형 단위이며 킹 제임스 성경의 파운드는 영국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종들에게 친히 돌아오셔서 그들을 데려갈 때까지 이방인들이 교회 시대를 차지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이방인의 때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21:24을 참조할 것).

- 14절에서 “국민들”은 천년왕국을 다스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 15절에서 “종들”은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신자들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때 신자들은 지상의 도시들을 다스릴 실제적인 힘과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위임 받을 것입니다. 영광스런 몸을 입은 신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심판할 것입니다.
- 18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자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았으나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고, 주님을 섬겨 본 적도 없으며, 주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전혀 이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 그는 이 땅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이 지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그분을 섬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며 인생을 낭비해 버린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후회하기에 너무 늦어 버린 시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서의 예를 통해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16,17)

성경에 따르면 영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결코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계시록 7:17에도 여전히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직후(주님의 지상 재림에 앞서)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영원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을 환왕좌 심판 때에도 여전히 하늘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습니다(계21:4).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흘리는 눈물은 이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지 못한 참회의 눈물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아들을 위해 예비해 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종들의 모습에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보상들을 받기 위해 전혀 수고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을 볼 때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타 없어지는가를 볼 때 우리가 갖게 될 슬픔이 어느 정도일지 감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고전3:12-15).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

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마련하신 충만한 보상을 얻도록 수고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보상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불못에 던져지고 바깥 흑암에 던져진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13:42,50). 그러나 흰왕좌 심판석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그 혼들은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여 구령할 수 있었던 혼들이란 사실에 대해 성도들의 눈물은 결코 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각을 할 때 바울 사도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떨림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성경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고후5:10,11)

참으로 비극적인 것은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수치를 당한다는 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요일2:28)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볼 때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요일3:1-3)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요한이서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요이8)

위에서 보상이라고 말한 것은 신자들이 받게 될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영광과 권세로 도시들을 다스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여,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고 완벽하고 죄 없는 상태가 되고 영광스런 위엄과 힘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현재 우리의 몸이 무기력하고 불품

➔ 성장을 위한 첫걸음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는 몸과 마음이 모두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 구절들을 통해 그날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다.”(롬8:18)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비록 많은 조명을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그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신부가 어찌 사랑하는 신랑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 둔 상속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 주님이 준비해 두신 것들을 바라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 드립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림에 동참하는 상속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께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준비해두신 상을 기쁨으로 받도록 하십시오.

》》》구원과 상속의 차이

다음 도표는 그리거나 잘라서 여러분의 성경 뒤에 참고로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는 구원과 하늘의 왕국에서 받게 될 상속에 대해서 비교했습니다. 로마서 8:17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디모데후서

6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2:10-12이라고 쓰십시오. 각 구절마다 옆에 각주를 달아서 분명하게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표시를 해 두면 첫 번째 구절만 기억하면 계속해서 다음 연관 구절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구원상속 값없이 주어진다

로마서5:15-18-힘써 얻어야 한다

로마서8:17, 딤후2:10-12,

골로새서3:23-25-잃어버릴 수 없다

에베소서4:30-잃어버릴 수 있다

갈라디아서5:19-21-선물이다

로마서6:23, 에베소서2:8,9-보상이다

골로새서3:24-현재 소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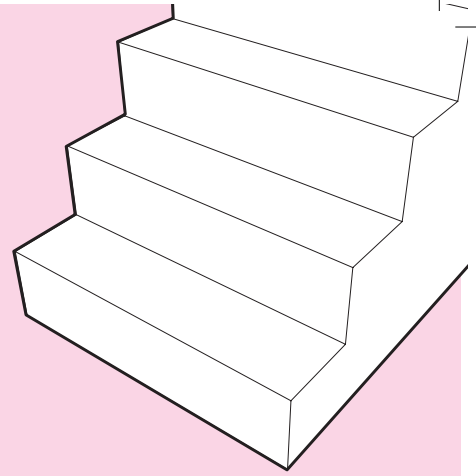
요한복음3:36,5:24,

요한일서5:12,13-미래에 소유할 것이다

고린도전서15:50-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3:5-하나님의 왕국을 볼 것이다

요한복음3:3, 누가복음19:11



chapter 07

성도들이 받을 심판

이번 과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심판”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교. 성도들이 받는 심판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행17:31)

윌리엄 에반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앞에서는 것도 정해져 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심판도 피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고 살았을 때 자신이 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하늘로 가거나 지옥에 간다.” 이런 가르침은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이 막연히 수용하는 가르침이며, 구원받은 신자들조차 일부 그렇게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선행과 악행을 달아 보실 것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만약 우리의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으면 하늘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연옥이란 곳을 말합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꾸준히 비성경적인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파하여 자신들의 추종자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물론 이런 잘못된 교리는 성경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일곱 가지의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 심판

1. 죄인들의 심판 -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심판
2. 아들들의 심판 -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자신들에게 내리는 심판
3. 종으로서의 심판 - 보상과 손실이 따르는 심판. 이 심판은 휴거 후에 주님 앞에서 있게 된다.
4. 흰왕좌 심판 -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못으로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
5. 민족들의 심판 - 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받을 심판
6. 유대인들의 심판 - 대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위에 내릴 심판
7. 천사들의 심판 -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왕좌 심판에서 있게 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

이 과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1. 죄인들로서 받는 심판
2. 아들로서 받는 심판
3. 종으로서 받는 심판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위의 각 심판은 서로 다른 때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각 심판의 때와 성격, 그리고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심판에 대한 결과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결정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1. 죄인들로서 받게 될 심판

약 2천 년 전 갈보리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심판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거)과 이후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미래)을 포함한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의 집행이 대속자 위에 임했으며, 집행되었습니다. 죄인들 대신 형을 받아 처형된 분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침례자 요한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1:29)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요12:31,32)

이 구절을 통해 볼 때 주 예수님께서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음을 이 세상의 심판으로 언급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2:1,2)

필그림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로마서3:25의 관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해란 히브리서 9:5에 나오는 ‘금홀의 자리’를 번역한 말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으로 가야 한다. 대제사장이 일 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는 언약궤 위에 파를 뿌렸다. 그 보좌는 바로 심판의 보좌이며, 그 파는 누군가가 심판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보좌는 금홀의 자리가 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믿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처소가 되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들에 대한 심판이 그분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2:24)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한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12. 성도들이 받는 십만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잔혹한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우리의 구주이신 분께서 문자 그대로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갈3:13)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우리를 대신해 지옥에 가셨습니다. 자신의 혼 위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들을 지옥으로 가져가셨습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행2:31)

사도행전 2:31에 “그리스도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으셨다”고 기록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무죄한 혼이 지옥에 간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요셉의 무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1. 우리의 죄들은 주님께 전가되었습니다(주님이 그 죄들을 가져가셨습니다).
2. 동시에 주님의 의(義)가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롬 3:24, 26, 4:6-8, 5:17, 18).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義)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해 있습니다. 만약 죄에 대한 하나님

의 심판을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누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엡2:2,3)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위에 둔 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는 고통입니다(눅16:19-31). 이렇게 정죄 받고 저주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려 나와 심판을 받게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흑암 가운데서(유13, 계20:11-15)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미 유죄로 정죄를 받았고,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약 갈보리의 십자가에 내려진 첫 번째 심판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영원히 잃어버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려질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3:18)

자기 의에 사로잡힌 많은 불신자들은 그런 심판이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하고 황금률을 지킴으로써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그들의 죄에 대한 재판은 끝이 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갈보리에서 행해진 심판의 결과에 복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 1과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으로 가셨습니다(벧전3:18).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의 의를 가질 수 있었을 터인데 왜 너 자신의 의를 신뢰했느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벧전3:18)

여기서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옥의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요19:28)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지옥의 불꽃으로 다가서고 계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 성장을 위한 첫걸음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운운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또한 너무 사랑하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사랑하셨다(요3:16)”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것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성경의 참조 구절을 찾아보시면 그 구절들은 항상 과거형이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그 유명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세상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요일4:9)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악한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미워하시며”(시5:5)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시7:11)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요한복음 3:36에서 읽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거부하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3:18에는 이미 그들이 정죄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이미 볼 수 있게 드러났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누구라도 자신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겨내고 싶다면 갈보리에서 행하신 죄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또, 자신에게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시며(요6:37),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히11:6).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며,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요16:8-11).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지 거부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요12:32)

주님은 갈보리에서 온 세상 앞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마의 아들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3:14-15)

요한이 언급한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남편이 버린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를 거룩히 구별할지니 이는 그가 네 하나님의 빵을 드리기 때문이니라. 그는 네게 거룩할지니 이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창녀 짓을 행하여 자기를 욕되게 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나니 그녀를 불로 태울지니라.”(민21:7-9)

이 말씀을 기초로 작시된 유명한 찬송가 “보고 살라”(Look and Live)를 보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줄 말씀이라네.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찬양할지어대!
‘보아라, 살리라’ 당신이 할 일은 그것뿐.

내가 어떻게 왔는지 말하리,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모든 것이 되실 때,
‘그의 이름을 믿으라. 찬양할지어대!
나는 믿었네, 그분이 내 혼을 구원했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해 놓으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지옥에 가고 싶다면 주님을 믿는 그 한 가지만 제외하고 무엇이든지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대신 교황을 믿어도 됩니다. 그것은 확실히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일곱 성사를 믿고, 물 침례를 믿고, 십계명을 믿고(성경은 어느 누구도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하지만),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황금물을 신뢰하고 교회 회원이란 사실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종교를 신뢰해도 상관없습니다. 지옥에 가기를 원한다면 믿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고 싶다면 세상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먼저 세상에 행해진 이 첫 번째 심판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시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이제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자의 구원은 주님의 손안에 있으며,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이루고 완성하신 사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믿는 이들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현재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런 사역에 대해 알면 알수록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깊은 사랑과 그분을 위해 일하려는 자원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자기 껌뎡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은 주님의 사역과 그분의 의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야말로, 사랑에 감동되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합니다.

II. 아들로서의 심판

죄인들로서의 심판이 영원한 미래와 관련된 심판이라면 아들로서의 심판은 현재의 생활과 관련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신자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갈보리에서 모든 사람은 유죄로 발견되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복되신 구주 위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된 상태입니다. 신자들은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된 후라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죄를 짓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1:8)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의 하나인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롬7:18)

“오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4)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라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를 섬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일상의 죄를 고백하고 심판(판단)하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9)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과의 교제의 문제입니다. 일례로 어떤 자식이 아버지의 차를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해 봅시다. 그 아들이 용서를 빌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화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사실

12과. 성도들이 받는 심판

입니다. 그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매우 불쾌하실 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엇도 그 사실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심판에 굴복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반면 매 순간 죄를 자백하고 심판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불결한 채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1:5-7)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다루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다루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합니다. 신자들로서의 심판이란 바로 이 징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아들로써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징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이,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히12:5-7)

하나님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십니다. 이는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대한 경향이 있으며 제대로 심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전11:30-32)

이 문맥에서 “잠든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볼 때 요한복음11:11-14에 분명한 참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고, 잠든 것은 그들이 자신을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심판해야 합니다^(히12).

온 세상은 첫 번째 심판에서 정죄를 받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심판 아래에 놓여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로써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신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경우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님께 서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유사한 참조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롬8:1)

이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해결된 우리의 영원한 상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겪는 일상적이고도 일시적인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로마서 8:13을 통해 이 구절의 정확한 적용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롬8:13)

고린도전서 3:16과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고전3:16,17)

문맥을 통해 볼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신자들을 상대로 한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입니다. 만약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몸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실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5장에 등

장합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전5:1-5)

자기 아버지의 처와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사탄의 손에 넘겨져 “육체가 멸함 받도록”(죽도록) 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며 다른 형제들의 걸림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본향으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기쁨과 받을 수 있는 상급과 상속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겪을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는 이미 하늘에 집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대우받을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심판에서 하나님과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영원히 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한 바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3:9)

하나님의 씨(말씀)에 의해 우리 안에 창조된 새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벧전1:23)

미국에는 양자 입양법이 있습니다. 누가 양자를 입양하면 그 아이에게 가족의 이름을 주어야 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므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요6:37-39)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

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요10:27-30)

III. 종으로서의 심판

기억하십시오.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죄에 대한 심판, 아들로서 날마다
받는 심판이, 그리고 죽은 후에 종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이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로서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
사드립니다. 하지만 자녀로서의 심판과 종으로서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
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
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
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롬14:10-12)

이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
이 주님의 피 아래 놓였음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는 다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씻겨졌으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옛 생활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이 종으로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은 모두 기록하시며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모두 직고(直告)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 곧바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참석해서 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다음 두 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 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계

19:7-9, 고후11:2, 엡5:25-27).

둘째, 그리스도인이 지상에서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고후5:10,11)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선악 간에 행한 일을 다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임하신 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한 것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을 왜 두려움으로 묘사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리라. 네 말로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로 네가 정죄 받으리라, 하시니라.”(마12:36,37)

우리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심판 때를 위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모든 말들, 다른 사람들과 행한 헛된 대화들까지 다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전12:14)

심지어 나와 하나님만 아는 마음속의 비밀들과 생각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롬2:16)

12과. 성도들이 받는 심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거나, 그 후에 스스로 심판하여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죄를 제외한 모든 죄악들이 그날에 다 공개적으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 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눅8:17)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니”(시90:8)

주님은 우리의 비밀스런 죄를 다 알고 계시며 심판석에서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므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시 139:1-4)

하나님은 내가 결코 발설한 적 없는 마음속의 이야기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주의 두려움”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옴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것을 다 보시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욥 34:21,22)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심판의 왕좌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흠어지게 하느니라.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잠20:8,9)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전3:11)

행한 일과 보상이란 문맥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놓으신 기초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말해 줍니다.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기초 위에다 뭔가를 쌓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사람처럼 바보일 것입니다. 다른 것에 쌓는 것은 헛것을 쌓는 것이요,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마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7:26,27)

예수님은 견고하고 안전한 유일한 반석입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주님 위에 모든 것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만약 우리가 올바른 기초 위에서 시작한다면 불로 시험할 때 그 일이 어떤 종류인지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규, 은, 보석, 나무, 짚, 건초).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 우리의 보상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문자적인 보물을 쌓아 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살았던 그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서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
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마
6:19-21)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해 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따르면, 금, 은, 보석들은 문자적인 보화입니다. 이런 문자적인 보화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지상에서 가장 귀한 광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이 금으로 덧입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거리가 황금길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도시 전체는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은 하늘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예표하는 물질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빌 2:9)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딤후 3:16)

영적으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높임으로써 하늘에 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의 증인, 회교도, 몰몬교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

12. 성도들이 받는 십만

제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늘에 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가족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심지어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높여 드림으로써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6,27)

둘째, 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은 구속의 가격입니다(그리스도께서도 은 삼십에 팔리셨습니다). 사람은 은 몇 세겔로 그들의 혼을 구속했습니다(출30:12-15, 민3:46-49). 전쟁에 나가기 전, 이스라엘은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불어 경고음을 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민10:1,2,9).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고, 주님의 피가 은을 대신하여 구속의 몸값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1:18,19)

영적으로 보자면, 주님의 피로 어떻게 구속 받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줄 때 우리는 하늘에 은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잠언11:30에는 “흔들

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 줌으로써 은을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석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석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말라기에서 이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 책을 기록하셨느니라.”(말3:16)

주를 두려워 한 자들을 위한 기억의 책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두려워 한 자들(주의 말씀을 두려워 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는 신자들을 자신의 보화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석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스가라는 성도들을 귀한 보석으로 말합니다.

“그 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 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슥9:16)

다니엘 12장은 성도들을 별로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각각의 별이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보석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깨어나 열미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열미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

12. 성도들이 받는 십만

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단12:2,3)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
를 샀느니라.”(마13:46)

진주는 교회(그리스도의 몸)를 예표하는 보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
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구속 받은 무리들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 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이 되었도다.”(벧전2:4,5)

보석들은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금, 은,
보석들은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증거하는 것, 주님을 위해 혼을 얻어
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
을 데려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
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눅15:10)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

리라, 하시니라.”(행1:8)

우리는 모두 다 증인입니다. 모든 신자는 화해의 직분을 맡은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후5:18-20)

우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들을 화해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역은 가정 방문, 거리 설교, 전도지 나누어주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일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쉬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둘 수도 있고 우편을 통해 보내 줄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일상생활 가운데 접하는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는 씨를 뿌리는 단계입니다. 그 열매는 저 하늘에 가서야 알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수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후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도자가 그 사람을 방문할 수도 있고 어떤 계기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씨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뿌린 씨에 대한 대가는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일은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우리 모두가 각자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고전3:6-9)

바울은 구령을 수확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고 증거할 때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에 물을 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를 다른 사람이 주님께로 구령할지라도 우리는 일정 부분 몫에 참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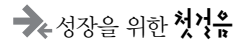
>>> 우리의 마지막 보상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는 손실이 뒤따를 것입니다. 나무나 건초나 짚처럼 육신적으로 한 일은 다 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히9:14)

성경의 이 문맥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죽은 행실에 대한 언급이



지만 신자들 역시 죽은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무(wood)는 죽은 나무(dead tree)입니다. 건초는 죽은 풀입니다(dead grass). 짚(stubble)는 밀이 죽은 것입니다. 이런 죽은 일들은 주님께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은 신자들의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로6:1-11). 그러므로 죽은 육신으로 행해진 일은 죽은 나무와 건초와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들은 올바른 종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일은 양이 아니라 질로 판단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일이 불에 의해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고전3:13-15)

어느 날, 모든 신자들이 하늘에 올라갈 때,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거대한 일터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불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고 한 줌의 재로 변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 주여, 저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했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

12. 성도들이 받는 십만

을 했는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일을 한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주님은 왜 일을 했는지(동기),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방법과 과정), 누가 그 일을 했는지(일의 주체-성령인가 나의 육신인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일을 위한 순수한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

일을 하는 정확한 방법은 믿음이어야 한다.

일을 하는 적합한 수단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 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히6:10)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살전1: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갈5:6)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슥4:6)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히11:6)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롬14:23).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 위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롬6:13,19).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옳은 반면 우리의 원함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선교에 1000달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나도 1000달러가 있으니 선교 현금을 할 수 있어!”라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축복하지 않으시는가 의아해합니다. “어쨌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현금을 했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행했느냐 아니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내보이기 위해서 육신적인 욕구에 따라서 했느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키프러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분 가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행4:36-5:2)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현금한 양에 관해 교회에 거짓말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영적인 소원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위장했을 때 이미 거짓되이 행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사랑으로 드렸습니다. 반면 아나니아의 계획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영적인 사람임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들의 땅을 팔아 일부를 감추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의 꾀와 사탄의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보상을 받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식과 영원한 상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불로 시험받음

고린도전서 3:13-15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불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쌓은 것이 금, 은과 보석들이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일들이 나무와 건초와 짚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치해 둔 우리의 일들은 불을 통과할 것이고, 그 중 죽은 행실로 간주한 것들은 모두 불타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금, 은, 보석들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죽은 행실은 모두 타 버리고 한 줌의 재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남아있는 대로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 둔 보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적절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상급을 잃는 고통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고자 하는 중요한 원리는 신자들은 결코 불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타고 잃어버리는 것은 죽은 일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관(crown)을 받는 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우리의 행실에 대한 하늘의 보상입니다. 금, 은, 보석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증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란 사실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한 행실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1. 의의 관

디모데후서 4장에 “의의 관”이 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딤후4:7,8)

이 구절은 인생의 마감을 앞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에게 줄 관에 대해 말하는 장면입니다. 의의 관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후거:살전4:13-17).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13-17절은 교회의 휴거 시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영광스런 날을 고대하는 우리들에게 이날이 위로의 근원이 됨을 말해 줍니다. 몇몇 신자들은 그들의 상급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나 가르침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합당하게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친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관(冠)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3:11)

이 구절은 우리가 우리의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급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 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것을 원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의 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당한 소유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살펴보십시오.

“아무도 꾸며 낸 겹손과 천사 송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골2:18)

구약 성경에는 900회 이상, 신약 성경에는 최소 100회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상의 일들에 매이지 말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2:4)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골3:2)

요한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2:15)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실 것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바랐다면 의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애정을 이 땅이 아닌 위에 두었을 경우에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화가 거기에 없다면 결코 거기를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곧 바로 저 위의 것들에 대한 애정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곳에 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있다면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려는 소망은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바로 오신다면 여러분은 아무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녀는 소돔의 파멸을 가까스로 피하면서 한번 더 뒤를 돌아 보기 위해 멈추어 섰습니다. 그녀의 모든 보화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보화가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 또한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순간에조차 그녀는 하나님의 건져내심보다 세상의 소유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오신다면 정말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슬픔에 휩싸여 저 하늘보다 땅으로 자꾸 눈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아십니다. 몇 마디 말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간절히 바란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주님과 저 하늘에 있는 것들에 가 있는지 이 세상의 소유에 가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마음 가짐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게 하며,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 줍니다.

II. 썩지 않을 관

두 번째는 썩지 않을 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느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9:24-27)

우리의 몸을 굴복시켜 복종케 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 이 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에 대해서 승리를 얻어야 하며 십자가에 못박힌 삶의 간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A. 믿음의 경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경주장의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얹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1,2)

경주를 하기 전에 모든 선수들은 경기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립니다.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들도 다 비웁니다(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호주머니를 비웁니다). 선수들은 유니폼을 통해 쉽게 신분이 확인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떤 옷을 입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옷차림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경주자의 본을 따라야 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치워 버려야 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특별히 취약한 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극복한다면 삶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에서 함께 달리시고 계시며, 마지막 결승점에서 우리를 맞으시고자 하십니

12. 성도들이 받는 십만

다. 이 경주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딤후4:6,7)

B. 우리 몸을 복종시켜라

히브리서 12:2에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님께서도 경주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경주는 죽음, 지옥, 무덤을 이기는 승리의 경주였습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고통과 슬픔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얻을 승리도 보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를 마쳤을 때 얻게 될 큰 상급의 기쁨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기꺼이 맞이하셨습니다.

칼 루이스라는 육상 선수가 올림픽 100m 단거리에서 우승하여 금메달을 땀을 땀을 때, 그의 몸은 어떠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의 몸은 고통과 피로로 점철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육상 선수라면 누구라도 스스로 다짐하듯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몸을 복종시켰습니다. 훌륭한 선수는 몸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훈련하여 몸을 의지에 복종시킵니다. 결코 일시적인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앞에 다가올 상급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경기를 하고자 한다면 결코 몸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자신이 몸에 해로운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까지 절제합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무 선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선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선수가 몸을 절제하지 못해 약물 복용 등으로 삼류 선수로 전락하고 마는 경

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견디지 못해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은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는 행인에게 한 조각 빵을 얻기 위해 돈을 구걸했습니다. 행인이 거부하자 그는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어 주면서 돈을 구걸했습니다. 행인은 그 반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반지는 슈퍼볼(미식축구) 결승전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받는 반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에 프로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제 이름은 머큐리 모리스(Mercury Morris)입니다.”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행인이 그 사실을 차마 믿지 못하자 그는 자신의 운전 면허증과 스크랩 해 놓은 몇 장의 신문 기사와 신분증을 내밀며 보여 주었습니다. 지나가던 경찰도 그는 전에 유명한 미식축구 스타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였고 성공과 부로 가득한 인생에서 무일푼으로 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원인은 마약 복용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정상에서 있었지만 자신의 몸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중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선수라면 반드시 자신의 몸을 복종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선수들은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썩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죽으면 그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쌓아둔 트로피나 상금은 모두 녹이 슬고 닳아져 없어질 것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라는 헤비급 챔피언을 지낸 권투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얻은 타이틀이 그가 서게 될 심판석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는 평소에 자신을 왕이라고 불렀듯이 심판석 앞에서 천사들 가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운데 한 명을 붙들고 자신이 누구였는지 설명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권투, 권투가 뭐죠? 여기서는 그런 것을 취급하지 않아요. 여기서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걸요.” 이 땅에서 권투에 관한 한 자신을 왕이라 불렀겠지만 자신이 받은 모든 관이 다 썩을 것들에 불과하며 다 잊혀진 것들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판석 앞에서는 알리 또한 다른 모든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자들이 얻을 수 있는 관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만 봐도 세상 사람들이 얻는 것들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고 훌륭한 것입니까? 우리가 받을 관은 도둑들이 뚫고 훔쳐 갈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녹도 그것을 부식시키지 못합니다(마6:19-21). 이런 영원한 관은 몸을 복종시키고 정욕을 제어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선수들이 몸을 복종시키는 것보다 몸을 복종시켜야 할 이 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신자들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잘 돌보고 그것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고전3:16,17)

신자로서 우리는 우리 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그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귀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발이 올바른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둘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둘째, 불신자들 앞에서 절제의 간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9:27을 참조할 것)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후5:17)

우리의 육신적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다가도, “그들이 왜 우리에게 설교할까? 그들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가 읽는 것을 읽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같이 원하며, 우리가 입는 방식대로 입고, 우리가 듣는 음악을 듣고, 우리가 즐기는 농담을 즐기면서 우리가 하는 짓은 다 같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이 하면서, 무슨 차이가 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가 나쁜 간증으로 인해 배척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보여 준 본에 훨씬 못 미치기에 더욱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일에 용기를 주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 놓을 못한 행실들을 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방해했을 때, 나는 그들 앞에 실족하는 걸림돌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성도들에게 경고했던 죄입니다.

“그러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롬14:13)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결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최근에 저는 유치원에서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공연하는 유치원생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자기 부모 앞에서 엉덩이에 손을 얹었고 무대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 아이 하나가 쓰러지자 도미노처럼 그 아이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른 아이는 또 다른

아이에게 걸려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좋지 못한 간증을 보일 때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롬14:7)

우리는 모두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식구들도 우리를 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 외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롬14:7). 우리는 이 지상을 떠날 때까지 누구에게든 영향을 미치며 삽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삶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고전8:9-12)

우리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자유 아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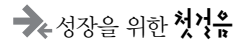
12과. 성도들이 받는 십만

바울이 경고한 것은 이 자유를 연약한 지체들의 걸림돌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예를 보여 주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신전에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 제물들이 많았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에 쓰인 제물들은 누구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신자들은 그 신전들을 지나가다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고전8:4). 그러나, 거짓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이 약한 지체들에게는 상당한 시험거리였습니다. 아마 그런 형제들 가운데는 신전의 희생물을 먹는다는 것이 희생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구원받기 전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구원받기 이전의 장소로 돌아가 그들이 사용했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상당한 시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14:23에 따르면 고기를 먹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나 그래도 바울은 그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8:13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약한 형제들은 그 당시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런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에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고전8:13)

한 예로 담배를 피우는 못된 습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삶을 깨끗하게 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애



쓰는 한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교회에서 구원받았지만 10년도 더 된 신자가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청년에게 나쁜 간증과 걸림돌을 제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젊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상처를 준 것이며,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더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고전6:12)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지만 어떻게 처신할지 늘 주의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술, 담배, TV, 음식, 스포츠, 포르노, 기타 어떤 것들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매여 우리 삶이 여기에 좌지우지된다면 이미 중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죄입니다. 어떤 것은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때 죄가 되고 맙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살전5:22)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문제에 확신이 서지 않고 의심이 갈 때, 그

12과. 성도들이 받는 심판

것은 버려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바울의 관점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속박 아래 놓여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유의 법 아래 자신을 두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료 형제들을 바라보았으며, 스스로 자신을 절제함으로써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을 스스로 절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급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썩지 않을 관은 결코 얻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육신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하며,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롬6, 갈 5:24,25).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신앙과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2:20)

이 썩지 않을 관을 얻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건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육신이 아직 담배와 술, 먹는 것, 자는 것과 같은 것들에 여전히 매여 있습니까? TV에 더러운 프로그램들이 나올 때, 여러분은 계속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 버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가를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TV를 봅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 보냅니

까? 성질이 났을 때 여러분은 육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육신을 통제해 달라고 넘겨 드립니까? 주변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도마에 올려놓고 썩덕공론을 합니까? 주님을 증거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면 집에서 TV를 보면서 잠을 잡니까? 제시간에 일어나서 정확한 시각에 교회에 나가십니까? 아니면 가야 할 시각에 마지못해 교회에 겨우 나가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끌린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마음이 가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미적지근하며 설교나 성도의 교제에 전혀 열성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틈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약4:4)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원수로 분류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계시된다면 언젠가 많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을 관은 바울과 같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린 특별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입니다. 결론은 주님께 드림이 없는 인생은 얻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을 얻으려는 바른 자세는 다음 구절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

“너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II. 성도들이 받는 심판

4:13)

육신을 입고 바르게 사는 방법을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고후10:3-5)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서신을 통해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도록 엄히 훈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통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닐 수 있는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지녀야 할 무기입니다(벧전3:12, 엡6:17,18).

III. 생명의 관

세 번째 관은 생명의 관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冠)을 받으리라.”(약1:12)

고난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견디며,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상입니다. 이 관은 순교자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이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성경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질 선물이며, 생명의 관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요한계시록 2:10절은 이 관을 얻기 위해 시험과 시련의 기간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0:13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 그리스도에게 신실하지 못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

제가 시험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성경 구절을 얼마나 자주 생각나게 하셨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매 순간 기억나는 성경 말씀이 시험을 이기도록 큰 힘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거나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왔을 때 주님께서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신 피할 길을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에는 시험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니

12과. 성도들이 받는 심판

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동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뇌어야 할 것이며, 기억 속에 늘 각인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약4:6-7)

이 구절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욥41:34참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에 사탄을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란 말은 “복종하다”란 말의 반대말입니다. 대적이란 말은 단순히 어떤 일에 NO라고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훨씬 의미가 강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복종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단호하게 저항해야 하고 역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저항하려는 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유혹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도 인용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마22:37).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피할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관을 얻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은혜로 견디고 이겨야 합니까?

일전에 레스터 롤로프(Lester Roloff)란 복음 전도자가 아래의 시를 암송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는 제게 참으로 유익한 시가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시이지만 매우 심오한 시입니다.

“나는 기쁨과 더불어 일 마일을 걸었다,

기쁨은 온종일 재잘대었다.

그러나 내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슬픔과 함께 일 마일을 걸었다.

슬픔은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배운 모든 것은

슬픔이 나와 함께 걸을 때였다.”

12. 성도들이 받는 십만

시험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주님에게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싸우십니까? 우리 힘으로 대적하려고 애쓴다면 매 순간 육신은 패하고 말 것입니다. 육신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L.E 맥스웰이 쓴 책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번 장을 마무리하면서 인도에서 병들어 주님의 군사로 살았던 에미 카미카엘 (Amy Camichael) 자매의 고백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실로 고통의 행로를 배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성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 삶의 즐거운 일들을 위해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서 고통을 위해 고난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뭇거림과 회피하려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미로 장식된 면류관을 쓰려 합니까? 주님의 손에는 굵은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는 보석으로 된 반지를 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양발이 묶인 채 높이 달리셨는데 여러분의 발은 발에 맞는 좋은 신발을 찾습니까?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피눈물과 애끓는 상황과 조롱을 당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느슨한 삶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것만을 사랑하는지요, 주님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삶으로만 얼굴이 향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을 사랑하고 재산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온 마음을 쏟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겹세마네로, 갈보리 언덕으로 인도하리라는 기도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그곳에 결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제가 수고로 지칠 때
당신의 명령이 무겁다고 느낄 때
나의 짐으로 인해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주님, 당신의 손을 내게 보여 주소서.

당신의 못박힌 손, 당신의 상처 난 손
나의 구세주시여, 그 손을 보여 주소서.

그리스도여, 만약 내 발걸음이 비틀거리면,
내가 뒤로 물러서고자 하려 하면,
사막이나 가시가 탄식을 자아내면,
주여, 당신의 발을 보여 주소서,
당신의 피 흘리신 발, 못자국이 선명한 발,
나의 예수님, 당신의 발을 보이소서,

오 하나님, 제가 감히 주님께
저의 손과 발을 보여 드리나이다.

—Brenton Thoburn Bodley—

IV. 영광의 관

다음으로 영광의 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

12. 성도들이 받는 십만

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 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벧전5:1-4)

이 관은 신실한 장로들(목자들)에게 주어집니다.

1.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
2. 양떼를 감독하는 사람들(히13:17)
3. 양떼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들(살후3:7-9)

디모데전서 5장에서 사용되는 장로란 용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딤후3:17)

베드로전서 5장과 디모데전서 5장에서 언급된 ‘장로’란 단어는 임명된 장로로서 감독직과 치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실한 장로들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샅꾼 목자(요10:11-13)만 있고 마치 법률 시장에 변호사가 있듯이 종교 시장에 목회를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양떼의 목자가 되기보다 양떼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요, 주인이 되려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떼를 몰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목회자가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유난히 강조하는 샅꾼 목자들은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떼들에게 “나의 말에

순종하시오, 나의 행동을 흠잡지 마시오.”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유함과 상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 되는 목자입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단지 육신적인 탐욕(금전적 이익)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목양을 한 사람들은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V. 기쁨의 관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기쁨의 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冠)이 무엇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살전2:19,20)

이 관은 구령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이끌어 온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회심한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빌4:1)

누가복음 15:10에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께 인도한 혼들이 우리와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많은 교인들이 구령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누리기보다 교회의 모임, 파티, 놀이 등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볼 때 슬픔을 느낍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얻을 영원한 상급 대신, 이 땅에서 그들의 상급을 이미 다 받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롬10:11)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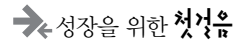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롬1:16)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해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전도지를 줄 만큼 신경은 쓰십니까? 방문 전도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혼을 얻는 것은 낚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많은 고기를 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 없이 혼을 얻어 올 수는 없습니다.

>>> 결론

이상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본 관(crown)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질 관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 앞에서 자신들의 관을 주님 앞에 던지는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이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계4:10,11)

요한계시록 5:9에서 이 장로들은 어린양의 피로 구속 받은 신자들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계5:9)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위해 일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관을 받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런 좋아” 하고 말씀하실 때가 우리의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관을 그분 앞에 던지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멍하니 서서 자신들이 이 지상에서 행한 일들이 헛된 것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요일2:28)

12. 성도들이 받는 심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막8:38)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받을 천년왕국의 상속을 잃어버린 채 히브리서에 기록된 에서처럼 후회할 것입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히12:16,17)

그날이 다가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복되신 구주 앞에 서는 시기가 다 되어서야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영광스런, 완벽한, 죄 없는 몸을 입음으로써 더 이상 고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런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거나, 자신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헛된 것들에 애정을 둔 것이었음을 깨닫고 눈물과 슬픔으로 우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길지 모르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에 사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보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중

대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것들에만 감동을 느끼고 굶주려 있군요.”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요이8)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만 후에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관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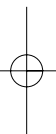
신자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아래에 나오는 일곱 가지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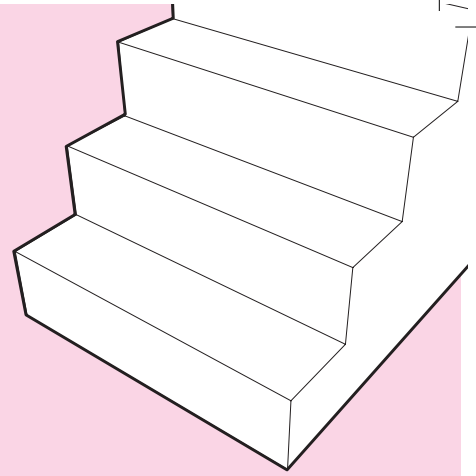
1. 확신 - 요일2:3-5
2. 간증 - 고전15:33-34, 고전9:27, 롬14:7,13
3. 기쁨 - 시편51:11,12 요15:11
4. 건강 - 고전11:30
5. 생명 - 고전11:30
6. 상급 - 고전3:13-15
7. 상속 - 눅19:15-26, 골3:24

형제들이여, 온 힘을 다해 상급을 받도록 노력합시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시다. 신실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분께 말입니다.



과. 성도들이 받는 십만





chapter 08

부활한 몸

이번 과에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 돌아오실 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영광스런 새 몸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8과. 부활한 몸



유감스럽게도 혈과 육으로 된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요, 그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에 굴복하여 지금도 죽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운동을 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우리의 몸은 하루하루 늙어 가며 무덤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우리의 혼은 영원히 안전하게 됩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죽은 성도들이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어 주님과 함께 오는 장엄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자신도 또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모두 새롭고, 영광스럽고, 완벽하고, 죄 없고,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무엇과 같은가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이 과는 주님께서 곧 돌아오실 것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것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 두 부활

먼저 두 부활에 대한 개요부터 공부하겠습니다.

I. 부활의 사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는 문자적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Sad, U-See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성경에서 부활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A. 구약성경의 증거

1. 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욥기19:25-27)
2.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시편16:9,10)
3. 선지자들(대언자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사야26:19과 다니엘 12:2과 호세아13:14을 보십시오.)
4.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22:5과 히브리서11:19을 보십시오.)
5. 실제 부활한 예들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17-24, 열왕기하4:32-35, 13:21을 보십시오.)

B. 신약 성경의 부활의 증거

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21,28,29; 11:23-26을 보십시오.)
2.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3. 사도 요한은 두 부활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계시록20:4-6,13,14을 보라.)
4.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요한복음11:43, 누가복음 8:52-55, 마태복음 27:52)
5.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2, 4:10, 로마서 1:4; 4:25, 고린도전서15:4-8을 보십시오.)

8과. 부활한 몸

II. 부활의 중요성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중요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의 중요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며 필수적입니다.

A.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죽음임이 구속의 가치를 지녔음을 선포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죽음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고전15:17).

B.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능력(존재하는 모든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줍니다. (롬1:4, 빌3:10a, 고전15:58)

C.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22을 보십시오.)

III. 부활의 성격

A. 문자적이며, 몸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다룰 때, 하나님은 사람의 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7-40, 44절을 보십시오.)

B.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활은 모든 사람, 즉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요5:28,29; 행24:15).

C. 이중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부활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두 부활은 같은 것이 아니라 1000년이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한 번의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한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참조, 계시록20:5).

1. 의인의 부활(누가복음14:14)

2. 불의한 자의 부활(요한복음 5:29b, 사도행전24:15)

IV. 부활의 순서

고린도전서 15:22-24은 부활의 순서를 말해 줍니다. 이것은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활 내에서 순서를 말합니다.

첫 번째 부활(죽은 의인들의 부활)은 유대인들의 추수와 유사합니다. 그들의 추수는 세 번에 걸쳐 행해집니다(고전15:22-24).

A. 첫 열매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들을 예표합니다(고전 15:23b).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마27:52,53).

B. 수확

가장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들이는 때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며 휴거될 성도들을 포함합니다(고전15:23c).

C. 이삭줍기

8과. 부활한 몸

성경은 분명히 대환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계7:9-14).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지닌 증거 때문에 살해당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루 포함합니다(계14:3). 계시록 20:4에 따르면 휴거된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이 함께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란 성도들이 어느 때 부활할지 정확한 시점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시록 6:9-11에 그 시점이 암시되어 있고,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이 보좌에 앉은 모습을 통해 짐작할 따름입니다.

V. 부활한 몸

부활은 몸의 부활이기에 부활한 몸의 특성을 살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A. 신자들의 부활한 몸

성경은 부활한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려 줍니다.

1. 구속 받은 몸(롬8:23)
2. 영광스러운 몸(빌3:20, 21)

우리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몸과 동일할 것입니다. 옥수수의 씨를 심었을 때 옥수수를 맺듯이 우리의 현재 씨를 몸이 심겼을 때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고전15:43, 53).

3. 그리스도와 같은 몸(요일3:2)

우리의 영광스런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동일한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 a. 알아볼 수 있다-눅24:31

- b. 만질 수 있다-눅24:39, 요20:27
- c. 제한이 없다-요20:19
- d. 음식을 먹을 수 있다-눅24:42,43; 요21:12
- e. 사라질 수 있다-눅24:31

B. 불신자들의 부활한 몸

불신자들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는 성경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태복음 5:29,30을 통해서 썩을 몸이며, 둘째 사망의 고통과 불꽃 가운데 시달릴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한 몸

우리는 두 부활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부활한 몸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부활은 누가복음 20장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극단적인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에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만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눅20:27-33)

물론, 이들 종파는 몸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8과. 부활한 몸

이 질문한 의도는 예수님을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곱 남자의 부인이 된 여자가 부활한 후에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나이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서는 그분의 지식과 지혜, 말할 수 없는 명철에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눅 20:34-36)

34절에서 주님이 “이 세상의 자녀”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35절에서 주님은 다른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요한은 계시록 21:1에서 저 세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그때 주님은 이 현 세상을 파괴하고 새 세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벧후3:13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습니다(눅20:35). 이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이며, 불신자들은 여전히 땅속에 있을 것입니다.

➔ 성장을 위한 첫걸음

부활 때에 신자들의 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져 옮겨질 것이며, 죽은 불신자들의 몸은 그대로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란 단어는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계20:5)

두 번째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고전15:12,13). 무덤에 남아 있던 모든 사람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의 부활입니다.

천 년이 끝나고, 지옥에 있던 구원받지 못한 모든 혼들은 흰왕좌 심판대 앞으로 끌려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누가는 교회 시대의 신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35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결혼이 없습니다.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배우자가 하늘에서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36절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자들이 결코 다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눅20:36)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8과. 부활한 몸

부활할 때에 “천사들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도 동일하게 기록했습니다.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마22:29)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교리에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들, 특히 구원에 관련된 교리적 오류는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처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롬1:16)

우리가 누가복음의 특정한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 구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동등하게(equal)” 된다고 말한 반면 마태는 더욱 분명하게 “부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as)”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단어가 둘 있다면 바로 ~

처럼, ~같이란 말입니다. 이런 어휘는 “유사”(어떤 것을 비유로 말할 때)를 통해 어떤 진리를 가르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유사란 방법을 통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들을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라고 진술합니다. 이 구절 한 절만 가지고는 우리의 부활체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환상들을 많이 늘리며 또 비유를 사용하였노라.”(호12:10)

“유사”의 방법을 통해 공부하는 것, 즉 비교함으로써 유사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마태복음 22:30이 말씀한다면, 우리도 웅당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성(性)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C.I 스코필드는 천사들은 성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창세기 6:2에 주석을 달면서, 마태복음 22:30을 인용하여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는다는 말을 성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30절은 결혼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을 뿐 성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에 대한 다른 관련 구절들을 모두 찾아보면 천사는 남성이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과. 부활한 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들: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 문에서 달려 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창18:1,2)

계속 내려와서 22절을 보십시오.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서 있더라.”(창18:22)

자, 만약 독자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보면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9:1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명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 구절에서 천사들은 남자들이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로 사람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영어로는 men입니다.) 창세기 18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그들 중 한 명은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고 두 천사(사람)만 소돔으로 향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9:5을 보십시오.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네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남자들이 찾아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남자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15절을 보십시오.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천사들은 분명히 남자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관련 구절들을 면밀히 살펴 보십시오. 문맥에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은 머리를 흔들며,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어떤 사실에 접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어떤 것은 예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을 뒤엎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평범한 가르침을 거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사기 13:3을 읽어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13:6을 보십시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 결론은 “주의 천사는 남자입니다.”

사사기에 13:8은 마노아의 기도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man)을 우리에게 다시 와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라. 그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왔으나...”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천사는 남자(man)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놓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 할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서 있으며”, 23절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함이라.”

8과. 부활한 몸

마지막으로 계시록 21:17을 읽어 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매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백사십사 큐빗이더라.” 벽을 측량하는 사람^(man)은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2의 스코필드 주석에 나오는 “천사는 성이 없다”는 진술은 오류입니다. 천사는 중성이 결코 아닙니다. 천사들은 항상 남자로 나타납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창세기 6:1-6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카인의 후손임을 입증하려 했기 때문에 천사는 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오는 곳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언급합니다. 그 반면 스코필드 박사의 지지자들이 인용하는 구절은 이사야서 43:6입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사43:6)

이 구절에 대해서는 러크만 박사가 지적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간과한 7가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주석 성경의 오류를 밝히기 이전에 저는 스코필드 주석 성경(New Scofield 제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출간을 허락하신 매우 훌륭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편집자들은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었으며 미국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세기 이상 전천년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Old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관주에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관련하여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

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구절에 관해서는 명백한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 그들은 아담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어떤 혈통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요한복음 1:12의 말씀대로 그 형상을 영접할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1-3을 읽었다면 이 문제는 너무나 명료하게 풀릴 것입니다.

2. 그들은 이사야 43:6의 “아들들과 딸들”이란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으로 볼 때 단어가 다르고 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구절에 관련시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말하는 아들들과 딸들은 홍수 이전의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후손들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1:22, 26을 볼 것)

3.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창 6:2)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셋의 아들들과 카인의 딸들이란 말로 부주의하게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일부 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했다고 해도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왜 본문이 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입니다.

4. 만약 셋의 아들들과 카인의 딸들 사이에서 거인이 나왔다면 홍수 이후(창 6:4)에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카인의 딸들은 모두 홍수에 잠겨

8과. 부활한 몸

죽지 않았습니까?

5. 카인의 딸들이 셋의 아들들과 결혼하면 거인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때 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거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거인의 이미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성경에 나오는 거인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버리려고 합니다.(우리말 성경에는 용사라고 바뀌어 있거나, 네필림이라고 히브리어를 음역했음)

6.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카인의 후손들과 결혼한 셋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셋의 경건한 후손이란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경건한 후손이라면 그들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 66권에는 경건한 후손이란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단지 메시아의 출현을 가리키는 메시아의 계보만이 있을 뿐이며, 여러분도 알다시피 메시아의 계보에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음행자였습니다(창38).

파레스는 사생아였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밧세바는 간부였습니다(마11:6).

다윗은 간음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건한 계보가 있단 말입니까? 경건한 계보란 소위 사도권의 계승이란 말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7.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홍수가 끝나자마자 쓰인 율기에 의해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출12:38). 그들은 현재도 있으며, 아담 이전에 지음 받았습

니대(욥38:7). 이들은 사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용사들의 아들들(시86:6)은 시편 82:1의 신들을 가리키는 말임이 틀림없습니다. 문맥에서 홍수란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을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임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욥2:6,6:1,38:7을 주목할 것). 스코필드 박사는 어떻게 천사들이 여자를 알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2:30을 오해함으로써 천사는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남편과 결혼했던 여인에 대한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한 후 하늘에서 여자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리라.”(마22:30)

자세히 보십시오. 이 구절의 핵심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루는 창세기 6:2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2:30에 나오는 천사들은 창세기 6장과는 달리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온다면(창6장),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8과. 부활한 몸

에 관련된 모든 구절은 남성이지 중성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모두 남자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여자 천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다.

천사들이 날개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우리는 늘 날개 달린 천사들의 그림을 보아왔지만 성경에는 날개 있는 천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히13:1,2)

천사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평범한 보통 남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천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등에 날개라도 있었다면 누구라도 그가 천사인 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날개가 있다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성경 기자가 나그네 대접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날개가 있는 천사를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스가랴 5:5-11에 나오는 몇몇 피조물은 날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천사가 아니라 마귀들입니다. 날개가 있는 또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그룹과 스랍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좌 주변 외에 다른 곳에 날개 있는 영적 존재가 등장하는 예는 없습니다(출20:25; 겔10:5).

>>>천사들은 날 수 있다.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날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의 슈퍼맨처럼 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계14:6)

다니엘서에도 천사들이 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가 있습니다.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단9:21)

천사들은 날 수 있으며, 부활 때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되고 날개가 없이도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날 수 있게 됩니다.

》》》천사들은 긴 머리가 아니다.

천사들에 대한 오해 중의 한 가지는 그들이 긴 금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는 수백 년 동안 화가들이 그렇게 그려 왔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머리카락이 길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성화를 그린 사람들은 모두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히려 마귀들이 긴 머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9:8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마귀는 “여자의 머리 같은

8과. 부활한 몸

긴 머리” 차림입니다. 하지만 이는 천사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따르면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은 본성적으로 수치임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천사는 남자입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사람이 천사에 대해서 가진 개념이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천사들

사사기 13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보여 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행 27:23)

만약 우리가 바울이 누구를 섬겼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로마서 1:1을 읽으면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주의 천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갈4:14)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서를 보면 세 히브리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장면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단3:3).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단 3:25b)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읽어 보면 느부갓네살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단3:28)

여기서 “자신의 천사”라고 한 것은 25절의 하나님의 천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8:29,30)

8과. 부활한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글을 쓰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형상으로 변모되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물론 칼뱅주의자들이 말하는 주권적인 예정이 아님), 우리는 예정되었고, 부름 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며, 장차 영화롭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할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new Women's Lib Bible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구절들을 여성으로 바꾸어 버렸기에 신자들이 하늘에 계신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이란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3:1,2)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빌3:20,2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오실 때,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 없는 완전무결한 33세 반의

남성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21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의 몸이 그분의 영광스런 몸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그분과 같이 죄 없는 33세 반의 남성의 몸으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천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은 33세 반의 남자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30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이는 그들이 모두 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30-40세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는 아이들도 노인들도 없을 것입니다. 지상에서 불구자였던, 온몸이 타버린 채 무덤으로 들어갔든 상관없이 부활 때에는 죄 없는,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33세 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 씹지 않는 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씹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씹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 사람은 땅

8과. 부활한 몸

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나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고전15:42-50)

우리의 부활한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란 사실도 알았습니다. 천사들은 긴 머리카락과 날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배웠으며,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젊은 남성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42은 무덤에 들어 갈 육신을 “썩을 것으로 심고”(창세기 3:19에 있는 대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몸이 또한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집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은 그 후로 결코 지치거나 늙지 않는 33세 반의 건장한 남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길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 모릅니다.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Ponce de Leon(뽀세 데 레온)은 젊음의 샘을 찾아 평생을 허비했습니다. 영화배우들은 분장을 통해 늙어가는 모습을 숨기고 계속 젊음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몸은 계속 늙어서 더는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맙니다. 부활한 후 우리가 입을 몸은 그런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토록 늙지 않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젊음의 샘을 가지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5:12,13)

고린도전서 15:34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육신의 몸은 약하고, 죄성이 있고, 썩을 것이며, 전혀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무덤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롬7:18). 로마서 7:24에 이르기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영적인 몸은 영광 가운데 능력 있고, 죄 없고, 썩지 않을 몸이 될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신자들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스런 새 몸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죽음과 슬픔, 비참함과 고통을 전혀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사라집니다. 실망과 마음의 고통과 잊을 수 없는 비극과 같이 우리의 생을 지배하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시 슬픔이 없고, 우리의 눈물은 깨끗이 닦여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계21:4)

8과. 부활한 몸

이사야는 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 각나지 아니하리라.”(사65:17)

계시록 21장의 흰왕좌 심판이 끝난 후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 드실 때, 주님은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며, 이전의 일들을 기억에서 지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시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우 리가 사랑하던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 대한 기억은 없을 것이며, 또한 그 들에 대한 슬픔과 연민도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지금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21:4이 되기까지 저 하늘에도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기회들을 다 놓쳐 버린 채 서 있을 때,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눈물을 흘 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육신으로 행한 일뿐이어서 나무와 쥘과 건초로 드러나 모두 불타 없어질 때, 영적인 줄 알고 행했던 것이 그 령게 판명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흰왕좌 심 판 때에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불못으로 던 저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 는 친구들과 친척들, 내가 지나쳤던 수많은 혼들이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 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것조차 게을리했 고, 그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줄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면 슬 픔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43, 44에서 무덤으로 가게 될 육신의 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고전15:44)

우리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 즉 영적인 몸을 입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님께서 영적인 몸이라고 말할 때, 그분은 실제적인 몸을 입으셨으나 그 몸은 영적이었으며, 초자연적인 삶과 뼈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39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었음을 말합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누가복음24:39)

제자들은 그들이 영을 보았다고 생각했으나^(눅24:37),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자신을 만져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런 몸이 살과 피로 된 몸이 아니라 살과 뼈로 된 몸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에베소서5:30)

여기서 피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분은 피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피를 흘리셨기 때문

8과. 부활한 몸

입니다. 로마서 8:29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영광스런 몸이 그분과 같다면 그분의 몸에 피가 없었듯이 우리의 몸 역시 피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50은 말하기를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살과 피가 아닌 살과 뼈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피는 우리의 노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레위기17:11). 죽을 때, 모든 피는 말라 버린 채 그대로 있다가 무덤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의 새 몸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요3:36을 참고할 것).

우리의 새 몸은 초자연적인 살과 뼈를 가지고 있으며,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8-17을 보십시오. 엘리사와 그의 종은 시리아 군대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죽을까봐 겁을 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나머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왕하6:16b)

물론 그 종은 엘리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 절망에 빠졌을 그 종을 쉽게 마음속에 그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곤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시리아의 대군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종에게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여 주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보라,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 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왕하6:17)

주님께서 그 종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셨을 때, 자신과 엘리사를 둘러싼 시리아 군대보다 훨씬 큰 군대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가진 시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몸을 입을 때 우리의 시력은 영적인 것을 모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만화 책에 나오는 투시의 눈을 지닌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슈퍼맨은 매우 강하고 무적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의 몸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입을 몸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하셨고, 그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잠깐 멈추었습니다(눅24:23-31). 누가복음 24:31에서 그들은 여전히 먹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즉시 사라지셨습니다. 주님은 커튼 뒤나 벽장에 숨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육신의 시력이 미치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런 몸을 입는다면 영적 세계와 육신적 세계와의 단절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매”(눅24:36,37)

8과. 부활한 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두려워했습니까? 왜 그들은 영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까? 대답은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요20:19,26)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요한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음이 틀림없습니다. 두 구절에서 요한은 문이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문을 굳게 걸어잠근 채 제자들이 한 방에 둘러앉아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박힐까봐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매우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는다면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음대로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 주변에 모여 있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스타 트랙(Star Track)’이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간 이동을 할 때 몸이 원자 단위로 해체되었다가 어떤 장소에서 다시 결합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세상은 항상 성경의 기적들을 이상하게 위조하여 흉내 냅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나면, 실제로 지구의 어느 장소라도 가고 싶은 곳으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어느 때라도 사라졌다가

원하는 장소에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몸을 입고서 우주여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주의 각 행성들을 돌아볼 수 있고, 이층천을 지나 삼층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학이 꿈꾸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¹⁶⁾.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요20:17)

주님은 부활하신 아침에 마리아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아직 아버지께 갔다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우주 공간을 훨씬 뛰어넘는 머나먼 거리입니다. 19절을 보면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8일 후에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요20:27)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아무도 그의 몸을 만질 수 없었다면, 주님께서 만지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날 바로

8과. 부활한 몸

다녀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로켓의 도움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녀오셨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아왔느니라, 하니라. 네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네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 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단9:21-23)

천사 가브리엘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지구에 있는 다니엘에게로 출발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보이저호가 지구를 떠나 토성에 도착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가브리엘이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광속보다 빠르게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 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나도 알리라.”(고전13:10-12)

여기서 “그때”란 말은 온전한 것이 올 때를 말합니다. 바울은 희미한

➔ 성장을 위한 첫걸음

거울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현재 우리의 제한적인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인간의 두뇌 가운데 있는 1입방 큐빅에 들어 있는 신경 조직을 펼치면 달까지 오고 갈 만큼의 길이란 사실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두뇌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두뇌 용적은 무제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지식과 지각을 부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찾으며 알고 싶어했던 모든 것들을 단숨에 알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새 몸은 결코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찍지 아니하리니”(계7:16)

우리는 결코 다시 목마르거나 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칼로리를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먹기를 즐긴다면, 먹는 즐거움을 위하여 먹으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집수시더라.”(눅24:42-43)

8과. 부활한 몸

그분은 영광스런 몸을 입고 먹으셨듯이, 우리 또한 영광스런 몸을 입고 먹을 수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똥보나 갈비씨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건강한 몸을 지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골1:27)

구원받은 여자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남자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여자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17에서 “주는 그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남성들 안에 거하듯이, 구원받은 여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남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요1:12). 영광스런 몸을 입으면 여자들은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는 약한 그릇이 아닙니다. 더는 지상에서처럼 남자 아래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고전 11:18, 창2:23-24).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남자를 빚으셨습니다. 여자를 지으실 때는 이미 창조해 놓은 남자를 통해 지으셨습니다. 최초의 여자의 이름은 Mrs. Adam이었습니다. 창세기 5:2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3:20에서야 그녀를 이브라고 불렀습니다. 지상의 어떤 여자도 자신의 독자적인 성(姓)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성(姓)을 따르든지 아버지의 성(姓)을 따릅니다. 여자, woman이란 단어는 “자궁”(womb)을 가진 남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자궁을 가진 남자(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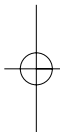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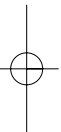
베드로가 여자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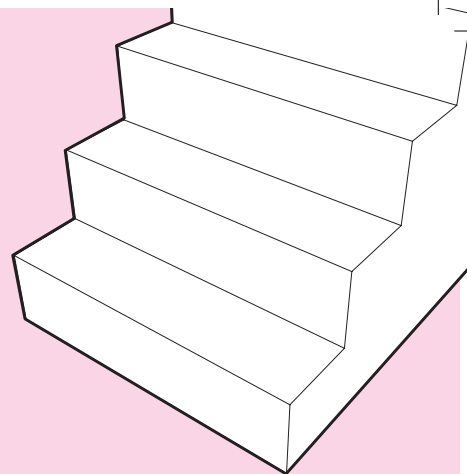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벧전3:4)

베드로전서 3:4에서 베드로는 “감추어진 사람^(man)”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구원받은 여자들은 이미 자신 속에 “사람^(man)이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2:5)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 우리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겉사람이 변화할 것입니다(롬8:29, 빌3:20-21, 요일3:1,2).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주님의 형상과 일치하여 변화할 것입니다.



8과. 부화한 모





chapter 09

교회의 휴거

이번 과에서는 교회의 휴거에 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참조 구절은 고전 15:51-55, 살전 4:14-18, 계 4:1-4, 요 11:25-26, 아 2:6-10, 욥 37:1-4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찬송 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며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신 그분”께서 돌아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참된 모든 신자들에게, 대단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곧 돌아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지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휴거에 대해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9과. 교회의 휴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요일 2:28)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분께 맡긴 모든 것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확신(딤후 1:12)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해 회계 보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벧전 4:10, 고전 4:1,2). 우리는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을 당하기 원치 않으며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다음의 훈계를 숙고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막 8:38).

>>>그리스도의 몸

8과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모든 신자들이 입을 부활의 몸

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천하고, 죄로 가득 찬 육신의 몸을 그분 자신과 같은 완전하고 죄 없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을 떠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늘에 가서 우리의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된 영적인 몸을 계속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땅 위에 존재하는 소위 '보편적인 에큐메니칼 교회'라고 불리는 것과 이 몸을 혼동하지 말 것).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성령께서는 그를 영적인 몸의 한 부분으로 만드시고, 하늘에 그의 고향을 마련하십니다(요 14:1-3, 엠 2:6). 이 영적인 몸의 구성에 사람의 외모에 따른 차별이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이와 대조적으로,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방인의 사도)에게 계시될 때까지는 큰 신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려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9과. 교회의 휴거

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엡 3:1-7)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 영적인 몸의 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맏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고전 12:12-14)

물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 1:22,23)

교회 시대는 약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에 하신 약속의 성취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행 1:5)

성령께서는 신자들을 그분의 몸인 교회(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몸)에 침례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신자들은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몸이 완성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통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라는 말은 멀리 데려감을 당함, 위로 낚아 채여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랜덤 하우스 웨스턴 사전 1992년)

>>>사망의 권능

신자가 죽을 때 그의 혼은 하늘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몸은 무덤에 가서 썩게 됩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스런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능을 가진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몸을 무덤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갈보리 이전에 사탄은 사망에 대한 권능을 가졌지만 갈보리 사건 이후에 사탄은 그 권능을 잃게 되었습니다.

9과. 교회의 휴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히 2:14)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계 1:18)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면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장면은 유다서에 기록된 것과 유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유 9)

모세가 죽었을 때(신 32:5,6) 모세를 장사 지내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우리는 주께서 나중에 모세의 몸을 부활시켰음을 배웁니다. 사실, 우리는 마태복음 17:1-5절에 변형 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모세의 몸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하셨을 때 천사장 미가엘은 그의 몸을 일으키는 일로 인해 마귀와 다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 당시에 아직 사망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몸을 주장할 권리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다투었던 것입니다(주께서는 아직 그 몸의 구속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주께서는 단순히 마귀를 꾸짖으시고 어

찢든 모세의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다름이 없이 모든 신자들의 몸을 당장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그분의 말씀의 권능으로 무덤에서 문자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예수님 자신과 같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밀레니엄”(밀레니엄은 휴거와 환란에 이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땅에 속한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돌아오실 때를 말합니다. 라틴어로 “밀”(Mil)은 1000을 뜻하고 “에넘”(annum)은 연도를 뜻합니다. 이 사건은 계시록 20:1-6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나 “삼위일체”(세 인격이신 아버지, 아들, 성령님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단일성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공통적인 표현)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 또한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는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우리는 그 단어가 이러한 교리들을 너무나 잘 묘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죽지 않을 몸

이전에 배운 부활한 몸에 대한 내용은 이번 주제인 휴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몸이 무덤으로부터 들려 올라가는 순간, 그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고전

15:42-52)

9과. 교회의 휴거

>>> 바울에게 계시된 신비

신약에 언급된 일곱 신비들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시대) 그것은 사도 바울에 와서는 비로소 이해가 된 것입니다. ^(롬 16:25, 엡 3:1-7)

“바울에게 계시된 또 다른 신비는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 15:53)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고전 15:51)

우리가 8과에서 부활한 몸에 대해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새로운 몸이 어떠한 피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던 중에 휴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고전 15:52)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들 위에는 옷만이 남아 있고, 수백 겹의 피가 마룻바닥에 넘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사건이 될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참된 인생이 시작될 것이며 고난과 시련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성장을 위한 첫걸음

성령에 의해 영감 받은 구약 선지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에게 계시하실 때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그들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썼다는 것은 성경의 신적 영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딤후 3:16)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벧후 1:21)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선지자들이 종종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기록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벧전 1:11,12)

구약 선지자들은 교회시대와 교회의 휴거에 대해 어떤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고전 15:51)

바울은 우리가 모두 죽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51절에 “잠자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요 11:11-14절에서 더 명확하게

9과. 교회의 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죽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신자의 미래 부활에 대해서 쓰고 있는 바울은 우리가 “모두” 잠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죽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복된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중에 돌아오신다면 우리는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변화되리라.” 휴거가 일어나면 어떤 신자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며 어떤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요일 3:1-3, 빌 3:20-21) 이 모든 것들은 눈을 깜짝거리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고전 15:52)

“눈 깜짝할 사이에”라는 것은 눈을 실제로 깜짝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을 깜짝거리려고 시작할 때의 눈의 움직임입니다.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약 1초의 천분의 1 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빠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휴거가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날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당신과 같은 테이블을 가로질러 앉아 있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만약 그들이 눈을 깜짝거렸다 할지라도 당신의 사라짐을 인지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the Trump of God)

52절에 나오는 나팔 소리라는 단어는 적지 않은 성경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문맥을 살펴봄으로써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기보다는 변개된 성서들을 따라 그 단어를 나팔(trumpet)으로 바꿔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확한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정확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trump)는 단순히 나팔의 음성입니다.

어떤 자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15:52에서 언급하는 나팔은 계시록 11:15절에 나오는 대환란이 끝날 때 부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은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말하고 있음에 주의하십시오. 마지막 나팔소리와 마지막 나팔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재림 때의 마지막 나팔이 내는 음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휴거 때에 들려질 특별한 나팔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개된 성서들은 여기에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교회가 미래의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라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살전 4:16)

주님은 마지막 나팔(trumpet)이 울려 퍼질 때가 아닌 이 특별한 마지막 나팔소리(trump)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9과. 교회의 휴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고전 15:52)

그분께서 마지막 나팔소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팔이 한 번 이상 울려 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울려 퍼질 것이고 다음은 살아 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고전 15:52)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과 살아 있는 성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하실 때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요 11:24-26)

☞ 첫 번째 부류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죽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살게 될 것입니다.

☞ 두 번째 부류의 신자들은 결코 죽지 않을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아직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고전 15:52절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주목하십시오(바울은 열렬하게 자신의 생애 동안 휴거가 일어나기를 고대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죽음을 보기 전에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자신을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바울의 깊은 열망은 그에게 의의 왕관(5과를 보십시오. - 신자의 심판. 의의 왕관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딤후 4:8))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전 15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 15:53)

다시, 우리는 휴거될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첫 번째 부류인 “이 썩을 것”은 지금 죽어 있는 신자들을 언급합니다. 몸이 무덤에 있는 자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새로운 몸은 무덤에 들어갔던 썩을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은 결코 늙지 않고, 슬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죽지 않을 몸입니다.

그 구절의 나머지는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함이라”) 두 번째 부류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mortal(죽음)”이라는 단어는 “죽음에 종속함(subject to death - 우리의 육신의 몸에 속하는)”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일시적으로 죽음에 종속하는 몸에 거하는 죽을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돌아오시면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은 죽음에 종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라고 말씀하

9과. 교회의 휴거

셨습니다. (눅 20:36)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고전 15:54)(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사야 25:8에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죽음은 승리 속에 삼켜짐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전에 결코 불러 본 적이 없는 승리의 노래를 예수님 안에서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 대해 승리를 얻으셨고, 그 승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오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승리가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구속의 피로 나를 구하셨고 나를 사셨도다,
그분께서는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셨도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께서 나를 승리로 정결케 하는 홍수 아래로 던지셨도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 15:55-57)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시점에 아직 살아 있는 신자들에게는 사망의 어떤 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무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에게 어떠한 승리

도 쟁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그들을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권능으로 무덤에서 그들의 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힘은 율법이며 그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일 3:4)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며,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알려 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롬 4:15, 5:13, 그리고 7:7을 보십시오.)

휴거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 때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영원히 육신에 대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하는 모든 신자라면 다음의 구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전 15:58)

➤➤복된 소망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휴거라는 놀랍고도 기이한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9과. 교회의 휴거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3-18)

잠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 11:11-14)

위로하라는 것은 권고하거나 격려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가 구원받았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보다 그들의 복된 구주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훨씬 행복합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않은 자가 죽어 그들의 사랑하는 자를 떠나면 남은 자들에게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게 되며 큰 비극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믿는 자에게 있는 위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없고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엡 2:12)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대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얼마나 다릅니까? 죽을 때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의 풍요함이 준비된 하늘에 가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소망은 우리가 봄이 일찍 오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라는 무엇인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쓰이는 소망은(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결코 그저 어떤 것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자신감, 확신, 또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가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바라는 것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인 확신과 예상과 함께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다른 거짓 종교들은 구원은 믿음과 행위에 의해 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해서도 “아마도”, “가능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단어를 결코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요일 5:12-13) 그의 확신의 토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 5:12,13)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몸, 즉 주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돌아오실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낡고, 죄 많고, 일시적인 몸을 벗

9과. 교회의 휴거

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아직 유혹과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시는 죄에 복종하지 않는 새롭고 죄 없는, 완전한 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언젠가 그분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합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몇몇 다른 예들이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자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행위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구원받기를 희망하는 구절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도록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롬 8:23,24)

어떤 자들은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절을 우리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소망할 수 있다(역주 : 구원이 여전히 희망 사항 단계로, 아직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23절과 24절을 함께 읽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다. 신자들의 혼은 지금 구원받은 상태인 반면에 우리는 아직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휴거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는 우리가 입게 될 미래의

부활할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요일 3:1-3)

2절은 우리의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미래 사건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디도서에서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딤후 2:11-13)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복된 소망”은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9과. 교회의 휴거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
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딤후 1:1,2)

“영생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복된 소망이며, 이때 우리는 결코 죽
지 않을 새롭게 부활할 몸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영생을 지금 가
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결코 죽지 않을 몸을 주시겠다고 약
속하신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히 10:23)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벧전
1:13)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에 대해 끝까지”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
까지 소망하는 그 “은혜”는 새로운 몸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
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골 1:3-5)

우리가 추구하는 이 소망은 이미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얻을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하늘에 우리를 위해 쌓여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고 언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얻을 것인지가 돼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지옥으로 향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무덤을 제외하고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일어나셨고 우리는 그러한 복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13-20)

9과. 교회의 휴거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그분께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이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18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도 더 비참한 자들일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20절)

>>> 우리의 지체와 다시 결합하다

비록 신자의 혼은 지금 구원받은 상태지만, 그의 몸은 휴거 시에 구원받기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살전 4:14)

고전 15:1-4절에서 바울이 제시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염두에 두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이제까지 죽었던 모든 신자들의 혼을 다시 데려오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살전 3:13)

➔ 성장을 위한 첫걸음

신자가 죽으면 그의 혼은 몸을 떠납니다. 그 혼은 셋째 하늘에 가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 혼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입혀 주실 때까지 거기에 남아있게 됩니다.

죽을 때 혼이 몸을 떠나는 또 다른 예를 창세기 3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할 때에(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나민이라 하였더라.”(창 35:18)

다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빌 1:21-24)

바울은 만일 그의 유일한 소망이 무덤에 가는 것이었다면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에 자신의 영원한 본향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을 그곳을 언제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썩을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가지 않습니다. 그 죽은 몸은 무덤으로 가지만 그 몸을 떠난 혼과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

9과. 교회의 휴거

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후 5:6-8)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혼은 우리의 몸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무덤이라고 가르치는 자들과 혼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무의식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찰스 릿셀의 이단,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헬버트 암스트롱의 이단, 하나님의 교회) 신자의 죽음과 관한 한 다음 두 가지 사실은 매우 명백합니다.

- 1, 죽을 때 그리스도인의 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 2, 지옥은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살전 4:15,16)

바울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영어 단어인 “prevent”는 앞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실 때에 아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어 있는 자들보다 먼저 휴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 스스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덤으로부터 문자적, 물리적, 신체적인 부활을 한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인격적, 물리적인 나타나심입니다. 이 휴거와 부활이 일어날 때 무덤은 문자적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일어났던 부활에 대해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마태가 기록한 것을 보십시오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 27:52,53)

이처럼 휴거는 동일하게 교회 시대의 끝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은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은 하나의 호령(a shout)과 함께 시작될 것이며, (살전 4:16)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모형인 사도 요한이 하늘에 들려 올라갈 때 들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요한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계 4:1)

이것은 교회(그리스도의 몸)의 휴거를 알리기 위한 나팔 소리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주목하라. 다시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두 증인(모세와 엘리야)이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

9과. 교회의 휴거

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계 11:12)

나는 교회가 휴거될 때에도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는 음성을 또한 들을 것으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들을 따를 것이고 공중에서 함께 우리의 구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덤이 이제는 죽은 자들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모두 자연의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날아가게 되다니!! 더욱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분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주님께서 또한 신자들 각각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요 10:1-3)

확실히, 여기에 나오는 “양”은 신자들을 나타내고 있고 양을 밖으로 인도하는 것(leading out)은 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또한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날 존 스미스(이 시리즈의 저자)는 한 음성을 듣습니다. “존 스미스, 이리로 올라 오라” 그와 동시에 그가 끌려 올라 갈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우리는 모두 눈 깜짝할 순간에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은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신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아마 요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들이 천둥이 치는 소리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요 12:28,29)

그 음성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천둥소리 같은 음성만 들은 사람들은 잃어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순히 천둥소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들을 실제로 듣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분께서 부르시는 말을 들었다면 그들도 또한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 1:3, 시 33:9)

살전 4:16절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카엘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천사장입니다. 우리는 유다서 9절에서 그가 모세의 몸으로 인해 마귀와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읽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천사장이 무슨 말을 할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마귀가 모세의 부활 때에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우리의 부활 때에도 어떤 방해를 시도할지 모

9과. 교회의 휴거

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다서 9절에서 했던 것처럼 미가엘은 동일하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 우리의 대적, 마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마 12:25-29)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나 불결한 영을 지녔다고 고소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눈멀고 귀머거리가 된 사람으로부터 마귀를 쫓아내신 것을 보았습니다.(22절) 그러나 그들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불(사탄의 또다른 이름)을 힘입어 마귀의 권능으로 그 기적을 행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강한 자”는 사탄이고 그의 집은 세상입니다. 고후 4장에 보면 바울은 사탄이 이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강한

자의 재산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
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후 4:4)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
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바울은 또한 “마귀의 덫”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딤후 2:26) 이 구절은 사탄에게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능이 있음을 암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습
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신뢰하는 모든 자는 그분의 피
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요 12:31절과 16:1
을 비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곤 마귀를 멸하시고”(히 2:14)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
리로 삼으셨느니라.”(골 2:15)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사탄을 정복하셨고, 그분께서는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돌아오실 때 문자적으로 사탄을 결박하실
것입니다.

9과. 교회의 휴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계시록 20:1-3)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그분께서 밤에 도둑처럼 오실 때에 발생할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모르나.”(살전 5:2)

예수님께서서는 두 명의 도둑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병사들이 켄세마네 동산으로 그분을 잡기 위하여 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막 14:48)

그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 돌아오실 때 그분은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를 선택할 것입니다. 즉 가장 예기치 못한 시간에 침입해 집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훔치는 도둑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몸을 낚아채시는 분으로, 무덤을 강탈하는 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유다서 9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방해하려 한 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전 4:16-17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구절은 나팔이 한번 울려 퍼질 때를 의미하는 것

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무덤들이 열려서 그들의 새로운 몸이 밖으로 나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구름 속으로까지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이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 고전15:52) 그러면 모든 살아 있는 성도들의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 함께 끌려 올라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17)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가장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을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이 한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자들과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날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결국, 한 가족의 재회는 어머니, 아버지, 누나, 삼촌, 숙모가 없다면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눈물로 우리 가족이 하늘에서 재회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슬퍼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전 4:13,14)

17절에서 바울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

9과. 교회의 휴거

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돌아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함께 이 지구상에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유업에 대해서 공부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통치는 우리가 벌어야 하는 보상입니다. (딤후 2:10-13, 골 3:23-25, 롬 8:16-18) 영생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특권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살전 4:17절에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돌아오실 때 땅에 발을 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는 구름 속 어딘가에 계실 것이고 우리는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갈 것입니다.

그 시기는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돌아오시기 적어도 7년 전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지난 후에 그분께서는 올리브 산 위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이 완전히 분리된 사건은 재림 또는 주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 첫 번째는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오시는 것 - 휴거

☞ 두 번째는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이 땅 위에 자신의 천년왕국을 세우는 것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실제로 재림하시는 시간에 대한 구절 : 속 14:1-4, 계 11:15,

19:11-16)

>>> 위로의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8)

“이 말씀들”(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은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들을 잃은 신자에게 큰 위로의 원천이 됩니다. “이 말씀들”은 이 낡은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현 세상에서 고통 받고 죽어 가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로 하여금 구속자의 돌아오심을 사모하게 하며 그로 인해 왕관을 얻게 합니다. (의의 왕관 - 딤후 4:8)

성경은 죽음에 닥친 신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주는 세상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물몬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도 주지 못합니다. 탈무드(유대인들이 쓴)는 어떤 위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교도의 코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책들은 모두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그가 하늘에 갈지 못 갈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카톨릭 교도도 마찬가지로 위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연옥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옥 - 성경에는 없는 로마 카톨릭의 발명품, 그것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회개한 혼들이 형벌의 시기를 거쳐 죄들을 정결하게 씻은 후 하늘에 갈 준비를 하는 죽음 후에나 가는 장소나 상태)

여호와와의 증인도 지옥은 무덤이고 그가 죽으면 무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무의식적인 상태로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무신론자도 확실히 어떠한 위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인생이 무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휴거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휴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구절을 둘 찾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솔로몬의 아가에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쓴 구약 선지자들은 자기가 진정 무슨 내용을 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9과. 교회의 휴거

왜냐하면 교회는 수백 년 후에 사도 바울에게 계시될 때까지는 신비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러브스토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 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와도 같고 젊은 사슴과도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멧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아 2:8-12)

“나의 사랑하는 자의 음성(8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보라, 그분께서 오시나니”(8절) 이것은 신부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창문(windows - 9절)은 하늘의 창들(창 7:11)을 통해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격자창”(lattice)은 창 의 빔장으로,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쳐다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일어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10절) 이것은 신부를 데려가시는 것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11절과 12절은 휴거가 봄이나 여름철에 일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시대는 행 2장에 오순절 날에 시작을 했고 아마도 동일한 시기에 끝날 것입니다. - 즉 4월이나 5월

“비도 그치고”(11절)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이른 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4월과 5월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휴거의 정확한 날짜를 맞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때나 시기(the times and the seasons)”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살전 5:1,2) 나는 솔로몬의 아가에 있는 이 구절이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이 신랑이 언제 오실지 기대할 수 있는 때와 시기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 심장도 떨리고 제 자리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그분께서 그 소리를 온 하늘 아래에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번개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번개가 있는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빼어난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내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욥 37:1-4)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2절)
이 구절은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분에게서 “그분께서 그 소리를 온 하늘 아래에 이르게 하시며”(3절)

그것 (소리 - 영어로는 “it”)이라는 단어는 그분의 음성의 소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 아래”는 땅 위에 있는 백성을 겨냥한 그분의 음성의 소리를 언급합니다.

“그분께서 그 소리를 온 하늘 아래에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번개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욥 37:3)

욥기에 있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휴거가 빛의 섬광을 동반할 것이고 그것은 온 세상에 드러나 보일 것을 알 수 있습니다.(아마도 번개처럼) 그것은

9과. 교회의 휴거

뇌우와 같을 것입니다. 양극과 음극 전하가 구름 아래의 한 지점으로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번개라 부르는 자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극은 아래로 흘러서 이온화된 입자의 구멍을 만들고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번개가 치기 전에 무엇인가가 이온에 의해 형성된 이 관을 통해 올라갑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 이 지구상의 대기권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빼어난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욥 37:4)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천둥처럼 들릴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음성 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요 12:28,29)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 거대한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아마 코발트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을 것이고 섬광을 동반한 번개가 온 세상에 보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관을 통해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욥 37:4) 여기서 “멈추게”(stay)라는 단어는 “억누르다(restrain)” 또는 “붙들다(keep back)”를 뜻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 그 어떤 것도

하늘로 가는 그 성도들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성도들은 땅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고 - 그들은 그분의 음성에 복종할 것입니다. - 구름 속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올라갈 것입니다.

루이스 탈봇은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세상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졌을 때 뭔가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한동안 큰 동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헤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남편들은 자기의 크리스천 아내가 어디에 갔는지 의아해할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아내들은 자기의 크리스천 남편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의 크리스천 아들, 딸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어린 자녀들은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밤에 도둑처럼 그분께서 오실 것입니다. 구속 받은 자들의 귀만이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의 모든 가족은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돌아오실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은 이러한 복된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가? 그리스도께서는 빛나는 새벽별처럼 자신의 교회를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새벽별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밤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납니다. 세상은 지금 죄와 혼돈과 무법과 전쟁의 소문이라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느 때에 새벽별이 나타날지!! 당신은 열렬히 그분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있는가? 그분께서 의의 태양으로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오실 때(말 4:2)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성도들을 위해 오실 때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실 것이고 우리는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오심에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9과. 교회의 휴거

믿음으로써, 그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로 당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여, 당신은 빛나는 새벽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혼은 얼마나 큰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 오시는 그분의 나타나심에 대해 증거하는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전 4:13-18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잠든 사랑하는 자들에 관해 위로와 소망을 발견합니다. 16절 초반부는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또는 어떤 천사들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호령과 함께 하늘로부터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계 4:1) 하시면서 초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첫 마디는 ‘나에게 오라’ 일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다시 “호령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 죽음과 무덤에 대한 승리의 호령

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오실 때 “나의 구속 받은 자녀들아” 이리로 올라오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곳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3백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카타콤에 매장돼있다고 추정됩니다. 바다에, 무덤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든 곳에 묻혀 있을 무수한 숫자들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도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 있는 모든 성도들은 변화될 것이고 옮겨질 것이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친구여! 결코 죽지 않을 그 무리 속에 당신도 포함되고 싶지 않습니까?

➔ 성장을 위한 첫걸음

‘그들과 함께 -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 구름 속으로’ 즉 “성도들의 구름들” -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신 아주 사랑스러우신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덧붙인 것에 대해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전 15:55절에서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가 기록한 것에 대해 궁금하지 않습니까?(고전 15장을 모두 주의 깊게 읽어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가지 신비를 보여 주노니’ (이때까지는 이에 대해 아직 어떤 것도 계시되지 않았습니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록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고전 15:51,52) 나는 그날에 피곤함이나, 고통, 고난, 슬픔이 없는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모두 약함에서 권능으로, 죽음에서 불멸로, 굴욕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자연적인 몸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빌 3:21)

지금 우리는 이 땅의 더러워진 길거리를 밟고 있지만 그 날에는 새 예루살렘의 황금 길을 행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경건과 세상 욕망들을 부인하고, 이 현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경건하게, 복된 소망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살도록 하십시오.

(루이스 탈봇 “시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판권 1936년)

➤➤➤ 결론

9과. 교회의 휴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견고하게 자리잡아, 당신의 삶이 자기 생애 가운데 그분께서 오시기를 기대하는 바울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십시오. 매일 마치 그분께서 오늘이라도 돌아오실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의의 왕관을 받을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하십시오.

☞ 우리는 아래로 데려갈 자(undertaker)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 데려갈 자(uppertaker)를 찾는 것입니다.

☞ 우리는 흙덩이(더러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름을 찾는 것입니다.

☞ 우리는 표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처럼)

우리는 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일어날 사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와 구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분입니다.

다음 과는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교리적 적용과 함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킹 제임스 1611년 권위역본으로 아무런 오류 없이 보존하셨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또 다른 사건이 다가올 터인데 그것은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다가올 어린양의 혼인식, 재림, 민족들의 심판, 천년왕국, 흰왕좌 심판, 그리고 영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 성장을 위한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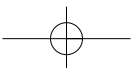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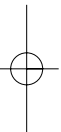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총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엡 4: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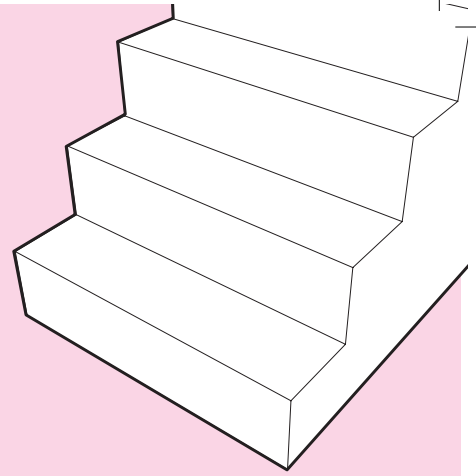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새신자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 교리와 이단을 퍼뜨릴 자신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연구 시리즈는 자신의 믿음을 성경에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신자들을 도와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훈계로 그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어떤 이단이나 거짓 교사에게 먹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엡 4:15)



9과. 교회이 휴거





chapter 10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I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
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
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 2:15).

16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I



우리가 바르게 나누어야 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요 17:17) 말씀을 올바로 나누려면 성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 매일 장 단위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인물들에 대해 친숙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연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한 가지 방법은 특별한 주제나 성경의 어떤 구절을 선택해서 그것과 관련되는 모든 구절을 공부함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성경에 나오는 관주, 성구 사전, 주해 성경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구절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그 주제나 구절에 대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

라.”(고전 2:12,13)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것들”이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함으로써 가르칩니다. 이것은 진정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사용해 온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신자에게 약속된 부활의 몸에 관해 공부할 때 우리는 그 주제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맥에 주의하면서 각 구절들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모호한 구절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에 비추어서 해석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성경이 미래의 부활할 몸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베뢰아의 신실한 사람들(행 17:10,11)은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칭찬 받았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행 17:11)

우리의 믿음에서 최종 권위는 항상 성경 그 자체이며,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 주석도 성경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배우고 당신의 연구를 기도에 담그시기 바랍니다.

16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I

성경을 진지하고 깊게 연구할 때 거기에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고 새로운 교리들을 배우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대신에 각 신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매일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잠언에 기록된 지혜를 봅시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잠언 11: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써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 성경에서 기도에 관해 배운 것은 기도할 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 거룩함에 대해 배운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 구령에 대해 배운 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실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10:8))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성경 연구 자체에만 보낸 나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배운 진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형성도 못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약 1:22-24)

야고보는 성경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봅니다.^(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과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 말씀들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믿고 순종할지 아니면 불신 가운데에 거부할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연구와 그 진리를 반영하는 삶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데 헌신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 빛은 새로운 진리일 수도 있고 옛 진리를 다시 비추어주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새로운 진리와 옛 진리가 그렇게 그들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들 안에서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만나 뵈지 못합니다.”

박스터(J. Sidlow Baxter)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과.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I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주제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성경 연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 놀라운 옛 책(성경)에서 크고, 광대한 의미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의미가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연구는 그 목적을 상실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분께서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너머로 살아 있는 말씀이신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 극단으로 치우침을 경계하라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선한 활동조차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음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1. 첫째는 지성적인 기독교입니다.

이미 언급했던 고귀한 베뢰아 사람들과 대조되는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행 17:21)라고 묘사된 그룹입니다. 그들이 연구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삶을 살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동기는 오로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리고 성경과 모든 지식에서 얼마나 큰 권위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보다는 지식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 대해 거의 실행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주제와 관련된 교리를 발전시킵니다. 이것이 우

리가 부르는 지성적인 기독교입니다. 지식이 전부이며 사랑은 없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온종일 집에 앉아 성경을 연구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책벌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훈계는 아직도 참된 것입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 주느니라.”(고전 8:1)

구령, 매일의 기도,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 이러한 노력들 하나하나는 성경 연구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 다른 모든 것들은 무시하고 하나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거짓 균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잘 안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일학교나 가정 성경 공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라고 훈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친히 가르치시는 분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경 지식으로 우쭐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바를 선했던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10과. 많음을 오히려 나누어 I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눅 10:30-37)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바라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 다.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의식을 실행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느라 시간을 보내지만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떠한 동정도 품지 않았고 긍휼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또한 너무 종교적인데 몰두하는 나머지 사랑, 동정, 긍휼을 보여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주님의 종이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앞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마 20:28)

주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혼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 성장을 위한 첫걸음

고 인도하신다는 걸 느꼈지만 당신은 단지 너무 바빠서 바로 그때 멈추지 못하고 그에게 동정심을 보여주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모두 최소한 한 번, 또는 두세 번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억눌러 본 경험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게 하신 대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 손 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금하지 말며 네게 그것이 있거든 네 이웃에게 이끄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고”(잠 3: 27-28)

진지한 신자라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더한층 깊이 탐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다음 경고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 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히 13:9)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함을 압니다. 그것은 젖(단순한 것들)을 제공하며 단단한 음식(깊은 것들 - 히 5:12-14)도 제공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더 좋은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함으로써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교리, 특히 음식(유대인의 율법하에서 금지되거나 허락된 것들)에 대

16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I

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음식들-의 식적인 것들-율법의 문자)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그들의 마음이 은혜(영적인 것들-율법의 영적인 면)로써 굳게 해야 함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거짓 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상한 교리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에 전념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증거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까지 등한시하게 하는 성경 연구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삼상 16:7)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보낸 시간은 항상 시간을 잘 쓴 것이며,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대주의, 예언, 대환란, 적그리스도 등에 너무 전념하느라 증거하는 일과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우리는 사랑을 먼저 구해야 하며, 그다음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 주느니라.”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지식은 전문가이지만 사랑(행위 면에서)이 없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러한 사랑에 대하여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고전 13) 우리는 사랑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그 장을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단단한 음식으로 먹여야 하지만 우리의 마

음은 은혜로 굳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 13:9)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교사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것은 연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으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림으로써 파선한 어떤 신자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러한 교사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율법 선생이 되어서 그들은 교사로서 인정받고 추종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단지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주는 꼴이었습니다. (고전 8:2) 지식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놀라운 요소인 사랑이 결여되어 있을 때 교만을 일으킵니다.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딤후 1:5-6)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상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딤후 1:14)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

16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I

니라.”(요 13:3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롬 5:5)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고전 8:3)

2. 둘째는 감정적인 기독교입니다.

둘째로 극단에 치우진 것은 지식을 무시하고 사랑과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감정적 기독교입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명백한 불균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그분의 뜻)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걷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걷고 있는 것이며(롬 8:1-4, 갈 5:16)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요일 2:15-17)

이러한 세속적인 신자들의 영적 생활은 옷차림과 음악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이른바 “가스펠 락”이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좋아합니다. 가스펠 락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룩한 마귀”와 같은 락입니다. 즉 두 단어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스펠 락은 세속적인 락 음악에 지나지 않으며, 거기에 종교적인 사운드를 주기 위해 가사에 복음적인 말을 넣은 형태입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약을 복용하며, 구원받지 못한 오늘날의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사탄적인 음악과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가사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사조차 세속적인 사고와 야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종류의 쓰레기 음악들을 사랑하는 많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계 3:14-19).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적인 체계에 속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과 혼합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강조는 결여되고 감정과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성경으로부터 이단 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은 종종 성경 기록을 문맥과는 상관없이 취하며 다른 시대에 해당하는 교리들을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며 히브리서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문제였습니다. 사랑은 지식과 결합하여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그룹은 자신들의 교리를 빼고는 지식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또한 교리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주목하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딤후 5:17)

다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6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I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마음을 쏟으라.”

“네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네가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딤후 4:13, 16)

“때가 이르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딤후 4:3)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딤후 2:10)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곁들여 균형 잡힌 교리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올바로 구분하기

우리는 흠정역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에 존귀를 돌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시 119:127)

우리는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확실히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 서신에서 발견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 2:15)

많은 신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무수한 교리

적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바르게 나누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됩니다. 오해와 혼란, 그리고 이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여러 방식을 구분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은 교회 시대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야만 오늘날 신자들에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명백한 세 가지 부분을 먼저 살펴봅시다.

1. 율법 이전
2. 율법하에서
3. 율법 이후

예를 들어

- 창세기 20:12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사라와 결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그들은 한 아버지 슬하였다).
- 그러나 우리는 레위기 18:6에서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금지돼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 창세기 9:3절에서 노아는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창 9:3)
- 그러나 레위기 11장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돼지고기나 조개류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10과. 많음을 오히려 나누어 I

말하여 이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라.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레 11:1-4)

- 신약에서는 이것이 다시 변경되어 신자 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봅니다. (딤후 4:1-5)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딤후 4:1-4)

이처럼 우리는 먹는 것에 관해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까? 이러한 예들을 살펴봄으로 인해 우리는 성경에 명백한 모순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인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지만 다양한 경륜(경영 방침) 속에서 사람이나 민족을 다루시는 그분의 방식은 바뀝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모순되는 수많은 성경 기록들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 시대 구분의 시작과 끝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까지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노아는 어떤 음식들을 먹지 말라는 가르침들을 따르지 않았고 따를 수도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 그러나 율법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적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에서 신약 교회에게 다른 지침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약(새 유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예 칠일 예수 제림교라고 불림)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레위기에서 규정하는 여러 음식들이 아직도 금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시대의 구분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신약의 명백한 가르침과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4에서 본 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발효된 신약에 따르면, 우리는 율법에 의해 이전에 금지되어 있던 음식이라도 주님께 감사 드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에 대한 한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이와 같은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8-11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율법 아래에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토요일, 한 주의 일곱째 날)에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일과 여러 거룩한 명절들이 다르게 가르쳐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16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I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골 2:16)

로마서에서는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을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날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롬 14:4-7)

물론 구약 신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떤 음식이나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금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들에 해당하는 신약에서는 어떠한 날도 다른 날과 구별되지 않으며 신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러한 날들을 준수하든지 아니하든지 자유롭습니다. (물론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지켜진 유대인의 날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을 인정하는 주일을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는 거룩한 날에 관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도록 배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율법하에 있는 인류와는 더 상관 안 하시며, 주님의 죽으심으로 은혜로 사람을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구약에서도 몇 가지 다른 시대 구분들이 더 있으며 신약에서도 더 많은 구분이 있습니다. 이 과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나누어질 때만이 이해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부류의 백성들

성경을 공부할 때 필수적인 첫 번째 구분은 세 부류의 백성을 다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세 부류의 백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고전 10:32)

세 부류의 백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대인들
- 이방인들
- 하나님의 교회

비록 성경이 세 부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지만 유대인을 위해 기록된 부분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성경은 또한 이방인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각각의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것이며 그들의 두드러

16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I

진 특성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스코필드 박사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란 책으로부터 인용할 것입니다.

1. 유대인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반 이상이 한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다루심과 계획 안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다수의 인류와 구별되어 어떤 다른 민족에게도 주지 않은 특별한 약속들을 주신 여호와와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역사에 대해 구약의 역사서와 예언서에서 알게 되며 다른 민족들은 단지 유대인과 연관되었을 때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든 여호와의 말씀들은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신실하고 또 복종한다면 땅의 큰 축복들과 권능들이 주어질 것이며, 신실치 못하고 불복종한다면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신 28:64) 메시아에 관한 약속들조차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주는 축복에 속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약속과 언약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민23:9) 그 모든 것을 어느 한 날에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현 교회 시대 동안은 그들은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땅에 속한 왕국을 세우려 돌아오실 때에는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경 교사는 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지금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끝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로마서 11:25-26절에서 그런 교사들은 무지하고 자만심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따로 져혀놓으신 반면에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되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시 다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진대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아굽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롬 11:1,11,24-26)

2. 하나님의 교회

16과. 땅속을 움파로 나누어 I

“신중한 성경 학도라면 성경에서 교회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형성되는 대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지 언약의 관계인 반면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을 통해 땅에 속한 번영과 부를 가져오는 대신에 교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배우며 박해와 증오를 받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일시적이고 땅에 속한 것들과 연관된 것처럼 교회는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과 연관된다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경배에 관한 규례에 있어서도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장소에서만 경배할 수 있으며 단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 경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구절들을 서로 비교하십시오

- 레위기 17:8,9와 마 18:2, 요 4:24
- 눅 1:10과 히 10:19, 20
- 민 3:10과 벰전 2:5

미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점은 더욱 커집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땅으로부터 멀리 옮겨질 것이지만(휴거) 회복된 이스라엘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과 권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비교해 보면 기

원, 부르심, 약속, 경배, 행실의 기준,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 모두 대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분리되어 주님을 따르는 대신, 세상적 수준으로 타락하여 부의 습득, 인상적인 종교의식의 사용, 웅장한 예배당 건축, 전쟁 시 하나님의 축복권 남용, 성직 계급(동일한 형제를 “성직자 clergy”와 “평신도 laity”로 구분함)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대인에 해당하는 성경 기록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을 구성하는 남녀로 이루어진 육체적인 몸인 반면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성되어 있는 남녀의 혼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몸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교회는 영적인 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벧전 2:5,9). 반면에 이스라엘은 혈통에 따른 레위 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입니다.

3. 이방인

또 다른 부류의 백성은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성경에서 “개들”이라고 언급되어 있음 - 막 7:28, 29) 그들은 교회나 이스라엘과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이방인은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엡 2:11,12, 4:17,18) 물론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이방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분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태어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유대인이 구원을 받게 되면(복음을 믿게 됨으로써), 그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 또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종상의 차이점은 상실되는 셈입니다.

16과. 많음을 오히려 나누어 I

>>> 교리적 적용을 결정하기

우리는 이 세 부류의 백성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맥을 통해 어떤 구절이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지 또는 이방인에게만 해당하는지 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언급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대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한 구절이 세 부류의 백성에게 모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족들이여, 너희는 가까이 나아와 들을지어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을지니라.”(사 34:1)

이 구절은 이후에 나올 구절들의 문맥을 명백하게 결정지어 줍니다. 그것들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날 거듭난 신자들에게 교리적으로 특정하게 적용되는 내용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대답은 성경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 바울의 기록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즉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다른 교리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지 또한 정확한지를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교

회 시대의 신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룹으로 다루고 계시는 시대에 속한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해야 하며 오늘날 교회의 교리로서 가르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고전 10:11)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롬 15:4)

- 모든 성경 말씀이 오늘날의 신자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 그러나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모든 성경이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이라도 그것이 교회에 보내어진 바울의 서신(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한 교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

16과. 많음을 오히려 나누어 I

중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보베 편에 보내다.”(롬16:25~27)

- 따라서 교회에 해당하는 모든 교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바울이 선포했던 교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에 해당하는 바울의 계시와 일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바울 서신이 아닌 구약 성경이나, 사도행전, 사복음서 그리고 다른 성경의 책들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교리를 참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에게 이방인들을 위한 새로운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불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하므로 바울이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라.”(행 18:5-6)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 성장을 위한 첫걸음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갈 2:7,8)

이 구절에서,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며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존귀히 여기나니”(롬 11:13)

당신은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교회(사도행전 2장 이래로 거듭난 모든 신자들)를 대상으로 보낸 것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성경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 즉 교회 시대에는 신자들은 이방인(유대인과 구별되는)의 사도인 바울의 교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전 11:1)

바울은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이전에는 숨겨져 있었던 새로운 교리를 계시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

10과. 많음을 오히려 나누어 I

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려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리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속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엡 3:1-9)

그가 로마지역에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은 그것을 “나의 복음” 그리고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롬 16:25)

이는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이 유효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함께 모인 모든 사도들에게 확실히 놀라운 진술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

고”(행 14:27)

- 우리는 성경을 연구함에 따라 바울 서신들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까지 교회에 교리적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 빌레몬서 다음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 히브리서 다음은 그 대상이 “흩어져 있던 12지파”(약 1:1)인 야고보서입니다.

만약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서신들과 교회를 대상으로 한 바울의 서신 사이에 모순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성경의 구분은 빌레몬서와 히브리서 사이에서 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성경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성경에서는 어떤 영적인 진리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레위기 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 율법을 교리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결코 유대인 서신들을 교리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을 공부할 때 고려해야 할 첫 번째 것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정확한 적용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자기들에게 해당하지 않는 성경의 구절들을 자신에게 적용하려 함으로써 거짓 가르침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모든 거짓 교사는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조차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문맥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취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시된 유혹은 어떤

16과. 많음을 오히려 나누어 I

한 시대에 적용될 성경을 다른 시대에 적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가 될 것입니다.

- 오늘날, 모든 이단들은 이 세 부류의 백성들 중 하나에게 특정한 시기에 주어진 성경적 진리를 다른 부류의 백성들에게 다른 시기에 적용하려 함으로써 생겨나게 됩니다.

>>> 성경의 세 가지 적용

여기에 성경을 바르게 나눌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 모든 성경 구절은 세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1. 역사적인 적용
2. 교리적인 적용
3. 영적인 적용 또는 헌신을 위한 적용

자 그러면 자세히 이 세 가지 적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것들을 확인해 봅시다.

1. 역사적인 적용

내가 “역사적인 적용”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경의 구절이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났거나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스도의 부활, 예루살렘의 멸망 등에 대해 읽는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과거의 어느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적용입니다.

2. 교리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은 그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제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사는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참된 교리적인 적용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구절의 올바른 교리적인 적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에 대답해야 합니다.

- 1) 그 구절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 2) 그 구절은 갈보리 이전, 갈보리 이후, 또는 휴거 이전, 휴거 이후 중 어느 시기에 사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러한 단순한 기준을 따른다면 우리는 합당한 교리적인 적용을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3. 영적인 적용

성경의 또 다른 적용은 영적인(현신을 위한) 적용입니다. 이는 신자의 삶과 행위에서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뜻에 대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이 “책망을 위해”, “바로잡음을 위해”, “의로 교육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적용은 교리적인 적용과 상관없이 오늘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바를 주목하십시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16과. 많음을 오히려 나누어 I

여기에 네 가지 예가 있습니다.

- 1) 바울은 교회시대 성도들을 훈계하기 위해 구약에 나오는 몇 가지 구절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구절들은 교리적으로는 교회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후 6:16)

바울은 레위기 26:12^(구약)절을 인용했고 그것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그 구절을 문맥 속에서 공부해보면 우리는 그것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에 대한 언급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레위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교리적인 적용을 하지도 않고 또한 역사적인 적용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절을 실제적이고 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한 그 어떤 것과도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교훈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질 만합니다.

- 2) 다른 예가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이것은 기록된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고후 8:15)

고린도후서의 문맥은 구제(주는 것, 십일조)에 대한 것입니다. 12,13,14절에서 바울은 교회 시대에 돈을 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오. 그러나 그가 인용한 구약의 구절은(출 16:18),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 내려 주신 만나를 밖으로 나가 모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출애굽기를 통해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실제적이고 영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 또 다른 예가 행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행 13:40,41)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그는 구약 대언자 하박국(합 1:5)을 인용했습니다. 그 구절의 문맥은 원래 갈대아인들의 침공이며, 교리적으로 바울이 행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조차도 어떻게 성경이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는 한 예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적절하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절을 오늘날의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 교리,
- 책망, 바로잡음 그리고
-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과. 말씀은 옷으로 나누어 I

4) 자, 이번에는 호세아 11:1을 마 2:15와 비교하며 한 구절에 세 가지 적용을 해 봅시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마 2:15)

마태는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을 피하여 예수님을 이집트로 데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는 구약 대언자 호세아가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말했을 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호 11:1)

호세아에서 “내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4: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는 용어를 이스라엘에 대해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했던 과거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호 11:1절 말씀은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완전한 본보기가 됩니다.
- 그 구절의 역사적인 적용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 교리적인 적용은 이집트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의

언급입니다. 우리는 마 2:15를 읽음으로써 그것을 알게 됩니다.

- 영적인(실제적인) 적용은 교회 시대의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요 1:12; 갈 4:5,6) 그리스도인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세상체제와 세속적인 것 -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호세아 11:1의 세 가지 적용을 주목한다면 당신은 성경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성경 교리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륜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기 위한 세 번째 가이드는 경륜입니다. 경륜이 무엇입니까?

구 스코필드 주석 성경 5페이지를 보면 경륜에 대한 좋은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특정한 계시에 인간이 복종하는지 테스트 받는 한동안의 시기이다.”

릭크만 박사는 덧붙입니다.

경륜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oikonomia)이다. 그것은 결코 시기나 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한 집안이 운영되는 규범 혹은 집주인이 그의 가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란 뜻이다. 경제(Economy)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1700년 이래로 계속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됐다. 물론 이것은 집 주인(히 3:2 엡 2:19)이신 하나님

16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I

께서 그분의 지혜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자신의 가족을 경영하는 서로 다른 방법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시기의 구분은 경영 방침의 차이에 근거한다. 클레런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라는 책은 1929년 이래로 최고의 훌륭한 책으로 매우 성경적인 역작이다. 그 책에 등장하는 여러 차트에는 시간적 요소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율법은 어떤 한 시기에 어떤 한 장소에서 주어졌으며 그리스도는 어떤 시기에 어떤 한 장소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킨의 차트는 잘 그려진 것이며 내용이 탁월하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경적으로 참되며 킹 제임스 성경의 어떤 판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400페이지가 넘는 그 책 안에 있는 세대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그 어떤 헬라어, 히브리어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 라킨 이전에도(스코필드, 1909, 예를 들면) 여러 경륜들이 제시되었고 수백 개의 성경 구절로 설명된 바 있다.

스코필드 박사는 자기의 주석에 일곱 개의 경륜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덧붙여 10개의 경륜을 보여 줄 것입니다.

물론, 그 누구라도 킹 제임스 성경을 펼치는 즉시로 두 개의 다른 경륜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더 연구해 보면 우리는 다른 구분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각각 5개의 세대적인 구분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스코필드 박사의 진리의 말씀은 올바로 나누어라는 책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은 시간을(이것은 아담의 창조 때부터 계 20:1절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의 모든 시간) 보통 경륜이라고 부리는(엡 3:2) 일곱 개의 다른 시기들로 나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들은 시대들(ages)(엡 2:7) 혹은 날(days) (주의 날과 같은)이라는 용어로도 불린다.

이러한 시기들은 성경에서 죄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질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방법에 변화가 생길 때 나타난다. 각각의 경륜은 자연인(구원받지 못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험이며 이 시험은 매번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 - 모든 경륜에서 인간은 실패했다.

이 과의 목적은 성경을 올바로 나눌 수 있도록 중요한 요소들만을 살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10 개의 경륜이 있습니다.

1. 무죄의 경륜(때때로 에덴의 경륜이라고 불림)

무죄한 인간 - 이 경륜은 창세기 2:7절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에덴동산에서의 추방으로 끝납니다. 아담은 무죄하게 창조되었으며, 선과 악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그는 에덴동산에서 자기 아내 이브와 함께 살게 되었으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않아야 하는 책임하에 있었습니다. 무죄의 경륜은 첫 인간의 실패로 끝났으며 모든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실패로 기억되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으셨더라. 창 1:26, 2:16,17 , 3:6, 그리고 3:22-24절을 보십시오.

2 양심의 경륜

(때때로 아담의 경륜이라고 불림 - 창 3:22-8:19)

양심 아래에 있는 인간 - 타락으로 인해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의 지식

16과. 땅을 옥바로 나누어 I

을 얻었고 그것을 인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도덕적 판단에 대한 토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하는 책임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경륜의 결과는 에덴에서 홍수까지입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율법도 제정되지 않았다)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자연인의 시험 기간을 심판으로 끝내셨습니다. - 홍수(창 3:7,22 6:5,11,12 7:11,12,23)

3. 인간 정부의 경륜

(때때로 노아의 경륜이라고 불림. 이 시기는 땅을 다시 채우라는 노아의 사명으로 시작하여 바벨 탑에서 언어의 혼란으로 끝나게 된다. - 창 8:20 ~ 11:32)

땅을 지배하는 권위를 가진 인간 - 홍수라는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덟 사람을 구원하셨고 그분께서는 정결하게 된 땅을 지배하는 큰 권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이 일을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정부의 경륜은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경건치 못한 시도로 인해 심판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 언어의 혼란(창 9:1,2; 11:1-8)

4. 약속의 경륜

(때때로 아브라함의 경륜이라고 불림 - 창 12:1절에서 출 20장 - 이 시기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시작하여,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으로 끝나게 된다.)

약속 아래의 인간 - 바벨 탑을 세우다가 심판으로 흩어져 버린 자들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시어 언약을 체결하

합니다. 아브람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들 중에 어떤 것은 순전히 은혜요 조건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또 어떤 약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과 신실함에 따른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경륜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는 심판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장엄한 말로 시작하여 이집트에 있는 관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 창 12:1-3; 15:5; 26:2; 28:12,13; 13:14-17; 출 1:13,14)

5. 율법의 경륜

(때때로 모세의 경륜으로 언급됨 - 출애굽기 20장에서~요 1:6절까지 - 이것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시므로 시작하여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끝납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눅 16:16)

(이것은 스코필드 주석과는 다릅니다. 그는 율법을 갈보리에서 끝난 것으로 여겼습니다. 갈보리에서 율법이 끝났다고 하는 것도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이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는 무기력한 인간을 도우셨고 선택받은 백성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의 언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히 계속하여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대신에 뻔뻔스럽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율법을 어기고 범하는 장황한 기록이며, 반복되는 경고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의해 사람을

16과. 땅속을 움파로 나누어 I

시험하는 시기를 심판으로 끝내셨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그 후에 유다를 그 땅에서 몰아내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유약한 남
은 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돌아오게 됐고 때가 되어 그리
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들과 이방인들 모두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
다. - 출 19:1-8; 왕하 25:1-11, 롬 3:19,20; 10:5; 행 2:22,23; 7:51,52;
갈 3:10

6.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경륜

(때때로 과도기적 경륜이라고 불리어짐-그것은 침례 요한으로 시작하여(요 1:6) 오순절날 성령강림으로 끝난
다(행 2))

이 경륜은 스코필드 박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더
철저하게 이것에 대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7. 교회 시대

(때때로 은혜의 경륜으로 언급됨-그것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여 교회의 휴거로 끝난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살고 있음.)

은혜 아래에 있는 인류 -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순수
한 은혜의 경륜이 시작되었습니다.-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
지는 호의이며, 율법 아래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의를 요구하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은 지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값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요 6:29(비교/요 5:24, 6:47, 10:27-28, 엡 2:8-9)

은혜 아래 있는 인류의 시험 결과는 믿지 않는 세상과 배교한 교회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눅 17:26-30, 18:8, 살후 2:7-12, 계 3:15-16) 이 경륜이 끝날 때쯤 일어날 첫 번째 사건은 주님의 공중 강림입니다. 그 때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며, 지금 살아 있는 성도들은 함께 산 채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기 위하여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살후 4:16-17)

8. 대환란

(이것은 야곱의 고난의 때 혹은 다니엘의 70째주라 불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환란의 시기에 대하여 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19장은 우리에게 환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시작하고 7년 동안 땅 위에서 지속할 가공할 만한 시련의 시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납니다.

9. 천년왕국

(이것은 땅 위에 있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언급되며,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있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으로 시작하여 천 년 동안 지속합니다.)

당신은 성경이 요한계시록 11:15, 20:1-6을 비롯해 수백 군데에서 천년왕국을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사탄이 풀려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흰왕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계

16과. 많음을 온리로 나누어 I

20:7-15). 현재의 하늘과 땅은 멸망하고, 새롭게 창조된 우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류 - 그리스도께서 땅에 돌아오셔서 정결하게 하는 심판이 있는 후에 그분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과 지상에서 천 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분의 권능의 보좌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며, 은혜의 경륜하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포함하여 성도들, 즉 교회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결합할 것입니다. 행 15:14-17, 사 2:1-4, 사 11, 계 19:11-21, 20:1-6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탄이 잠깐 풀려났을 때, 그는 악으로 기울기 쉬운 자연인의 마음을 발견하여 주와 그분의 성도들을 대적하여 전쟁할 민족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경륜은 다른 모든 경륜들처럼 심판으로 끝납니다.

10. 때가 찬 경륜

(엡 1:10, 고전 15:24-28)이 최종적인 시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시작하며(계 21:22)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으로 나아갑니다.

흰왕좌가 놓여 있고, 죽었던 사악한 자들이 부활하여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난 후 영원이 시작됩니다. 계 20:3,7-15, 21:1-22을 보십시오.

이 경륜에 대하여는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여 더욱더 향상된 것까지 아래에 유익한 몇 가지 자료 목록을 제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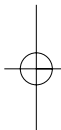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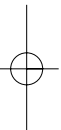
- 시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루이스 탈봇 저
- 살렘키르반 주석 성경-살렘키르반 저
- 스코필드 주석 성경-스코필드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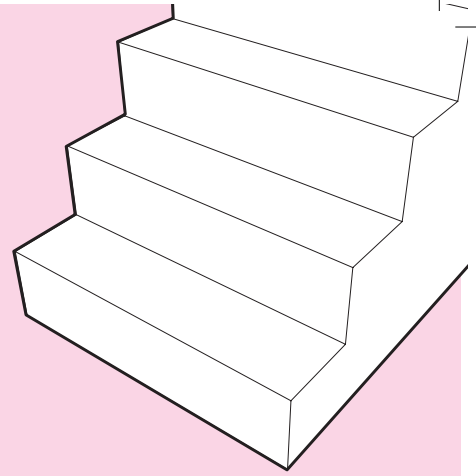
➔ 성장을 위한 첫걸음

- 어떻게 세대적 진리를 가르칠 것인가-피터 럭크만 저
-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클레런스 라킨 저
- 세대적 진리-클레런스 라킨 저



1과. 막쓰은 옥씨로 나누어 I





chapter 11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II

이 과에서는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1과.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II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 2:15)

J.C. 라일이 한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모든 이단의 원천이며 모든 종교적인 잘못들의 뿌리이다.

왜 이리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 교리에 무지하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공부하는 데 게으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대로만 고개를 끄덕이고 듣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배로운 진리들을 계시하십니다. 지금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개개인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칭찬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행 17:11)

성경에서 경륜상으로 차이를 보이는 실례들

창세기 1:1부터 계시록 22:21까지, 성경의 경륜은 전인류의 역사를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만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 대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휴거되더라도 그들이 소지하던 성경책들은 그대로 땅에 남아 있을 것이며, 따라서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원 계획은 경륜마다 다르지만, 어떤 경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복종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은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방금 본(9과에서) 10가지 시대 구분 중 하나 이상에 반드시 해당하며, 더러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혹은 세 부류 모두에게 해당하기도 합니다. 경륜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륜 속에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올바르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성경은 혼란의 책이 되며, 모순들로 가득 찬 책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음의 실례들을 봅시다.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찾고 있었던 좋은 소식은 지상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복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음 성경 구절들을 보십시오.

1. 침례인 요한이 광야에서 왕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마 3:1,2)

11과. 땅끝을 온바로 나누어 II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도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마 4:23)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물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마 10:5-7)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게로 가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왕국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선포된 것과는 달리 교회 시대에서는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행 20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행 20:24)

여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고전 15:3,4)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일으켜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갈 1:11,12)

이 복음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또는 어떤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된 것이었습니다.

• 바울은 결코 왕국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9)

11과.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II

성령님께서 동일한 주제를 두 번이나 말씀하신다면(이 경우는 저주를 두 번 말씀 하심) 그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분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시어 복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내용을 두 번이나 언급하셨으며,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한다면 예수님이나, 침례인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저주 받았다고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파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왕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8절과 9절은 현재의 은혜의 경륜에서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언급하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6절에서 이에 대해 신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에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환란 동안 발효될 구원 계획은 교회 시대 교리와 모순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만을 통해 은혜로만 얻게 되는 구원 계획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마 24:13)

어떻게 우리는 이 구절이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맥을 보면 간단합니다.

➔ 성장을 위한 첫걸음

- 첫째로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유대 성전의 재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리이까? 하니”(마 24:3)

-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재림의 때와 세상 끝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다니엘의 예언과 관련지어 14절에 다시 사용됩니다. 우리는 다니엘로부터 동일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는 환란에 대해 그에게 환상이 주어지면서 말하고 있을 때입니다. 환란이 마태복음 24:29절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 셋째로 이 시기는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왕국 복음은 교회 시대에는 전파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아직 마태복음 24:13을 오늘날의 구원 계획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쳐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고전 1:2,6-8)

11과. 말씀은 온바로 나누어 II

명백하게 교회 시대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끝까지”(the end)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13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 24장은 환란 기간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며, 여기서 끝이란 그들이 통과할 7년 환란 기간의 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끝이란 명백히 대환란의 끝입니다. 이러한 두 구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명백히 두 개의 다른 시기 동안 두 개의 서로 다른 구원 계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이 책은 교리적으로 볼 때, 세 부류 중 유대인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써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히 3:6)

자신의 집이란 이스라엘의 집을 언급합니다. 게다가 만일(if - 그 구절에 있는)은 충족되어야 할 어떤 조건이 있음을 뜻하며, 그 조건이란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히 3:14)

이 책은 히브리인들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누군가(유대인들)가 만일(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끝(환란의 끝)까지 믿음을 확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신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일면 맞는 말이지만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문맥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적용은 대환란 기간의 히브리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신자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보장됩니다.

교회 시대 신자들은 이미

-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며(딤후 3:14-15, 엡 2:19-22)
- 끝까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고전 1:6-8)
-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며(엡 5:30)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요일 4:4, 5:4, 요 17:33)

이제 그리스도인들(그리스도의 몸에 속한)을 대상으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봅시다. 이것을 마태복음 24:13절, 히브리서 3:6절과 비교해 봅시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빌 1:6)

빌립보서에 있는 이 구절은 명백하게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에 있는 것들과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빌립보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끝까지 견뎌야 하는 마태복음, 히브리서에 나오는 신자들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잃을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아무에게도 바울이 빌립보서 1:6에서 말한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11과. 말씀의 옷으로 나누어 II

5. 또 다른 예가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잘못 적용되는 구절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위해 이 구절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약 2:24)

우리는 약 1:1을 통해 야고보서가 이스라엘(유대인) 12지파를 대상으로 기록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약 2:24이 교회 시대 신자들에게 기록된 로마서 3장, 5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구절들과 명백히 모순된다고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롬 3:23,24)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느니라.”(롬 5:1)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 2:8,9)

교회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시대에 다른

➔ 성장을 위한 첫걸음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 구절을 오늘날 교회 시대에 주어진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과 비교해 본다면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은 이단이며 죄입니다.) 교회 시대에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것도 믿음에다가 더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딤후 1:12, 벰전 1:5)

• 그러나 환란 동안에는 구원받으려면 믿음과 행위가 필요합니다.

약 2:24, 마 24:13, 그리고 히 3:6,14을 기억하십시오. 그 구절들은 신자가 침례의 표 받기를 거부하고(계 14:9-11),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구절들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고전 12:13)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7년 환란 동안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겠지만 그들 중 아무도 거듭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 중 아무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때에 이미 하늘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자들은 잊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성된 자들과는 다른 관계를 그리스도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이 세워지기 전에 구원을 받은 침례인 요한은 스스로 신부의 일부분이 아닌 신랑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요 3:29)

물론,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은 참된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이 시대가 아닌 갈보리 이전과 휴거 이후에만 참입니다. 구원은 항상 행위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를 위해

11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II

갈보리에서 행해진 그리스도의 행위(사역)로 구원받습니다. 갈보리 이전과 휴거 이후에는 신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환란 기간에 구원을 잃은 자는 다시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히 6:4-6) 오늘날 신자들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동시에 그것을 다시 얻을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미리 생각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당연한 오류입니다.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은 환란, 천년왕국,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에 적용되는 구절들을 취해서 교회 시대에 교리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거짓된 구원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한 마디로 그들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잡고 책망하며,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도록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많은 침례교도들조차 이러한 세대적인 구분들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구원 계획을 가르치는 자들과 싸우다 보니 성경을 통틀어 구원 계획이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구원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또 다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신자들을 위한 구원 계획으로 믿음과 행위를 가르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교단의 신념과 성경을 일치시키려고 성경을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빛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

➔ 성장을 위한 첫걸음

하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일치시키기 위해 우리의 신념을 바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게 될 것이며, 이단적인 가르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신약에 나타난 경륜들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경륜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배타적으로 다루어 오신 동안에 적용되던 율법이라는 구약적 경륜의 연장선입니다.

둘째로 :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으신 동안, 두 번째 경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셋째로 : 하나님께서 다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또 다른 경륜(아직 미래에 속함)이 있습니다.

>>> 네 가지 복음

성경을 올바로 나누기 위해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주제는 네 가지 형태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행 20:25, 고전 15:1-4)

앞에서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이 복음이 계시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11과. 땅끝을 온리로 나누어 II

2. 왕국 복음

마 24:14절과 4:23절에서 언급된 왕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아굽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눅 1:31-33)

이것은 침례인 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파했던 복음입니다. 이것은 행 7:59에서 돌아 맞아 죽임을 당한 스테반의 순교로 끝이 납니다. 사울(훗날 사도 바울이 됨)은 스테반이 죽을 때 거기 있던 사람이었음을 주목하십시오. 나중에 행 9장에서 그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테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하여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메시지의 진행을 살펴볼 것입니다.

7장 :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함

8장 : 유대교로 개종한 흑인 이방인이 교회 시대에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됨

9장 : 이방인의 사도가 구원을 받음

10장: 이방인이 이제는 불결하지 않으며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계시가 베드로에게 주어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의 그룹으로 다루신 적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계시는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꿈을 통해, 과거와 다른 변화가 있다는 새로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타 언어(방언)의 표적을 사용하셨습니다. (행 10:45)

11장: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형제들의 고소에 답변하기 위해 일어난 일을 전부 다시 설명했고 그들을 이 새로운 교리로 설득시켰습니다.

15장: 교회시대를 위한 교리가 정립됨.

“왕국 복음”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대환란이라는 시기 동안 다시 전파될 것입니다. (마 24:14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됨)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민족들에 대한 증거로서 선포되는 이 왕국 복음은 오늘날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는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복음들을 혼동한다면 성경 기록을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오늘날의 구원 교리로서 잘못 가르치려 시도했지만 믿음과 행위라는 왕국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는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3.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부른 복음

11과. 땅끝을 온리로 나누어 II

이것은 롬 2:16과 롬 16:25에 언급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다가가, 바울에게 계시된 몸의 신비에 대한 진리들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되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고전 15:1-4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의 요소도 없이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4. 영존하는 복음

이것은 환란의 끝 무렵에 매우 짧은 시기 동안 천사가 전파할 복음입니다. (제 14:6-7) 그것은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과 현 세상을 파멸하면서 보복을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쓴 기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 1:8,9)

바울은 만일 어떤 사람이나 천사조차도 계시된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에서는 영존하는 복음이 한 천사에 의해 선포되고 있으며 그것은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천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전파하는 복음은 교회 시

대외는 다른 경륜 동안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천사가 오늘날 그와 같은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그와 그의 메시지를 성경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5. 또 다른 복음

성경에서 또 다른 복음(결코 복음이 아님)이라고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행위를 더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경륜(시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시대에는 이단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구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 두 개의 왕국

이 내용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섯 번째 구분입니다. 이 주제는 독립된 주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네 가지 복음과 경륜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 하늘의 왕국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듯 문자적이고, 가시적이며,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눅 1:32,33)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야곱의 집(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며 이 왕국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다윗의 보좌 위에 이제까지 앉아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11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II

다. 반면에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롬 14:17) 그것은 사람이 영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 바울은 결코 하늘의 왕국^(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두 왕국이 모두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두 용어가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오심

성경 기록을 올바로 나누는 데 필요한 여섯 번째 구분은 예수님의 오심도 두 번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라는 책에서 스코필드 박사는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서로 완전히 다르며 외관상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갈래로 나뉜다는 사실로 인해 당황하게 된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동정녀 탄생(미가서에 따르면 베들레헴에서)으로 시작하며 메시아의 낮아짐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모두 성취되는 쪽으로 진행된다. 이는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죄가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온유하사 나

➔ 성장을 위한 첫걸음

귀의 새끼를 타신 그들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켰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은 재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메시아의 지상 영광에 대한 예언들은 그분의 지상에서의 고난처럼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성취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오심(초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시작되었고 두 번째 오심(재림)은 환란 끝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돌아오실 때에 있을 것이다.

1. 초림

그분께서 출생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오셨습니다.

- 세상 죄를 제거하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 사 53:7, 요일 2:2, 히 9:26, 눅 19:10, 요 3:16-17)
- 멸시받고 거부당하고, 고통에 익숙하신 슬픔의 사람(사 53:3)
-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지신 우리의 대속물(사 53:4)

2. 재림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양으로, 또한 종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오실 것입니다:

- 진노하시는 분과, 울부짖는 사자(계 5:5, 시 78:65, 사 42:13-14, 렘 25:37-38, 사 31:4)
- 사악한 자들을 그분의 분노 가운데 짓밟아 버리고 그들의 피로 자신의 옷을 적시며 복수하시는 분(사 63:1-6, 계 19:11-15, 시 68:21-23)

11과. 땅끝을 온배로 나누어 II

-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계 19:15-16, 20:1-7, 시 2)

은사주의자들은 히브리서 13:8을 인용하기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물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분께서는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방법은 정론마다 다릅니다.

A. 재림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도들을 위한 오심과 성도들과 함께 오심이 있습니다.

1) 첫 번째 요소

이 부분은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자신의 신부)를 데려 가실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휴거 - 성도들을 위한 오심입니다. (요 14:1-3, 행 1:10-11, 살전 4:16-17, 딤후 2:13, 빌 3:20-21, 요일 3:1-3, 계 22:12 그리고 20절 -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구름까지만 돌아오실 것입니다(살전 4:17, 행 1:9-11). 그때 그리스도의 몸(교회)은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2) 두 번째 요소

재림의 두 번째 부분은 대환란 끝에, 적어도 7년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마겟돈에서 자신을 위해 싸우기 위해 군대들로 구성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참조. 욥 2:1-11, 마 24:29-31, 살후 1:7-8, 유 14, 계 19:11-16,

20:4-5, 그 외의 수십 곳) 그때에 그분께서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며(14:1-4),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놓으실 때 그 산은 반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언자들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었고 우리는 그들이 그분의 영광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다. 이 경우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들 사이로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분께서 베들레헴의 아기와 나사렛의 목수로 오시리라는 것보다 더 믿기가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언자들이 예언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일(주님의 탄생)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믿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불신을 비난하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고 명백한 그분의 영광에 대한 예언들에 눈멀 수 있는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고대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일부 현대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지상 영광에 대한 예언들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기 전에 당황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하신 마지막 말씀들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11과. 말씀의 온배로 나누어 II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 두 본성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곱 번째 구분은 신자의 두 본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후 4:16, 엡 4:20-24) 우리는 2과에서 이것을 상세히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분 중 하나이기에 성경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시 상기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1. 육신으로 태어난 옛 사람

이것은 아담의 본성, 그리고 육신으로 알려진 것으로 죄로 가득하고, 불경건한 성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 구속 받지 못했습니다. (롬 8:23)
- 양자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롬 8:23)
- 죄로 가득합니다. (롬 7:18, 24 요일 1:6-10)
-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롬 8:24)
- 약혼했지만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고후 11:2)

그러나 각 신자 안에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본성이 있습니다.

2. 성령으로 태어난 새 사람

새 사람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육신을 복종하게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옛 사람과는 대

조적으로

- 구속 받았습니다. (엡 1:7)
- 양자로 채택되었습니다. (롬 8:15-16)
- 죄가 없습니다. (요일 3:6-9)
- 지금 현재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엡 2:8,9, 요일 5:11-13, 요 3:18, 3:36, 5:24)
-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엡 5:30-32, 고전 6:17)

신자가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면 죄 없는 완전한 육신이라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 신자의 위치와 상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덟 번째 구분은 신자의 위치와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도 이미 앞 과에서 공부했습니다.

-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죄 없는 완전함입니다. (요일 3:6,9; 3:5; 4:17; 롬 4:1-8; 3:22-25)
-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관계)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님께 복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롬 6:13, 갈 5:16)

>>> 구원과 상속

아홉 번째 구분(오직 신자에게 적용)은 구원과 하늘의 상속을 받기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공부하려면 5과 그리스도인의 상속 편을 보십시오.)

첫째로

11과. 땅속을 뚫어 나뉘어 II

-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요 3:16, 롬 5:15-16, 18; 6:23, 엡 2:8-9)
- 반면에 우리의 상속은 거저가 아닙니다. - 우리가 일해서 벌어야 하는 보상입니다. (골 3:24)

둘째로

- 구원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5:12-13; 요 3:36)
- 우리의 상속은 미래에 소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전 15:50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를 통해, 지금은 우리가 살과 피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음을 배웁니다.

셋째로

-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엡 4:30)
- 우리의 상속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갈 5:19-21)

>>> 두 가지 부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열 번째 구분은 두 가지 부활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죽은 자들로부터의(from the dead)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로, 죽은 자들의(of the dead) 부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활은 시간상으로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계 20:4-6)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 첫 번째 부활(죽은 자들로부터)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세 번째 부분이 완성될 때까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계 20:5)

1. 그리스도와 구약 성도들의 부활 - 마 27:50-53, 엡 4:8-9
2. 신약 성도들(당신과 나)의 부활 - 고전 15:49-53; 살전 4:13-18
3. 환란 성도들의 부활 - 계 7:9,14; 20:4; 시 50:4,5; 사 26:19

- 두 번째 부활(죽은 자들의 부활)은 1000년간 이어질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의 끝에 일어납니다. (계 20:5) 이때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요 5:28)

이것은 아담의 때로부터 천년왕국의 끝까지를 통틀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에 덧붙여 여기에는 천년왕국 기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요 5:28-29, 단 12:2)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동안에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들었지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막 9:9-10, 요 11:23-26, 눅 20:35-3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은 믿었지만(행 23:6-8),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든 사람(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모두)이 나타나게 될 단일 부활과 단일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거짓 교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 감리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등에서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부활은 새로운 출생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엡 2:1절과 2:6절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심판들의 차이점에 대해 무지함으로 인해 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마지막 심판만이 있다는, 옛 바리새인과 동일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심판들의 시기, 배경, 내용을

11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II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도 심판 때까지 자신이 확실히 구원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이단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 일곱 심판

열한 번째 구분은 명백하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심판들에 대한 성경 교리입니다.

피터 렉스만 박사는 그의 책 일곱 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다양한 시기에 개인이나 여러 민족들에 임하게 되는 더 작은 심판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곱 개의 주요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심판들은 그 특성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노아의 날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어 그들이 모두 익사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 탑 시대에도 세상을 심판 하셔서 그들을 멀리 흩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산헤립을 통해 유대 왕국을 심판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일곱 개의 주요한 심판들이 있으며 이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받은 심판, 룯이 자기의 죄로 인해 받은 심판, 그리고 죄로 인해 여러 개인이 받은 심판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곱 심판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판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 즉 성도들과 죄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산 자와 죽은 자들이 함께 한 번의 심판으로 심판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 이단 교리를

믿는 자들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며, 그들이 이 심판을 통과하기까지는 진정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를 반박하는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한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일곱 개의 서로 다른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1. 죄인들의 심판

대상 : 세상(모든 죄인)

시기 : A.D. 33년

장소 : 갈보리

근거 : 율법

결과 : 1). 그리스도의 죽음(죄값을 완전히 지불)

2). 신자가 의롭게 됨(Justification)

- (비교, 요 12:31-32; 요일 2:2; 고후 5:21)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11과. 말씀의 옷으로 나누어 II

3:16)

이 심판은 이미 갈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었고 신자들은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잔혹한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세상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요 1:29, 히 2:9, 롬 3:10-23; 사 53:4-12)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 6:23)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분께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아무런 죄도 알지 못하신 분께서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고후 5:21), 갈보리에서 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벧전 3:18)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사 53:5)

릭크만 박사는 상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당신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번개가 이미 쳐서 다 타버린 장소에서 있게 되는 것과 같다. 번개는 같은 장소에 다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항상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개척자들이 미국을 횡단하던 때로 돌아가 보자. 사람들은 캔사스와 오클라호마 평원과 네브라스카 저 너머로 도착하곤 했다. 그런데 때로는 대평원에 불이 나기도 했다. 시속 30마일로 부는 바람 속에서 덤불 숲의 불을 끄려고 해 본 적이 있는가? 초목의 높이가 4, 5, 6피트나 되는 그 대평원에 불이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다. 만약 거기에 어떤 개척자가 말을 타고 가고 있다면 그는 거기서 빠져 나가기 위해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할 것인가? 말이 죽어 버릴 때까지 채찍질해도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개척자가 할 일은 한 가지뿐이다. 그는 말에서 내려서 부싯돌을 두들겨 바로 거기에 불을 질러야 한다. 그리고 그가 지른 불이 그의 앞쪽으로 타들어가면 그는 말을 데리고 이미 타 버린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대평원의 불이 그를 따라잡아도 결코 그를 태울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서 있는 곳은 이미 타 버렸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는가? 심판은 두 번이나 같은 장소에 떨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동일한 범죄로 인해 두 번이나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같은 죄로 한 사람을 두 번 재판에 부칠 수 없다는 뜻이다. 만일 당신이 갈보리로 온다면 당신은 안전하다. 진노는 이미 떨어졌기 때문이다.

2. 아들들로서의 심판

대상 : 성도들 자신

11과. 말씀으로 온자로 나누어 II

시기 : 아무 때나, 매일

장소 : 어디에서나

근거 : 아들의 신분(부자관계)

결과 : 용서와 정결하게 됨

- (비교, 고전 11:31-32; 히 12:5-8)

이것은 매일 순간마다 신자가 자신의 죄 된 불순종의 행위들을 아버지
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윗마저도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주목하십시오

“오 주여, 내가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걸었사오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또한 주
를 신뢰하였사오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시 26:1,2)

다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고전
11:31)

만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거부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
실 것이며 우리를 아들들로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히 12:6)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책망하시면 우리는 그분께 동의해야 하
며 그러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 1:9)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매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징계는 성령님의 탄원을 무시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려는 자들을 심지어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전 5:1-5와 행 5:1-11에서 묘사된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맑은 정신으로 참여해야 함을 봅니다. 고전 11:28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훈계를 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합당치 않게(죄를 스스로 판단치 않고)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만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고전 11:29,30)

J.C. Ryle 은 자기의 회중에 권고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성령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죄에 대해 판결하실 때 그분께 주의를 기울였는가? 우리는 가난한 로마의 노예들처럼 죄에 대한 참회로 자기 자신을 응징해야 하며 자신의 몸을 채찍질해야 한다고 느끼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는 매일 우리가 걷는 길과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엄숙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11과. 많음을 온배로 나누어 II

인해 많은 사람이 오늘날 아프고, 죽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바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하고, 피값을 주고 사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과의 보배로운 교제와 관계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당신은 그 보배로운 특권과 스스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3. 종들로서 심판

대상 :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심판받는 성도들

시기 : 휴거 이후

장소 :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근거 : 신자의 행위들

결과 : 신실한 자들에게는 보상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손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고후 5:10)

이 구절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하늘에서 행해지는 동안, 지상에서는 환란의 전반부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양의 혼인식이 거행되고 환란의 두 번째 부분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이 그 마지막을 장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도 않으며, 구원이 행위를 근거로 보존되지

도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행위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롬 14:10,11)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선행하지 않으며,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행한 일들의 진정한 가치와 그 일을 한 진정한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고전 3:11-15)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책에서 렉크만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히 9:27)고 말하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조차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죽어서 흰왕좌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다. 고전 3장에 나오는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지금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고전 3:11-15)

11과. 말씀은 온배로 나누어 II

윗 구절에서 사람이 불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이 불태워짐을 주목 하십시오. 또한 그 구절에서 불은 모든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를 시험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일의 양이 아니라 질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즉 어떤 종류의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자신의 모든 일들이 전소당했지만 자신은 불태워지지 않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롯입니다. 롯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불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연기 냄새조차 그에게는 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묘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 생각해 볼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제대로 생각도 해 보지 않은 채 말합니다. “글쎄, 나는 단지 하늘에 가는 것만으로 기뻐, 그래서 내가 만일 거기에 간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집에 갔는데 당신의 집이 모두 불타 없어져 있고 설상가상으로, 어떤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라면, 당신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행적들이 불길로 시험받았을 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이 연기 속으로 사라졌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우리가 하늘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해 줍니다. 두 번째 심판은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살지 결정해 줍니다. 세 번째 심판은 우리가 어떤 보상을 얻을지 아니면 다 잃어버릴지 결정해 줍니다.

4. 유대인들의 심판

대상 : 유대 민족 - 겔 20:34-38

시기 : 대환란 동안

장소 : 예루살렘

근거 : 그리스도를 거부함 - 삼상 8:7; 눅 23:18

결과 :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
아들임 - 사 66:8, 렘 30:7

- (비교, 속 13:8-9, 단 12:1)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지상에서 적그리스도 아래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야콥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환란의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땅 위에 쏟아질 것이며, 역병이 죽음을 초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속 14:3), 유대인들은 그들이 찢렸던(속 12:10) 그분을 바라보고, 그때 유대 민족은 한 날에 태어날 것입니다(회심 - 사 66:8).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 그리고 유다의 집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것입니다.(히 8:8)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로부터 역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이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끝까지 견디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신실한 자들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5. 민족들의 심판

대상 : 이방 민족들

11과. 땅을 온바로 나누어 II

시기 :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장소 : 땅 위에서, 그의 영광의 보좌 앞 -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근거 :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따라

결과 : 일부 민족들의 징벌과 일부 민족들의 축복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마 25:31,3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마 19:28)

이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 위에 좌정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때는 땅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이 심판에서 민족들은 적 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모으는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모을 것이고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또한 결단의 골짜기라고 불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 요엘에게 주어진 예언을 보십시오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 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욥 3:2)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후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일어납니다.(마 25장)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마 25:32,33)

이 심판에 대해 러크만 박사는 말합니다.

심판의 근거(기준)는 대환란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마 25:40). 유대인들을 적대시했던 민족들은 저주를 받고 유대인들을 축복하며 선대했던 민족들은 구원을 받는다. 한쪽에서는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 25:41)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유대인들을 돌봐주었던 자들에게는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마 25:34)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

물론 우리는 마 25:40절에 나오는 형제들은 유대인들이며, 유대인들을 잘 돌보아 준 자들은 양임을 압니다. 양에 속한 민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유대인에 대해 잘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염소들은 유대인들을 악용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돕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불못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불못은 천년왕국 동안 땅 위에 있게 되며 예루살렘 도시 바깥에 위치할 것입니다

11과.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II

다. (사 34:8-10, 계 19:20)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의 심판을 흰왕좌 심판과 혼동해왔습니다. 이 둘을 함께 한 묶음으로 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의 일반적인 심판만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행실로 인해 하늘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민족들의 심판(마 25)을 흰왕좌 심판과 비교해 보십시오. (계 20) 그러면 그 둘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우리가 읽은 것을 믿고, 우리가 읽은 그곳의 문맥을 고려하고, 그리고 말씀을 올바르게 나눈다면 단순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가르친다면 모든 것이 더 단순해질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우리가 배운 어떤 것에 맞추기 위해 왜곡시키려 해서 는 안 됩니다.

6.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

대상 : 타락한 천사들

시기 : 그리스도의 천 년 통치 이후

근거 : 그들의 반역

결과 : 불못에 던져짐

이 타락한 천사들은 흰왕좌 심판대에서 심판 받을 것입니다. (유 6, 고전 6:3,

창 6:1-6, 벧후 2:4-5)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으니”(유 6)

매우 이상하지만, 당신과 내가(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심판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고전 6:3)

당신은 마 25:41절에서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한 어떤 사람은 그들과 함께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영원한 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유 7)

7. 흰왕좌 심판

대상 :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시기 : 그리스도의 천 년 통치 이후
장소 : 큰 흰왕좌 앞에서
근거 : 그들의 행위들
결과 : 불못에 던져짐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계 20:11,12,15)

11과. 땅속을 뽀로 나누어 II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천 년 통치의 말기에 일어납니다. 이때에 하늘들과 땅은 이미 녹아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계 21:1)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벧후 3:7,12)

아담의 시대부터 천년왕국의 끝까지 전기간을 통틀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결과로 영원한 형벌의 선고를 받아 불못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환란기나 천년왕국 동안에 구원받은 자들은 이 심판에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11:18절에는 보상을 받는 대언자와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환란 전에 보상을 받았고 1000

년 동안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곱 심판에서 렉크만 박사는 말합니다.

현왕좌 심판에는 증인이 있다. 거기에는 고소하는 검사인 마귀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실 것이며, 범죄자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반대 심문이 허용된다. 그러나 아주 당연하게도(롬 3장 4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들에 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질문으로도 하나님의 말문을 막히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이 사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를 자세히 연구한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셨을 때의 상황을 잘 기억할 것이

➔ 성장을 위한 첫걸음

다. 그분께서는 어떤 질문에도 즉문즉답이던 반면, 도리어 그분께서 그들에게 되물어 질문하셨을 때 청중들은 전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훗날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의 모든 삶이 시작부터 끝까지 3차원으로, 완전 칼라로, 스테레오 사운드로 재생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왜 너는 나의 의가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나 대신 너 자신의 의를 신뢰했느냐?”는 질문을 하실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그는 전혀 답할 길이 없으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거하게 될 것이다. 원컨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란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행 16:31)

>>>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도는 성경에 중요한 개념 구분들이 존재함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도 많은 어려운 구절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의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책에 영감을 주신 분께서 친히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신실하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이요, 모순이나 오류가 없음이 완전히 입증된 셈입니다. (롬 8:17, 딤후 2:10-

12, 골 3:23)

11과. 만_나는_것을_나로_나 나누어 II